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850-01



대한민국 대표 체험관광지 어촌 체험 마을  
아름다운 어촌으로 떠나는

아스팔트와 빌딩숲을 벗어나  
바다가 그리울 때,  
갈매기 나는 푸른 바다와  
붉은 태양에 물든 갯벌이 그리울 때...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마을 특산물도 사고,  
이웃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코스 풀 가이드.

# 1박 2일 바다여행



# 바다여행

www.seantour.com



## 책을 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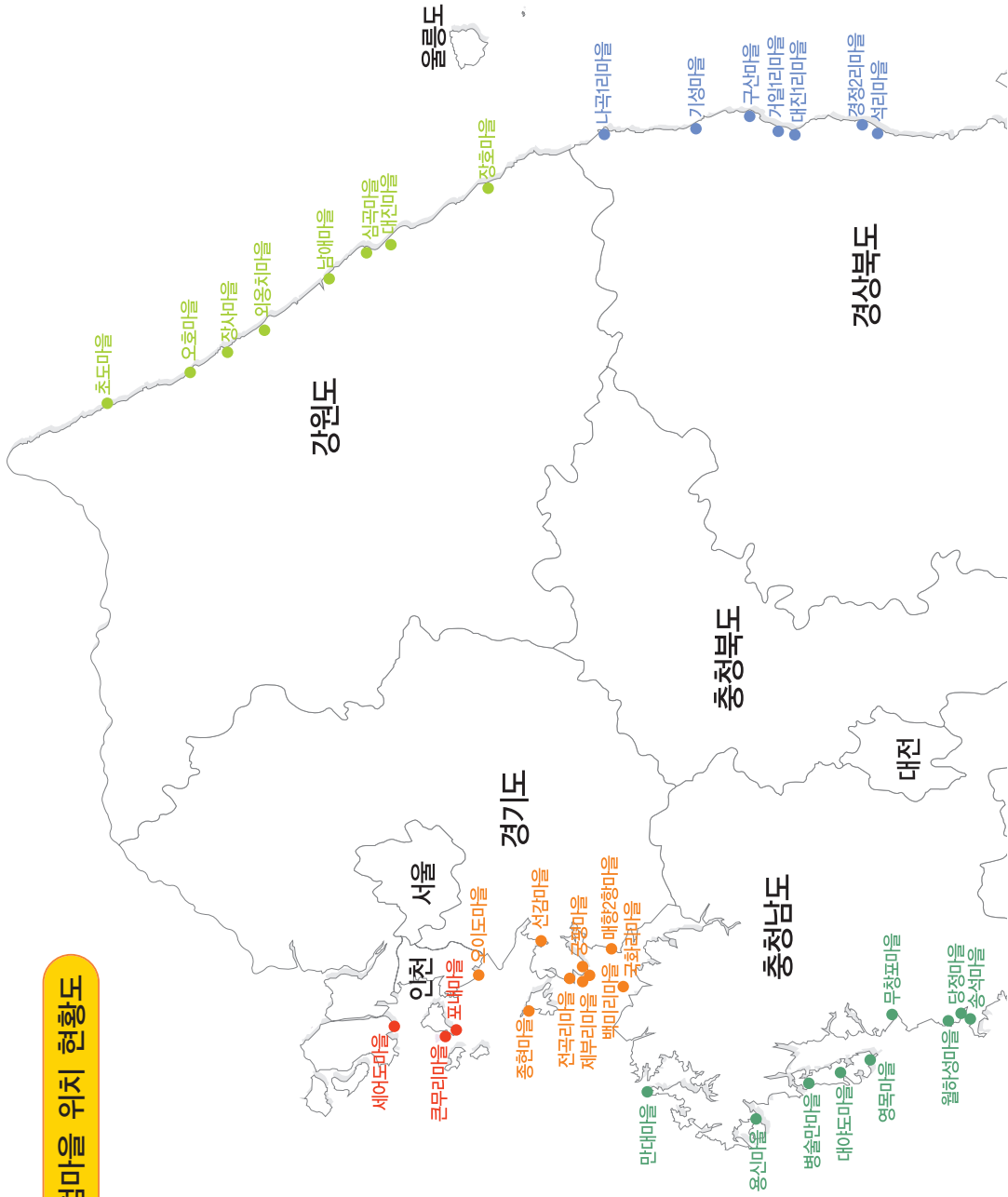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체험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각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잠자리, 먹을거리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서 1박 2일을 보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차고 꼼꼼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마을의 특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고, 체험을 끝낸 후 둘러볼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주변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천 여행코스는 여행지 취재 경험이 많은 여행전문기자들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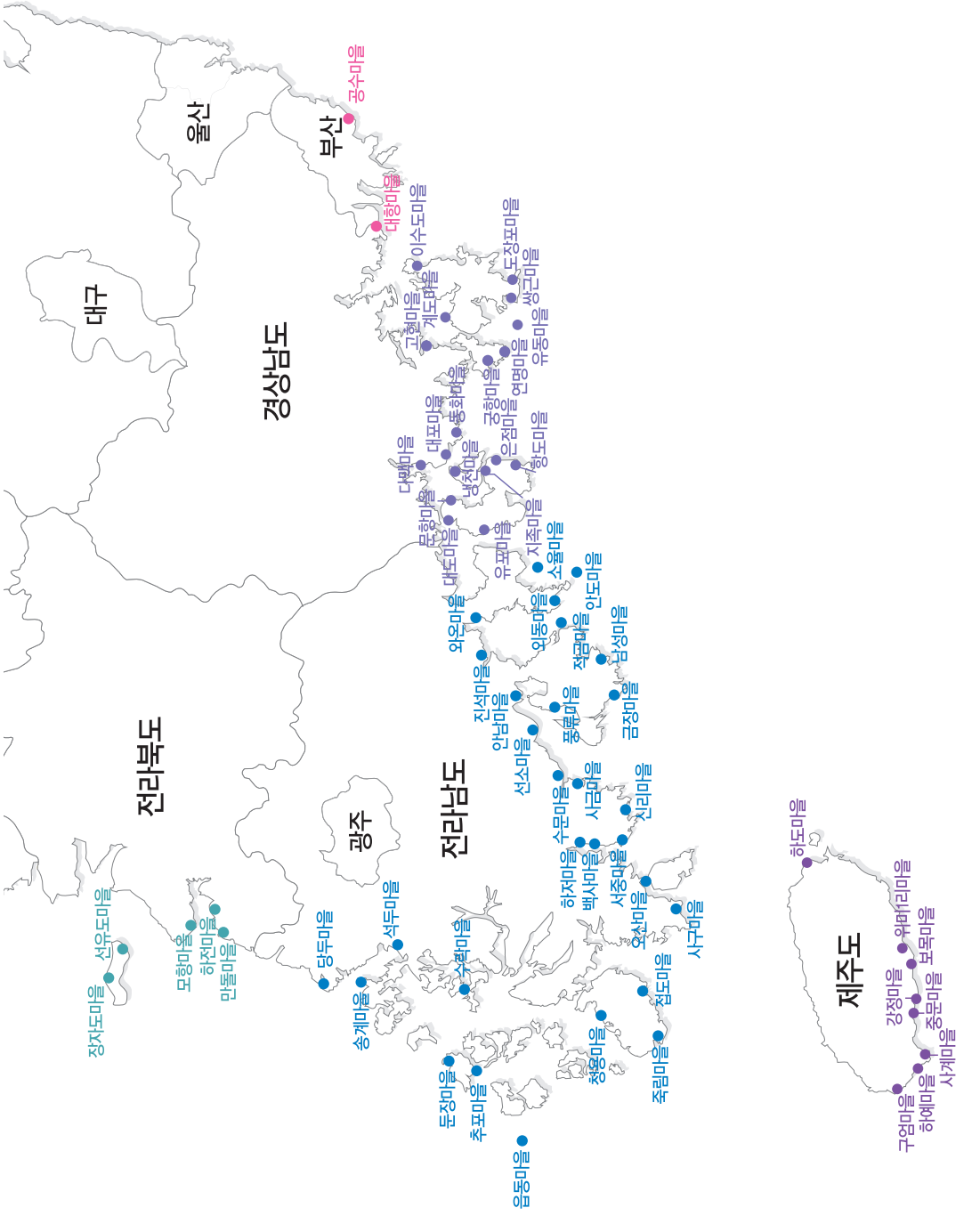
또한 책의 앞쪽에 전국 어촌체험마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위치현황도를 수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어촌체험여행이나 바다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com)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체험관광지, 어촌체험마을  
아름다운 어촌으로 떠나는  
1박2일 바다여행



어촌체험마을 위치 현황도





장자도마을  
선유도마을

도항마을  
하전마을  
만물마을

담두마을  
송계마을  
석두마을

문장마을  
추포마을  
음동마을  
수력마을

하저마을  
백서마을  
서중마을  
오차마을  
수문마을  
사금마을  
진리마을

구영마을  
하예마을  
강정마을  
위머리마을  
중문마을  
포덕마을  
사계마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구

울산

경상남도

부산

고수마을

대동마을

이수도마을

고현마을

계도마을

도장포마을

쌍군마을

유음마을

다행마을

대포마을

송화마을

근흥마을

근천마을

연명마을

유동마을

황도마을

문항마을

대도마을

남정마을

유포마을

지족마을

소영마을

인도마을

외온마을

진석마을

안남마을

신소마을

꽃북마을

적금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진석마을

안남마을

신소마을

꽃북마을

적금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금정마을

문항마을

대도마을

남정마을

유포마을

지족마을

소영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외온마을

진석마을

안남마을

신소마을

꽃북마을

적금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문항마을

대도마을

남정마을

유포마을

지족마을

소영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외온마을

진석마을

안남마을

신소마을

꽃북마을

적금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문항마을

대도마을

남정마을

유포마을

지족마을

소영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외온마을

진석마을

안남마을

신소마을

꽃북마을

적금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문항마을

대도마을

남정마을

유포마을

지족마을

소영마을

인도마을

남성마을

하도마을

제주도

구영마을  
하예마을  
강정마을  
위머리마을  
중문마을  
포덕마을  
사계마을



## 차 례

경기 화성 백미리어촌체험마을 **6**  
바지락천국에 망둥이도  
뛰놀고, 아이들도 뛰놀고!

경기 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 **12**  
아름다운 붉은 낙조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

경기 안산 선감어촌체험마을 **16**  
이색체험과 주변 관광코스  
이름 높은 우수체험마을

인천 무의도 큰무리어촌체험마을 **22**  
아무나 갈 수 없는 섬,  
실미도의 유혹에 빠지다

강원 고성 초도어촌체험마을 **28**  
향긋한 성게 맛보러  
초도항으로 놀러 오세요!

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 **34**  
신나는 오징어맨손잡기와 함께  
아바이순대도 맛볼까!

강원 양양 남애어촌체험마을 **40**  
창경발이배 타고  
마음에는 남애항 일출 담고

충남 서천 월하성어촌체험마을 **46**  
낮엔 지하 잡고 달밤엔  
해루질하고, 하루가 짧네~

충남 태안 영목어촌체험마을 **52**  
아름다운 서해의 다도해,  
최고의 낚시체험

충남 태안 대야도어촌체험마을 **56**  
천수만의 바람이 머무는 자리,  
안면도의 새로운 명소

전북 고창 만돌어촌체험마을 **62**  
갯벌 무한체험과  
선운사 트레킹을 즐기세요!

전북 군산 장자도어촌체험마을 **68**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그 섬에 해산물이 가득!

전남 무안 송계어촌체험마을 **74**  
드넓은 갯벌과 소나무숲에서  
해넘이와 해돋이가 일품이네~

전남 진도 죽림어촌체험마을 **80**  
지천에 널린 해산물을  
주워 담아 볼까요?





전남 해남 오산어촌체험마을 **86**  
땅끝길 따라가는  
생생한 갯벌생태체험

전남 강진 백사어촌체험마을 **92**  
하얀 모래 바닷길 따라  
갯벌 놀이터로 출발!

전남 장흥 수문어촌체험마을 **98**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해양소설의 주인공을 꿈꾸다

전남 고흥 안남어촌체험마을 **104**  
바다와 물을 잇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재미있게~

전남 여수 안도어촌체험마을 **110**  
평화로운 다도해,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에서 어촌체험!

경북 영덕 대진리어촌체험마을 **116**  
수중세계로의 신비한 여행과  
블루로드 트레킹

경북 울진 구산어촌체험마을 **122**  
금빛 어촌마을과  
관동팔경의 멋을 즐기세요!

경남 거제 쌍근어촌체험마을 **128**  
은빛 바다에서 멸치 낚고,  
폐교 테마박물관에서 옛 추억 낚고!

경남 거제 계도어촌체험마을 **132**  
별빛 가득한 해상콘도,  
수선화 가득한 공곶이 꽃길 트레킹

경남 통영 연명어촌체험마을 **138**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에서  
재미있는 어촌체험을 즐겨요!

경남 남해 문항어촌체험마을 **144**  
열려라 바닷길, 나와라 썩!

경남 남해 은점어촌체험마을 **148**  
문어랑 전복이랑 잡아보고,  
몽돌에 추억을 새기다

제주 서귀포 사계어촌체험마을 **154**  
해녀물질체험으로  
제주바다를 즐기다



바지락천국에 망둥이도 뛰놀고,  
아이들도 뛰놀고!

“아아~ 백미리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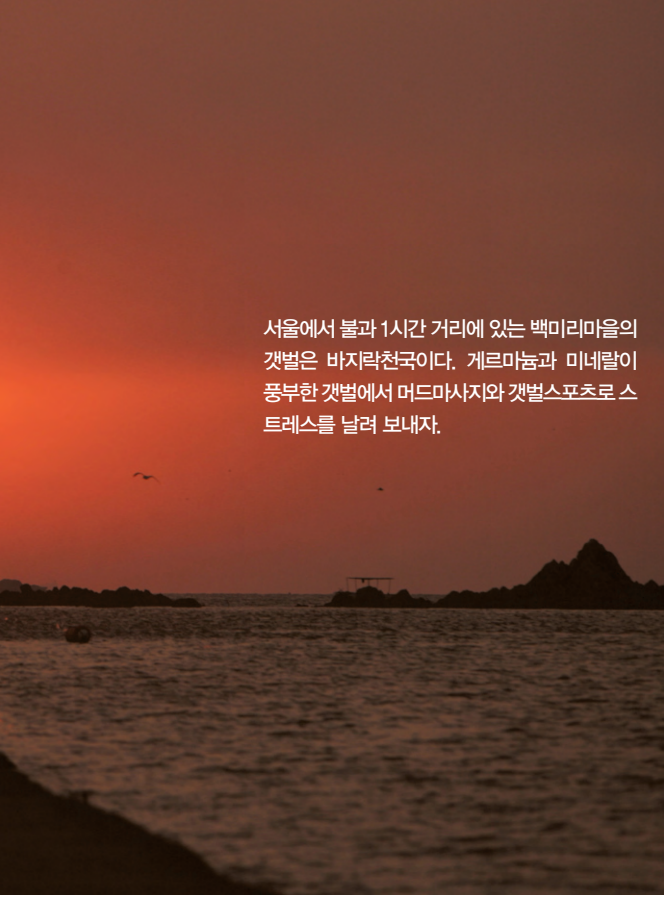
백미리는 동네생 김새가 뱀이 꼬리를 사리는 형국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지요. 눈부신 바다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제일의 자랑거리입니다. 갯벌에는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백미리갯벌은 바지락천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갯벌을 뒤집어 살이 통통히 오른 조개를 잡다 보면 금세 바구니 한가득 채워지지요. 서울 인근 바닷가에서 이렇게 넉넉한 갯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갯벌체험 후에는 체험장 내 세족장에서 씻을 수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건강망체험, 독살체험 등은 갯벌체험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백미리 앞바다에 말뚝을 박고 이곳에 그물을 걸어

들물과 날물을 이용, 물고기와 게, 새우를 잡는 건강망체험과 돌로 작은 담을 만들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어 두는 독살체험은 모두 맨손으로 펼척이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광어, 우럭, 노래미, 망둥이 등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니 대단하지요? 건강망은 하루 전날 마을주민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쳐두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갯벌썰매타기, 무인도체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백미리마을의 갯벌은 바지락천국이다. 게르마눔과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에서 머드마사지와 갯벌스포츠프로스트레스를 날려 보내자.



## >> 교통안내

🚗 서해안고속도로 비봉C → 서신·송산 방면 → 마도면 경유(317번 지방도) → 서신면 (309번 지방도) 공평리 방면 → 한맥중공업 우회전 2km 직진 → 마을 앞 십거리 우회전 150m → 백미리어촌체험마을

🚌 금정역 혹은 수원역 앞에서 서신면으로 가는 버스 타고 서신터미널에서 하차. 07:00 부터 22:00까지 운행. 20분 간격. 서신면 중점 서신농협 하나로마트 길 건너편에서 백미리로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운행한다. 07:30, 09:40, 15:30, 17:30 하루 4회. 혹은 택시를 타고 백미리까지 갈 수도 있다.

험, 배낚시체험, 스킨스쿠버 등 백미리의 체험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체험장비는 마을에서 대여해주고, 갯벌체험 시면 갯벌까지 걸어가기 힘든 아이들은 트랙터를 개조한 '갯벌마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체험을 위한 모든 준비 완료! 우수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을답지요? 게다가 백미리마을은 식도락 마니아들의 필수답사코스로서 이름 높습니다. 4, 5월에는 새조개, 주꾸미, 꽃게, 여름에는 노래미, 밀국낙지, 가을에는 대하, 전어가 체험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백미리갯벌에서 밤급 건져온 바지락으로 끓인 갈국수와 망둥이조림도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풍요로운 어촌체험마을, 백미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 되셨지요?

## Mini Interview

### 김호연 어촌계장

백미리는 바지락 천국입니다.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호미 하나만 있으면 바구니 가득 잡을 수 있지요. 백미리의 즐거움 중 또 하나는 물이 빠진 바위틈에서 째짜래한 굴(석화, 石花)을 캐 먹는 것입니다. 썰물 때가 되면 해수욕장 왼쪽의 매바위 주변과 해수욕장 오른쪽 해안은 굴밭으로 변한답니다. 갯벌에서 텅굴다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드마사지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도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백미리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바지락캐기)체험, 갯벌썰매체험, 무인도체험, 건강망체험, 배낚시체험

**여름** 갯벌(바지락캐기)체험, 갯벌썰매체험, 무인도체험, 건강망체험, 망둥이낚시체험, 배낚시체험, 스킨스쿠버체험

**가을** 갯벌(바지락캐기)체험, 갯벌썰매체험, 무인도체험, 건강망체험, 배낚시체험

**겨울** 굴따기체험

## 이용 요금

각 체험별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갯벌이 멀어 이동 시 갯벌마차나 썰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시 10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망둥이낚시의 경우는 폐기물 수거 비용으로 체험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좌대가 아닌 바다에서의 낚시는 무료.

## 문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28-2  
 전화 031-357-3379  
 홈페이지 <http://baekmiri.invil.org>



### 1 갯벌체험

마을 주변에 드넓게 펼쳐진 깨끗한 갯벌은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백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각종 해양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조개와 갯지렁이, 낙지, 방게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조개잡이, 굴따기, 고동줍기, 게잡이, 낙지잡이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7000원 / 어린이 5000원.

### 2 망둥이낚시체험

낚싯대에 미끼를 끼워 물속에 넣은 뒤 낚싯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망둥이가 득달같이 달려 든다. 초보자도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잡은 고기는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햇볕에 2~3일 말려 요리해 먹어도 별미다. 말린 망둥이는 잘 보관했다가 겨울철 입맛이 떨어질 때 조리 먹어도 좋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3000원 / 어린이 2000원(좌대낚시일 경우 1인 2만 원).





### 3 스킨스쿠버체험

바다 속을 탐험하는 스킨스쿠버 체험이 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백미리어촌체험마을에 오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스킨스쿠버는 수중호흡기를 몸에 부착하고 물 속을 잠수하는 운동. 바다 속을 누비며 신비로운 수중 생물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두 사람씩 짝을 이뤄 움직인다. 약 4시간 소요. 1인당 10만 원(단체 8만 원).



### 4 배낚시체험

배낚시는 백미리에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레저활동 중 하나이다. 서해바다의 편안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즐기는 바다낚시 후, 직접 잡은 생선을 회로 먹을 수 있다. 인근 해역에서 송어, 광어, 노래미, 우럭, 넙치, 망둥이 등 다양한 어종을 접할 수 있다. 개인은 5만 원이지만 단체(10인 이상)의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어린이가 있을 경우도 승선료 별도다. 약 3시간 소요.



### 5 갯벌썰매 · 마차타기체험

갯벌까지의 이동거리가 부담스럽다면 갯벌썰매, 갯벌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갯벌마차는 트랙터를 개조한 것으로 차광막이 있어 해가림도 된다. 갯벌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갯벌썰매는 다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서로 끌어주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신나는 놀이터가 된다. 약 1시간 소요. 1인당 1000원.



#### Tip 궁평항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국가어항. 궁평항은 해상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지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궁평항 방파제에 가면 미국의 메디슨카운티 다리보다 멋진 바다다리가 있다. 다리에 걸터앉아 낚시를 하는 강태공의 모습이 여유롭다. 또한 낙조가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출사지이기도 하다. 궁평항의 이색 명소는 수산물직판장. 이곳에서 해산물을 구입,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백미리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짐자리



백미리에서 하룻밤 지새우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오선리조트펜션(010-2280-9144), 민재네민박(031-357-3519)에 배이스캠프를 마련해두고, 서해바다를 벌겋게 물들이는 낙조를 감상해보자. 민재네민박은 마을 내에 위치한 펜션형민박으로 민들레, 채송화, 은방울꽃, 물망초 등의 꽃 이름으로 된 방이 있다. 통나무집부터 벽돌집 등 건축물이 아가자기하다.



#### 먹을거리

"바다내음과 신선함을 고스란히 담아 백미리 토박이의 자존심을 다해 음식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건 백미리 고향집(031-355-6091)은 우럭매운탕으로 유명하다. 백미리 어촌계부녀회에서 직영하는 슬루푸드 전문식당의 조개구이와 바지락칼국수도 맛있다. 바지락칼국수에는 갯벌에서 방금 채취한 '참바지락'을 듬뿍 넣는다.

#### 특산물

**바지락**: 조개의 대표주자인 바지락, 갯벌

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화성시 바지락은 유독 품질이 좋다. 환경부가 전국 4대 갯벌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화성시 남양만 지역의 갯벌은 청정하며,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잡히는 바지락은 그 맛이 깨끗하고 씨알이 굵고 크기가 고르며, 육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백미리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바지락은 산란기인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을 제외하고 항상 출하된다.



추천 여행코스 : 백미리마을 → 궁평낙조 → 솔밭유원지 → 궁평항에서 점심(횃집) → 궁평유원지 → 궁평송마장 → 남양성모성지  
→ 화성시 포도문화관 → 제부도 → 전곡항

**궁평유원지** 궁평항 건너편 해안에 위치한 궁평유원지에는 궁평해수욕장과 캠핑장, 100살이 넘는 소나무숲과 갯벌을 갖춘 작은 유원지가 있다. 화성팔경 중 하나인 '궁평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문의 화성시청 문화관광 031-369-2069



**화성시 포도문화관** 화성은 포도로 유명하다. 포도문화관에서는 다양한 포도품종과 포도주, 포도잼 등 포도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92㎡ 규모. 상품구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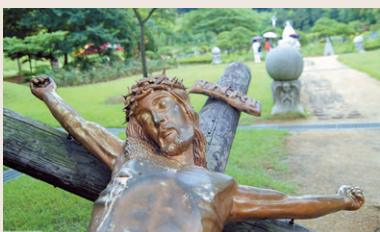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2리 156-1

문의 031-356-4240 / 사무장 010-3900-2050

**제부도**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섬이다. 면적 98만㎡이며, 서신면 송교리 해안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해안가 갯벌은 물이 들어오면 해수욕장으로 변신한다. 썰물 때는 간석지를 통하여 육지와 이어진다. 주변 낚시터에서 붕장어, 농어, 숭어 등이 잡힌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문의 031-357-8616



**남양성모성지** 남양성모성지는 1991년 10월 7일 국내에서 최초로 공식 선포된 성포순례지로 병인년(1866년) 대박해 때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곳이다. 제부도 가는 길목인 남양동에 있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704

문의 031-356-5880

# 아름다운 붉은 낙조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

대부도에서 만나는 첫 마을, 종현마을은 단순한 갯벌체험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갖추고 있다. 속이 짝 찬 바지락처럼 마을 곳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



“아아~ 종현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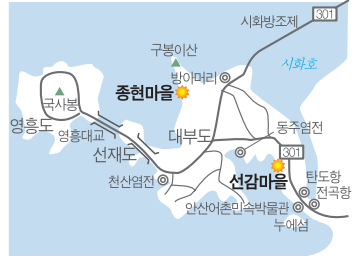
너무나도 유명한

인공바닷길인 시화방조제를 달려 대부도로 들어오면, 방아머리선착장을 지나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바로 종현마을입니다. 한자로 쇠북 종(鐘)에 鐘懸洞이라 씁니다.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하사한 종에서 비롯된 이름이지요.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인조 임금이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로 피난을 가다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목이 마르셨나 봅니다. 임금이 우리 마을 뒷산을 가리키며 “저 산에 가면 맑은 샘물이 있을 것 같으니 물 좀 떠 오라”고 시켰답니다. 한 병사가 숲을 헤치고 가보니 정말 샘물이 있었습니다. 달게 물을 마신 인조는 훗날 한양으로 돌아와 마을에 쇠종을 하사했고, 그 후 마을이


름이 종현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을이름은 임금이 지어 주신 거나 다름없지요.

그때 물을 떠 온 웅달샘이 지금 마을 뒷산 구봉산에 있는 천영물약수터입니다. 구봉산 해안산책로를 따라 약수터에 들러 인조 임금이 반한 물 맛을 보고 가세요. 정말 꿀맛입니다. 천영물약수터 외에도 종현마을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구봉산을 끼고 도는 해안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 >>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 월곶IC → 시화방조제 방향 좌회전 → 오이도 → 시화방조제 →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 약 3km 직진 → 구봉도(약수터 입구) 우회전 → 중현어촌체험마을

 인천 용진구청 정문 건너편에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시외버스와 안산역에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123번 시내버스가 있지만 중현마을까지 가지는 않는다. 구봉도삼거리에서 하차한 후 40분가량 걸어 들어가야 한다. 택시도 거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단, 단체로 예약할 때는 체험마을 트랙터로 이동 가능.

문의 인천시외버스 신백승여행사 032-773-8885 / 안산역 123번 시내버스 태화상운 031-494-9126

풍광을 감상할 수 있지요. 최근에는 예쁜 공원까지 조성해 놓았으니 아기자기한 맛이 더할 겁니다. 마을 주변 갯바위는 천혜의 낚시터도 되지만 마을의 절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바다 위로 나란히 솟아 있는 선돌바위 뒤로 붉게 떨어지는 낙조는 여행객들의 가슴을 쿵쿵거리게 합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아름답고 장엄한 해넘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몰려들지요.

어촌체험센터 내에 군대식내무반이나 방갈로, 오토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으니 단체여행객들이나 가족여행객들은 색다른 숙박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다, 그 속에서 바지락갈국수와 조개구이로 대표되는 다양한 먹을거리도 꼭 만나보세요.

## Mini Interview

### 김부열 어촌계장

중현마을은 어촌 체험마을 중에서도 상위 5%에 드는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체험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당일코스보다는 1박2일의 여정으로 즐길거리가 더 많지요. 이른 아침 산책로도 거닐어보시고, 밤에는 선돌바위에서 낙조를 감상하고 소라잡이나 고동잡이도 해보세요. 또 오고 싶어지실 거예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종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생태체험, 조개잡이, 갯벌썰매/관광열차,  
수상자전거 만들기, 조개껍질공예

**여름** 갯벌생태체험, 조개잡이, 갯벌썰매/관광열차,  
미꾸라지/물놀이바운스, 수상자전거 만들기,  
조개껍질공예, 레저보트체험, 바다래프팅체험

**가을** 갯벌생태체험, 조개잡이, 갯벌썰매/관광열차,  
수상자전거 만들기, 조개껍질공예

**겨울** 굴따기체험, 서바이벌, 사륜바이크

## 이용 요금

체험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이 각각 책정되어 있다. 30명 이상의 단체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갯벌생태체험과 수상자전거 만들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각 1만 5000원.

## 문의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0-37  
전화 032-886-5200  
홈페이지 <http://www.ansandaebudo.co.kr>



### 1 갯벌생태체험

이여달리기, 갯벌썰매 등 갯벌에서 즐기는 게임과 함께 갯벌에서 서식하는 게, 조개, 민챙이, 갯지렁이 등을 관찰하고 잡아보면서 살아 있는 갯벌을 체험할 수 있다. 갯벌에 관한 지식과 체험후기를 적은 관찰노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갯벌생태체험과 공예, 레크리에이션을 묶어서 현장학습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다.

약 2시간 소요, 패키지 비용 1만5000원.

### 2 조개잡이(조개목걸이 만들기)체험

갯벌을 막무가내로 휘젓고 다니다 보면 숨구멍을 막아 조개가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갯벌 체험을 즐기며 적당량 채취하자. 부녀회에서 끊여주는 바지락칼국수도 먹고, 조개껍데기 목걸이까지 만들 수 있는 유치원 대상 단체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한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8000원 / 어린이 6000원 / 유치원 단체(조개잡이+바지락칼국수+조개 목걸이 만들기) 1만3000원.







### 3 갯벌썰매/관광열차체험

눈썰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갯벌썰매에도 도전! 부드러운 갯벌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갯벌썰매는 특히 어린이 체험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단, 엄마, 아빠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어느새 진흙으로 범벅이 되지만 행복한 웃음만은 감출 수 없다. 트랙터에 연결한 관광열차를 타면 해안산책로를 따라 무인도를 돌아볼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2000원.

### 4 굴따기체험

굴양식장에서 굴따기체험을 할 수 있다. 굴따기는 석화를 캐는 것과는다르다. 굴을 따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지만 체험 후, 바다의 우유, 영양의 보고인 싱싱한 굴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약 2시간 소요.

### 5 수상자전거 만들기

모터 없이 프로펠러의 원리를 이용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가는 수상보트와 수상자전거 만들기는 환경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름이나 배기가스에 의한 수질오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중 산소 공급과 대류현상으로 수질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수상자전거 만들기, 공예, 레크리에이션을 묶어 현장학습패키지로 운영한다. 약 3시간 소요, 비용 1만5000원.



### Tip 전곡항 마arina & 요트체험

전곡항은 전국 최초로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다기능 테마어항으로 조성되었다. 탄도항과 마주 보고 있으며 요트마리나가 있는 곳으로 매년 세계요트대회가 열린다. 또 상시 요트체험도 가능한데, 체험은 화성&씨그랜트 해양아카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딩기요트과정', '카약·래프팅 과정', '크루저요트과정'이 있다. 단, 딩기요트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제한되며, 유치원생은 유치원용 프로그램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보험료 및 교재비로 1인당 1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문의 032-860-8495(<http://www.gsg.or.kr>)

# 이색체험과 주변관광코스로 이름 높은 우수체험마을



“아아~ 선감마을입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제대로 된 어촌체험을 맞볼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마을이 바로 선감마을입니다. 간만의 차이가 크고 완만한 간척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미생물이 살아 있는 건강한 갯벌에서 바지락, 소라, 방게, 썩, 갯지렁이 등 다양한 생물종을 만날 수 있지요. 대표적인 어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지락캐기는 겨울을 제외하면 어느 때 오시든지 충분히 잡고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양을 자랑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탈만 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때만 맞는다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후리질체험도 해볼 만하지요. 아이들은 할 수 없어 구경만 해야 하지만, 어른들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 올리는 모습과

그물에 잡힌 큼직한 송어를 보는 것도 즐거운 체험이 될 테니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맛탐험대’입니다. 바지락도 잡아 보고 낙지도 잡아보고 방게도 잡아 보고, 체험 후에는 낙지볶음과 바지락탕, 꽃게찜이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식사 후에는 바지락공장으로 견학까지 할 수 있으니, 하루 체험일정으로는 그만입니다. 마을에 아영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몽골텐트 게르가 지어져 있으니 이곳에서 숙박하




수도권에서 살아 있는 갯벌을 만나고 싶다면 바로 이곳, 선감마을로 가야 한다. 넓은 갯벌에서 양동이 가득 바지락을 캐고, 낙지볶음과 바지락탕, 바지락칼국수 등을 한 상 푸짐하게 먹고, 바지락공장 견학까지. 인근의 천일염전, 박물관, 향구관광은 덤이다.

는 것도 또 하나의 이색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높은 산 위의 정결한 바위에 신선이 내려와 노닐고 목욕을 했다고 해서 이름을 '선감'으로 지었다고 전해오는데, 야트막한 산과 어우러진 바다를 보노라면 이런 유래를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예쁜 대부도펜션 마을도 있고 누에섬 등대전망대, 어촌민속박물관, 천일염전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어촌체험, 먹거리, 볼거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여행, 바로 선감마을에 있지 않을까요? 우수어촌체험마을인 선감마을로 오셔서 그 매력 속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 >>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 정왕IC → 시화공단방향 좌회전 → 오이도 → 시화방조제 → 대부도 방어머리 선착장 → 탄도 방향 좌회전 → 선감어촌체험마을

비봉IC → 남양 → 사강(송산) → 구봉터널 → 전곡항 → 탄도 → 선감어촌체험마을

 안산 전철역 맞은편 정류장에서 123번 시내버스 승차, 선감마을 하차. 배차 간격은 40분, 1시간 반 소요.

수원역 애경백화점 육교 밑 정류장에서 990·400·400-1번 버스 승차, 사강의원 앞 하차. 대부도행 717번 버스 환승, 선감마을 하차. 대부도행 717번 버스는 08:20에 첫차가 있으며 3시간 간격으로 대부도까지 약 40분 소요.

문의 안산역 123번 시내버스 태화상문 031-494-9126

### Mini Interview

### 신상철 어촌계장

우리 선감마을 갯벌은 화장품 원료로 인정받을 만큼 '살아 있는 갯벌'이에요. 경기도 인근 체험마을에서 거의 유일하다



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갯벌체험을 할 수 있지요. 바지락을 잡다 보면 갯지렁이도 만나고 방게도, 소라개도 만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생생한 자연 학습장을 마련해주시고 싶다면 선감마을로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선감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체험, 조개잡이, 낙지잡이, 후리질체험, 갯벌 썰매, 모터바이크, 승마체험, 서바이벌게임, 몽골 텐트체험(숙박)

**여름** 갯벌체험, 조개잡이, 후리질체험, 갯벌썰매, 물 놀이, 모터바이크, 승마체험, 서바이벌게임, 몽골텐트체험(숙박)

**가을** 갯벌체험, 후리질체험, 조개잡이, 포도따기, 고구마캐기, 갯벌썰매, 모터바이크, 승마체험, 서바이벌게임, 몽골텐트체험(숙박)

**겨울** 갯벌썰매, 모터바이크, 승마체험, 서바이벌게임, 몽골텐트체험(숙박)

## 이용 요금

체험프로그램별 비용이 각각 책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조개잡이는 어른 8000원, 어린이 6000원.

## 문의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208-17  
전화 032-886-6133  
홈페이지 <http://seongam.seantour.org>

### 1 갯벌체험

천혜의 보고, 서해안 갯벌의 싱싱한 바지락을 맛보자. 호미와 바구니만 있으면 준비 완료! 찰진 갯벌을 호미로 싹싹 긁어서 바구니에 한아름 담으면, 아이도 부모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오른다. 잡은 바지락은 봉지에 담아가면 된다. 갯벌 체험의 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갯벌 썰매를 타고 광활한 갯벌을 신나게 달려보자. 2시간 소요, 갯벌체험 1인 8000원, 갯벌 썰매 대여료 2000원.

### 2 조개잡이체험

트랙터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면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손쉽게 바지락을 캐 수 있다. 마을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한 바지락캐기에 도전하자. 약 2시간 소요, 어른 8000원 / 어린이 6000원.





### 3 후리질체험

작은 어망을 이용해 밀물 때 물고기를 잡는 체험이다. 물때를 맞춰야 하고, 어린이는 할 수 없으며, 하루에 한 단체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어울려 그물을 내리고 펄떡이는 송어를 잡아 올리는 체험은 한 번 경험하면 그 생동감을 잊기 어렵다. 약 2시간 소요, 단체 1회 15만 원.



### 4 물놀이체험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이다. 이전에는 물축구장과 슬라이딩수영장을 운영해 아이들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2011년부터는 어른을 위한 성인수영장도 설치해 총 3종의 물놀이장을 마련했다. 물놀이장이 풀밭에 위치해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있다. 약 1시간 소요, 어른 2000원 / 어린이 2000원.



### 5 몽골텐트체험

야영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흰색이던 게르가 얼마 전 새 단장해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었다. 큰 동은 어른이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동은 어른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냉난방은 되지만 화장실이나 취사장, 샤워장은 외부에 있으며 취사도구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큰 동 15만 원 / 작은 동 13만 원.



### 6 포도따기체험

대부도 특산물인 포도는 충분한 일조량과 바닷바람으로 인해 달콤한 맛과 크기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나지막이 그늘을 만들고 있는 포도나무 속에서 달콤한 포도향에 취하는 시간이 포도따기 체험이다. 가을수확기에 체험 가능하다. 약 2시간 소요, 단체 5000원 / 개인 5000원(고구마캐기 동일).

# 알아두면 도움되는 우리 마을 요모조모

## 총현마을 자고 먹고!

### 잠자리



어촌체험마을(032-886-5200) 시설에 군대식내무반(50인실)과 방갈로(6인실/15인실), 오토캠핑장(4인실/6인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대식내무반의 경우는 리더십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찾는 이들이 많은 편이며, 오토캠핑장의 경우는 트레일링 안에 조리대와 샤워부스가 갖춰져 있어 가족들의 이색체험장으로 인기가 있다. 인근에도 숙박시설이 있는데 솔밭콘도식민박(032-886-5330), 해병대체험을 연계한 썬리치(032-884-6622)가 있다.

### 먹거리

대부도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바지락칼국수와 조개구이, 자연산 활어회이다. 단체의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바지락칼국수와 생선회, 매운탕, 조개구이, 칼국수 등 싱싱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세트메뉴를



제공한다. 소문난 맛집으로는 까치할머니(032-884-0770)가 있다.

## 선감마을 자고 먹고!

### 잠자리



게르체험이 있지만 마을 인근에는 대규모 펜션단지도 있어 눈길을 끈다. 가정식 민박을 원한다면 마을의 전망대민박(032-886-5898)이나 아침농장(032-886-1598)을 추천한다.

### 먹거리

부녀회에서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바지락칼국수와 낙지볶음 등의 요리를 내놓는다. 싱싱한 재료에 맛은 기본이다. 예약 필수, 예약을 취소할 경우는 체험일 이전에 이야기해야 한다. 그 외의 음식적으로는 바지락 손칼국수를 파는 불도회단지의 15호형제수산(032-886-5629), 낙지전골과 조개구이를 주로 하는 충남77호(032-883-9670)가 있다.



### 특산물

낙지·바지락·포도: 선감마을은 경기도 인근에서 만나보기 힘든 살아 있는 갯벌을 자랑한다. 이곳에는 풍부한 양의 바지락이 있어 체험객들에게도 인기만점! 또한 체험객이 직접 잡기는 어렵지만 낙지 역시 선감마을의 특산물이다. 크기는 크지만 질기지 않고 맛이 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대부도포도는 껍질이 두껍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대부도에는 와인공장이 있고, '그랑꼬또'라는 자체 와인브랜드까지 만들었다.

## Tip 주꾸미철판구이



바지락칼국수와 함께 대부도의 별미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주꾸미철판구이. 대부도에서도 주꾸미가 많이 잡히는 편. 매콤 달콤한 양념에 야채를 듬뿍 넣고, 싱싱한 주꾸미를 살짝 볶아내는 철판구이는 어느새 지역의 별미로 자리잡았다. 알이 차는 불이 제철이다.

둘째 날 코스 종현 · 선감마을 체험여행 후  
여기저기 대부도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종현마을 → 구봉산 해안산책로와 선돌바위 → 방아머리선착장 → 선재도 → 영흥도에서 점심(횃집) → 대부출장소 지나서 → 동주염전 → 선감마을 → 탄도항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누에섬 → 탄도항 → 전곡항

**대부도 천일염전-동주염전** 여전히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전. 직접 소금도 채취해보고 옛 소금창고도 둘러보는 등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1인당 5000원, 20인 이상 1인당 4000원.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657

문의 011-441-6829(김옥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의 해양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이다. 제1전시실의 해안유적 관련 유물전시관에는 공룡발자국 화석, 공룡알 화석 등이 전시되어 흥미롭다. 2전시실은 어업문화, 3전시실은 어촌민속을 다루고, 어린이대상체험전시실도 마련되어 있다.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문의 032-886-0126

**누에섬 등대전망대** 탄도항에서 1.2km 떨어진 누에섬까지 하루에 두 번 4시간씩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리는데 섬 안에 등대전망대가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인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70

문의 032-886-0126



**구봉산 해안산책로와 선돌바위** 구봉도는 일정을 마치며 석양이 질 때 즈음 들르면 좋은 곳이다. 해안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만날 수 있는 선돌바위의 서해낙조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이다.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문의 안산시 관광해양과 031-481-3059

# 아무나 갈 수 없는 섬, 실미도의 유혹에 빠지다

“아아~ 큰무리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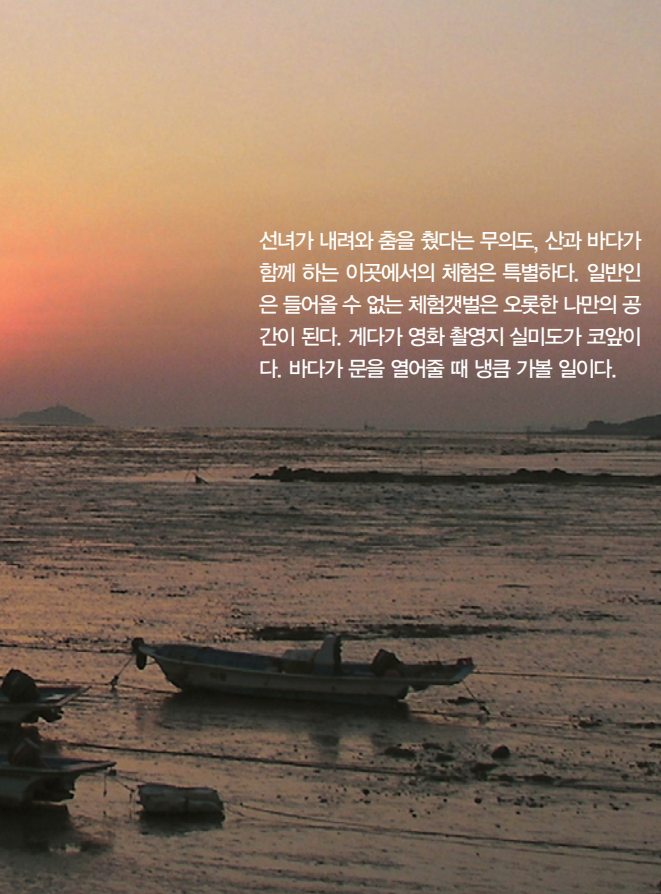


무의도는 인천에서 5분가량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섬입니다. 무의도행 배를 타려면 일단 잠진도선착장으로 가야 하지요. 배를 타고 바다 좀 볼까 하면 바로 도착합니다. 아주 가깝지요?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춰 무희의 옷처럼 아름답다고 무의(舞衣)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 무의도는 섬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행과 바다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호룡곡산과 국사봉 등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무의도는 참 아름답지요.

무의도선착장을 따라 조금만 들어서면 큰무리마을 체험센터가 바로 보입니다. 무의도에 있는 3개의 마을 중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 '큰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요. 큰무리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무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서 보이는 작은 무인도 '매도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섬에서 떠나는 또 하나의 섬 체험입니다. 갯벌체험은 실미도 앞 실미해수욕장과 체험자들에게만 오픈하는 작은하나갯벌에서 합니다. 산 너머에 위치한 작은하나갯은 무의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코스랍니다. 개방되지 않아서인지 갯벌은 온통 바지락 천지이지요. 갯벌과 바다를 즐기기도 안성맞춤입







선녀가 내려와 춤을 췄다는 무의도, 산과 바다가 함께 하는 이곳에서의 체험은 특별하다.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는 체험갯벌은 오롯한 나만의 공간이 된다. 게다가 영화 촬영지 실미도가 코앞이다. 바다가 문을 열어줄 때 뽕글 가볼 일이다.



### >> 교통안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용유·무의 방향 → 무의도·잠진도 방향(좌회전) → 잠진도선착장 → 배로 이동(5분) → 무의도선착장 → 큰무리어촌체험마을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인천국제공항 주말에는 용유역까지 이용 가능, 공항 3층 5번, 9번에서 잠진도행 버스 222번이나 무의도행 버스 302번, 306번을 탄다. 222번 버스 40분에 한 대씩 운행한다. 잠진도선착장에서 30분간격으로 운행되는 무의도행 배를 타면 된다. 운임 왕복 3000원(어른 1인 기준) / 2만 원(차량·운전자 포함)

니다. 신청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따라 하루 종일 작은하나개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바로 무의도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인천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들도 영화와 드라마세트장을 찾아옵니다. 큰무리마을 앞의 실미해수욕장 바닷길에 열리면 실미도로 건너갈 수 있어요. 영화 <실미도>의 현장이죠. 또한 하나개해수욕장은 인기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촌과 산, 관광지가 공존하는 무의도는 배를 타고 떠나오는 순간 잠시 일상을 잊게 해줍니다. 당일코스로도 체험 가능하니 정말 한달음에 올 만하지요? 우리 큰무리마을에 오셔서 그 모든 행복을 느껴보세요.

### Mini Interview

### 전양배 사무장

큰무리마을은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촌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당일코스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섬, 무의도에는 산과 갯벌, 해수욕장, 드라마세트장이 있어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큰무리마을로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큰 무리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갯벌체험, 바다낚시체험, 무인도체험
- 여름 갯벌체험, 바다낚시체험, 무인도체험, 맨손 고기잡이 체험, 후릿그물체험, 바다보트체험
- 가을 갯벌체험, 바다낚시체험, 무인도체험

## 이용 요금

체험별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다. 갯벌체험 어른 8000원, 어린이 5000원. 하지만 바다체험의 경우 시간과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또 체험을 묶어서 진행할 경우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문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98-1  
 전화 032-751-0310  
 홈페이지 <http://keunmuri.seantour.org>



### 1 갯벌체험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 나가 바지락, 동죽, 가무락을 잡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체험이다. 직접 잡은 조개는 가져갈 수 있다. 저녁에 한 소쿠리 가득 잡은 바지락과 동죽으로 가족끼리 풍성한 조개구이 파티를 열어보자. 약 2시간 소요. 어른 8000원 / 어린이 5000원.

### 2 바다낚시체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한다. 무의도 바다에서는 우럭, 장어가 잘 잡힌다. 인원수에 따라 배와 낚시줄을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다. 약 3시간 소요. 어른 4만 원 / 어린이 3만 원.





3



4



5



6



### 3 무인도체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무인도체험을 해보자. 배를 타고 무의도를 떠나 '매도랑'이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갯벌체험, 낚시체험을 할 수 있다. 어른 2만원, 어린이 1만5000원.

### 4 맨손 고기잡이 체험

바다 옆에 어장을 만들어 잡고기를 풀어놓고 맨손으로 잡는 체험. 여기저기 침범거리며 고기를 잡다 보면 몸에 활력이 샘솟는다. 잡은 고기로 저녁에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약 1시간 소요. 1인당 1만5000원.

### 5 후릿그물체험

키높이 정도까지 차는 바다에 들어가서 후릿그물로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 후릿그물체험. 망둥이가 잡힌다. 물이 빠지는 시간을 잘 맞춰 들어가야 한다. 성인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약 3시간 소요. 어른 1만5000원, 어린이 1만 원.

### 6 바다보트체험

바닷가에 왔으면 보트를 한 번 타줘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무의도 주변을 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여름 더위는 잠시 잊는다. 약 1시간 소요. 1만 원 ~ 2만 원(시간과 인원수에 따라 변동).



## 알아두면 도움되는 큰무리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관광지답게 무의도에는 펜션이 여럿 있다. 그중 무의사랑펜션(032-751-8800)은 체험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숙소 예약이 가능하다. 조립식펜션 건물과는 달리 돌로 만들어져 방음이 잘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장점이다. 주인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셔서 깔끔하고 깨끗하다. 바비큐시설도 있으니 예약 시 사용여부를 알려주면 된다. 펜션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고 뒤로는

산과 바위가 있어 초록풍경에 눈이 시원해진다. 국사봉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도 할 수 있다.

#### 먹을거리

무의도선착장에서 내려 큰무리마을 입구를 보면 큰무리회조개구이(032-751-8822)가 있다. 주인아저씨가 직접 기르는 채소들이 밥상에 올라온다. 무의도의 특산물인 굴로 만든 영양굴밥이 별미다. 실미도영광이네(032-752-2007)에서는 시원한 바지락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실미해수욕장에서 실미도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길로 실미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창밖으로 보인다. 낙조를 보며 맛보는 자연산 회도 별미.

#### 특산물

**자연산 굴 & 어리굴젓** : 굴이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영양덩어리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큰무리마을의 굴은 뽕에서 자란 자연산 생굴이다. 알이 작아서 껍질을 까는 것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하니 하나 손질한다. 생굴로도 맛있지만 어촌계에서 판매하는 어리굴젓도 별미다. 굴전을 부쳐서 어리굴젓을 올려 먹으면 어떤 고급음식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 여기저기 무의도 · 인천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큰무리마을 → 포도농장 → 영화촬영소 → 광명포구 → 광명포구에서 점심(횃집) → 소무의도(광명포구와 다리 개통) → 하나개해수욕장 → 실미해수욕장 → 실미도(걸어서 가능) → 을왕리 → 왕산해수욕장

**포도농장** 무의도는 옛날부터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농반어촌이었다. 큰무리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우스나 밭이 많이 있다. 체험방 문 시 센터에 문의하면 포도하우스 견학과 포도 구입도 할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98

문의 011-391-5627



**영화 in 인천 테마여행** 인천 속 영화, 드라마 촬영명소 지도를 준비 하자. 실미도뿐 아니라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만 해도 '천국의 계단', '크크섬의 비밀', '칼잡이 오수정' 등 여러 드라마에 등장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문의 잠진도관광안내소 032-751-2628

**하나개해수욕장** 큰무리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하나개해수욕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바다풀장이다. 수심이 얇고 파도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즐기기에 적당하다. 방갈로도 있고, 승마체험도 가능하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문의 032-751-8833



**왕산해수욕장** 무의도에서 나와 용유도 방면 해변도로로 달리면 용유도 끝에 왕산해수욕장이 있다. 왕산은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 아직은 깨끗하고 한적하다. 하지만 곧 개발되어 오토마리나가 들어선다고 한다. '왕산낙조'는 서해안 낙조 중에도 손꼽힌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문의 인천시청 관광진흥과 032-440-4040

## 향긋한성계 맛보러 초도항으로 놀러 오세요!

고슴도치 같은 성계 깎데기 속에는 노오란 알이 가득, 영양만점 웰빙식품 성계의 주산지인 초도마을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전설을 만날 수 있다. 금단의 땅 금구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아아~ 초도마을입니다!”



초도마을은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던,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앞바다에는 거북 모양이 선명한 금구도가 있고 마을 끝자락에는 언덕 위의 하얀 집, 화진포의 성(김일성별장)이 있는 아름다운 화진포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지요.

금구도는 광개토대왕릉 전설과 성터로 유명합니다. 고구려 연대기에 따르면, 광개토대왕 3(394)년 화진포의 거북섬에 왕릉 축조를 시작했고, 광개토대왕 18년에는 수릉 축조현장을 대왕이 직접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광개토대왕이 서거한 이듬해에는 금구도에 시신을 안장했고 수비대가 왕릉을 지켰다고 하지요. 문자명왕 2년에는 이곳에서

광개토대왕의 망제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게다가 금구도에는 이러한 기록을 증명하는 듯한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금구도 주변은 바다낚시가 활발하고,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어장이 풍성하게 형성되었지만, 군사 작전 지역이라 평소에는 드나들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초도마을의 성계 축제기간에는 금구도도 개방됩니다. 금구도 낚시체험, 금구도상륙 및 해양생물채집 체험을 할 수 있지



## >> 교통안내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 → 속초 → 간성 → 화진포

서울(6번 국도) → 양평(44번 국도) → 홍천 → 진부령 → 대대삼거리 → 화진포 → 초도어촌 체험마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에서 속초시의 버스 터미널 까지 2시간 20분 소요. 06:25~23:00까지 30~40분 간격으로 운행.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진행 1-1번 버스를 타고 초도리 하차. 1시간 20분 소요. 문의 속초시외버스터미널 033-636-2165

요. 평소에는 금구도 일주 및 광개토태왕릉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금구도를 향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초도마을은 동해안 최대의 성계산지입니다. 매년 6월 초면 성계축제가 열려 작은 마을이 낚시와 성계테마체험을 하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축제기간에는 성계맨손잡기, 성계 높이 쌓기 및 무료시식 등의 성계테마체험과 함께 가두리 낚시·배낚시, 어선 무료승선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마저 푸른빛으로 물들어버리는 아름다운 초도항에서 즐기는 생생한 어촌체험은 울여름이 가기 전 놓치면 안 될, 멋진 경험이 아닐까요. 초도마을로 오셔서 향긋한 성계맛도 보시고 광개토태왕릉에 얽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 Mini Interview

### 정철규 어촌계장

동해안 최대의 성계산지인 초도마을은 해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초도성계축제를 통해 성계의 우수함과 흥미로운 성계체험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구도라는 작은 섬과 화진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초도마을에서 성계테마체험과 해양생물체험교실을 통해 멋진 추억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초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배낚시체험, 해양생물 생태체험, 금구도 일주 및 스토리텔링

**여름** 배낚시체험, 향내 가두리낚시체험, 성게테마체험, 오징어맨손잡기체험, 해양생물 생태체험, 금구도 일주 및 스토리텔링

**가을** 배낚시체험, 해양생물 생태체험, 금구도일주 및 스토리텔링

**겨울** 배낚시체험, 해양생물 생태체험(소형통발체험은 제외), 금구도일주 및 스토리텔링

### 이용 요금

배낚시체험 10만 원(기본 5인), 금구도상륙 및 해양생물채집 체험 6000원, 향내 가두리낚시 체험 1만 원, 해조류표본만들기 3000원.

### 문의

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어촌체험마을  
전화 033-681-5281

홈페이지 <http://chodo.seantour.org>



### 1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아름다운 초도마을의 해변에서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아 보자. 미끌미끌한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신만의 오징어잡이에 열중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른다. 잡은 오징어는 해부하고 즉석에서 시식도 할 수 있다. 약 1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어린이 8000원.



### 2 성게테마체험

초도마을의 특산물인 성게를 맨손으로 잡아보고, 쌀아 보기도 하고, 해부도 하는 시간이다. 성게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듣는 동안 낯설었던 성게가 재미있게 느껴지고, 싱싱한 성게를 즉석에서 시식해보면 그 향긋한 첫맛에 반하게 된다. 약 2시간 소요. 성게 맨손잡기 체험 어른 6000원 / 어린이 5000원.







3

### 3 항내 가두리낚시 체험

초도항 내에 가두리를 설치하고 우럭 등 자연산 생선을 넣어 낚시로 잡고 즉석에서 시식해보는 체험이다. 말로만 듣던 어업인의 낚시체험을 직접 실연해보는 동안 바다를 사랑하는 초도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4

### 4 해양생물 생태체험

가지미에 먹물을 입혀 탁본을 만들어보자. 얇은 화선지 위로 물고기의 섬세한 비늘이 무늬를 만들어가는 광경이 신기하게 다가온다. 해양생물 생태체험은 그 외에도 소형통발체험, 해조류 채집 및 표본 만들기, 오징어먹물 글씨쓰기 등 다양하고 흥미롭다. 약 2시간 소요.

어탁 표본만들기 1인당 1000원

오징어먹물 글씨쓰기 1인당 1000원

해조류 표본만들기 1인당 3000원



5

### 5 금구도일주 및 스토리텔링

초도항 500m 전방에 있는 거북을 닮은 섬, 금구도를 둘러보는 체험이다. 성터 등을 관찰하면서 광개토태왕릉의 전설 및 금구도의 역사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듣는 체험은 일 년 내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초도항과 금구도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약 1시간 소요. 1인당 6000원.



### Tip 대진항

강원도 동북부 최북단 접경지역에 자리잡은 대진항은 1종 어항이며, 명태가 많이 잡히는 항구로 유명하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70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이다. 인근 바다에서는 넙치, 문어, 청어, 명태, 정어리, 성게류가 많이 잡히고, 가리비, 멧게, 전복 양식도 활발하다. 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도 많이 생산된다. 방파제 끝에 자리한 빨간색과 하얀색의 쌍둥이등대와 대진등대가 유명하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초도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잡자리



초도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촌은 화진포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어 신나는 어촌체험이 저녁까지 이어지는 느낌이다.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연돌레민박은 집 앞이 바로 바닷가라서 파도소리가 방까지 들어온다. 민박과 함께 핫감도 운영하고 있어 주인장이 매일 잡아오는 고기로 싱싱한 회부터 물회, 매운탕까지 푸짐한 밥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바다민박, 화진포민박, 화진포웰빙하우스 등이 깨끗하고 친절하다. 초도어촌계에서 적정가격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예약을 맡아주고 있다.



#### 먹을거리

바닷가 마을이니만큼 마을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싱싱하고 푸짐한 회를 먹을 수 있다. 청정 바다와 어우러진 호수, 대진등대에서 바라보는 동해안 풍경은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로 잃었던 입맛까지 돌아오게 한다. 막국수, 산채비빔밥, 돼지갈비 등의 주력메뉴와 함께 밑반찬이 깔끔하고 맛있는 화진면옥(033-682-0136), 수양횃집(033-682-0214) 그리고 초도항어촌계횃집(033-681-5854)에서 감칠맛 나는 성게비빔밥의 향긋한 맛에 빠져볼 수 있다. 성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종의 싱싱한 핫감도 풍부하다.



#### 특산물

**북쪽말뚱성게** : 녹색, 자주빛, 갈색 그리고 황백색을 띤다. 마치 밤송이에 예쁜 색칠을 해놓은 듯 동해안의 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북쪽말뚱성게는 바닷속 신비로움이며, 동시에 강원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성게가 어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식도라기들이 즐기는 고급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 성게의 생식기는 아주 맛있는 고영양가의 식품이며, 성게알은 '윤단'이라 해서 구하기 힘든 최고급식품이다. 특히 결핵에 특효약으로 통하는데, 동해안의 북쪽말뚱성게를 따라올 성게가 없다고 한다.



# 여기저기 고성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초도마을 → 통일전망대 → 대진항 → 다시 초도마을에서 점심(횃집, 성게요리) → 화진포해양박물관 → 화진포해수욕장 → 김일성별장 → 이기봉별장 → 거진항 → 거진해맞이봉 → 금강산자연사박물관

**화진포해양박물관** 동해안 최초, 최대 규모의 해양박물관. 기존의 패류박물관 옆에 배 모양의 푸른 건물이 세워지면서 각종 어류와 패류, 그리고 해저터널 수족관을 꾸며놓았다.

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1

문의 033-682-7300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화진포기념관과 별장, 이기봉 부통령 별장, 화진포의 성(김일성별장), 이 세 곳을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티켓 한 장으로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위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

문의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033-680-3363

**금강산자연사박물관** 우주와 지구를 형상화한 국내 초유의 박물관인 금강산자연사박물관에는 500여 점의 운석이 전시되어 있다. 46억 년 전, 지구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고생대 화석과 신생대 화석 500여 점이 전시되고 중생대 화석 300여 점도 전시되어 있다.

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227-11

문의 033-682-9394



**거진항** 명태의 황금어장 거진항은 고성에서 가장 크고 구경할 것 많은 항구다. 명태잡이, 오징어잡이 배들이 빼곡하고 우럭, 해삼이 많이 잡히는 곳이다. 장비 없이도 즉석에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

위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문의 고성군 해양수산과 033-680-3411~4

신나는 오징어맨손잡기 축제와 함께  
아버이 손대도 맛볼까!

“아아~ 장사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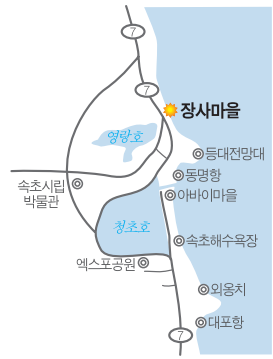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속초 장사마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의 경계지점 오른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이지요. 속초시 장사항 횃집타운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오징어맨손잡기축제를 하고 있어서 오징어마을로 불리기도 합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는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입니다. 맨손으로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바로 먹는 그 맛이 정말 끝내주지요. 오징어회는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생선회를 못 먹는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오징어해부, 오징어먹물로 글씨쓰기, 오징어스토리

텔링, 오징어썰기, 오징어 요리강습 및 요리 만들기 등 무려 17가지가 넘는 오징어 테마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오징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예약하는 것은 잊지마세요. 오징어체험뿐만이 아닙니다. 장사마을에는 갯바위와 방파제에서 채집한 해조류로 예쁜 표본만들기, 재래식 계잡이체험, 소형통발에 의한 해양생물 채집 및 관찰 체험 등으로 구성



오징어마을이라는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장사마을에서의 오징어테마체험은 신나고 재미있고 맛있다.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상시체험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해양생물 채집이나 경매체험, 화랑도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한가득이다.



## >> 교통안내

🚗 동해고속도로 → 현남C → 7번 국도 양양 방향 → 대포항 → 속초시내 → 고성 방면 → 장사어촌체험마을

🚌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 가는 버스가 6:30에서 23:30까지 30~40분 간격으로 30회 운행. 2시간 40분 소요. 동서울터미널에서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 가는 버스가 6:25에서 23:00까지 운행. 2시간 30분 소요.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7, 7-1, 9, 9-1번 버스를 타고 장사항 하차(20분 소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7-1, 9-1번 버스를 타고 장사항 하차(5분 소요). 문의 속초고속버스터미널 033-631-3181, 강원여행객시내버스 033-633-2280, 2277

된 해양생물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지난 2008년 준공한 자연산 활어직판장에서는 갯 잡아 올린 자연산 회를 맛볼 수 있고, 활어위판장에서는 경매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형제암이라 불리는 두 개의 바위섬이 정겨운 풍광을 만드는 장사항 앞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낚시도 멋진 체험이지요. 게다가 장사마을은 인근 영랑호 소재의 화랑도 체험장과 연계해 기초 승마체험과 활쏘기체험도 할 수 있도록 테마체험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오징어묵물로 쓴 글씨는 2년 후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푸른 하늘 멀리 날려 보내고 싶은 일들일랑 오징어묵물로 써서 지워버리세요. 하지만 푸른 바다 장사항에서의 맛있는 오징어체험은 울여름도 계속 이어집니다. 쭈욱~.

## Mini Interview

### 이광근 어촌계장

오징어마을 장사항에 오시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순수한 어업인들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순수



잡은 수산물을 체험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활어직판장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지요. 실버어촌계를 통한 노년층의 도우미활동도 활발해서 어촌체험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촌공동체 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것도 우리 장사항의 자랑거리입니다. 바다에서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으며 신나는 추억도 만들고, 맛있는 오징어 회도 맛볼 수 있는 장사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장사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배낚시 체험, 오징어테마체험, 해양생물체험, 자연산활어 경매체험

**여름** 배낚시 체험, 오징어테마체험, 해양생물체험, 자연산활어 경매체험

**가을** 배낚시 체험, 오징어테마체험(오징어 맨손잡기 제외), 자연산활어 경매체험

**겨울** 배낚시 체험, 오징어테마체험, 해양생물체험, 자연산활어 경매체험

### 이용 요금

배낚시체험은 기본 5인까지 12만 원, 오징어 맨손잡기 1만 원(학생 8000원), 그 외의 오징어테마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갯바위 계잡이 체험 3000원, 소형통발 해양생물 채집체험 3000원, 경매체험은 중매인과 협의 후 결정.

### 문의

위치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548-5

전화 장사어촌계 033-632-9796 /

010-9698-7649

홈페이지 <http://jangsa.seantour.org>



### 1 배낚시체험

장사항 형제바위 인근은 동해안 최대의 바다낚시어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3톤에서 9톤급의 낚시어선에 승선해서 참가자미 낚시를 즐기고 즉석에서 싱싱한 회를 시식하는 즐거움이 특별하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 장사항의 수려한 해양경관을 구경하는 것은 보너스로 얻는 기쁨이다. 약 3시간 소요, 기본 5인 12만 원.



### 2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장사항 간이해수욕장에 싱싱한 오징어를 풀어놓고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이다. 파도가 없고 수심이 낮은 어린이용 해수욕장에서 마음 놓고 오징어를 잡아 보면 어른도 아이도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없이 즐거운 오징어잡기 삼매경에 빠진다. 직접 잡은 오징어는 어촌계원들이 즉석에서 회로 썰어주어 시식까지 할 수 있어 뿌듯하다. 약 1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학생 8000원.





### 3 오징어테마체험

오징어 맨손잡기 외에도 오징어의 형태를 잘 관찰한 후, 오징어 내부기관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오징어 해부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오징어의 먹물주머니에서 오징어먹물을 짜내어 글씨를 써보는 오징어 목계체험은 글씨가 2~3년 후면 사라진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싱싱한 오징어로 통통한 오징어순대를 만들어보는 요리실습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다. 약 2시간 소요. 오징어 해부체험 3000원 / 오징어 목계체험 1000원 / 오징어 요리체험 1만5000~2만5000원.



### 4 갯바위 게잡이 체험

페그풀이나 낚시줄로 만든 어구를 갯바위 틈에 넣어 옛 방식으로 게를 잡아보는 체험이다. 어구로 처음 잡아보는 게를 들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게잡이와 더불어 바위에 붙어 자라는 해조류를 채취하고 그 설명을 듣다 보면 하루가 짧게만 느껴진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3000원.



### 5 소형통발 해양생물 채집체험

주머니처럼 생긴 소형통발을 방파제나 연안어장에 넣고 통발에 들어온 해양생물을 채집하고 분류해보는 체험은 어른들에게도 인기 있는 체험이다. 통발 안에 게들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넣어서 푸른 바다에 담가놓기만 하면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가득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어른 주먹만 한 무늬게발이 통발 안에서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이어진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3000원.



## 알아두면 도움되는 장사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고성군 경계를 넘어가면 숙박시설이 더 많지만, 장사향 주변에도 민박과 모텔이 있다. 어촌마을의 푸근한 인심과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어촌계민박(033-632-9796), 강진호민박(011-366-6464), 팔팔민박(033-638-8825) 외에 10여 군데의 편안한 민박집이 있고, 깔끔하고 전망 좋은 펜션형의 헬리오스모텔(033-632-7676)과 에이스모텔(033-636-3626)이 있다. 장사어촌계에서는 쾌적한 분위기의 민박펜션을 여름시즌까지 더 준비할 계획이다.



#### 먹을거리

먹을거리 체험객들은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에서 직접 잡은 오징어로 회를 먹거나 오징어회담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오징어순대체험을 통해 쫄깃한 오징어순대로 점심을 대신할 수도 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활어직판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활어를 구입, 2층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활어직판장 2층의 우소통식당(033-635-0915)은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와 시원하고 매콤한 회국수가 일품이다.



#### 특산물

**가리비** : 비교적 낮은 수온에서 서식하는 한해성 이매패로서, 수심 20~40m의 모래나 자갈이 많은 곳에 주로 서식하며, 성장하면서 수심이 얇은 난류해역에서 먼 바다의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4~5개월 정도 자란 것이 가장 맛이 좋으며, 이 시기의 가리비는 회로도 먹을 수도 있다. 건조, 냉동, 훈제하거나 삶은 후 가공품으로도 유통되며, 구이, 찜, 탕, 죽 등으로 조리한다. 특히 큰 가리비의 조개관자는 옛날부터 고급요리의 재료로 이용되어왔다. 장사향 현지에서 싱싱한 가리비를 택배로 주문할 수 있다.





# 여기저기 고성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장사마을 → 영랑호 → 영랑동 등대전망대 → 동명항에서 점심(횃집) → 속초시립박물관과 발해역사관 → 실향민문화촌 → 엑스포공원 → 아바이마을 → 대포항

**엑스포공원**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엑스포타워는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망타워이다. 총 73.4m 높이로 15층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설악산 울산바위와 대청봉까지도 볼 수 있다. 검푸른 동해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 75  
문의 033-637-4504~5



**아바이마을** 분단 이후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마을로 지금도 주민의 반이 함경도 출신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다. 함경도냉면에 가지미삭해, 오징어순대 등 함경도 전통음식골목이 여행의 모미를 더해준다.

위치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1076  
문의 017-384-5008

**대포항** 대포항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어항의 성격이 짙은 항구이다. 항구로 들어서는 진입로 양쪽에는 500여 미터에 걸쳐 건어물가게와 횃집이 늘어서 있고 어판장 쪽에는 활어남전이 형성되어 동해안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활어를 맛볼 수 있다.

위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문의 속초시청 033-633-3171



**발해역사관** 발해의 역사 229년을 돌아볼 수 있는 발해역사관에는 발해역사와 영역, 발해유물이 전시된 자료실과 드라마 영상실이 있다. 발해역사관 입장권 한 장으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위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06-62  
문의 속초시립박물관 033-639-2977

창경말이배 타고  
마음에는 남애항 일출 담고

“아아~ 남애마을입니다!”



남애마을은 매화가 결실을 맺은 후 떨어지는 모양이라 해서 '낙매(落梅)'라고 불리다가 후에 남쪽바다라는 뜻으로 '남애'라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4개 마을로 분할되었고 어촌체험마을은 남애2리에 있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매바위 전설은 참 재미있습니다. 매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매바위인데, 옛날 매바위 앞에 살던 인색한 부자가 시주를 거절하자 괴씸하게 여긴 시주승이 그 부잣집을 감싸듯 펼치고 있는 매바위의 날개를 떼어버렸답니다. 그 부자는 얼마 뒤 폭삭 망했다지요.

남애마을은 여차여차하면 '아~!' 하고 맞장구를 칠 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고래사냥>

<그 여자>, <호텔리어> 등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벌써 '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출렁이는 파도와 방파제, 방파제 위로 마주 선 등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 바다에 걸쳐 그림을 만드는 해송들과 바위섬, 이 모든 것이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남애항을 꼽는 이유입니다. 일출 역시 장관이지요.


아름다운 풍광에 잠겨 있지만 해도 좋을 남애마을에서의 체험프로그램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 하면 '아~' 하고 떠올릴 만한 남애항은 해송과 갯바위,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도 어촌체험마을 중에 단연 으뜸이라 할 만큼 다양하다. 후회 없는 여행을 원한다면 남애마을로 고고!



### >> 교통안내

 동해고속도로 현남IC → 지경사거리 좌회전 → 남애어촌체험마을  
 영동고속도로 북강릉IC → 주문진 순환로 → 향호삼거리 직진 → 남애삼거리 우회전 → 남애어촌체험마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주문진행 버스를 타면 약 3시간 소요. 첫차는 6시 30분. 주문진 버스터미널에서 남애리행 시내버스를 타면 남애마을까지 20분 정도 소요된다.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막차는 20:00

문의 주문진고속버스터미널 033-662-2559

은 어부들의 삶과 어촌의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낚시체험에서부터 창경밭이 전통어업 체험, 지인망 및 어획물시식 체험, 갯바위 제갈기 체험, 해조류 채집 및 표본 만들기 체험, 문어 통발어업 체험, 가자미 연승어업 및 요리 체험,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체험 등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업 형태를 알아가면서 학습과 재미, 추억 만들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하조대, 휴휴암, 낙산사 등 볼거리도 많지요. 다양한 어촌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동해여행까지 겸할 수 있다면, 어때요? 산뜻한 마음으로 가볍게 남애마을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 Mini Interview

### 유종태 어촌계장

우리 남애마을은 두 개의 섬이 방파제로 연결되어 바다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마주하는 하얗고 빨간 등대는 우리 마을의 명물이 되었지요.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은 일출과 함께 더욱 빛납니다. 물 많은 남애항에서 어촌의 일상과 맛을 체험해보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남애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배낚시체험, 창경밭이 전통어업 체험, 갯바위 게잡기 체험, 문어 통발어업 및 요리 체험, 가지미 연승어업 및 요리 체험, 홍합 목걸이공예 체험
- 여름** 배낚시체험, 창경밭이 전통어업 체험, 갯바위 게잡기 체험, 문어 통발어업 및 요리 체험, 가지미 연승어업 및 요리 체험,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지인망 및 어획물시식 체험, 홍합 목걸이공예 체험
- 가을** 배낚시체험, 창경밭이 전통어업 체험, 갯바위 게잡기 체험, 문어 통발어업 및 요리 체험, 가지미 연승어업 및 요리 체험, 홍합 목걸이공예 체험
- 겨울** 배낚시체험, 문어 통발어업 및 요리 체험, 가지미 연승어업 및 요리 체험, 홍합 목걸이공예 체험

### 이용 요금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은 각각의 이용금액이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움직이는 체험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배를 한 번 타고 나갈 때 드는 비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 문의

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

전화 033-672-3624

홈페이지 <http://namae.seantour.org>

### 1 배낚시체험

남애마을 근해에는 잡어가 많아 바다낚시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흔들리는 선상에서 바닷바람을 마주하며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하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잡은 물고기는 배 위에서 회를 떠 바로 시식할 수 있다. 승선을 위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낚싯밥, 면장갑(겨울), 멀미약, 초고추장. 약 3시간 소요. 1인당 3만 원 / 미취학 아동 1만5000원(준비물 포함 3명 기준 10만 원).

### 2 갯바위 게잡기 체험

대나무 끝에 정어리를 매달고 그물로 돌돌 말아 바위 틈에 끼워 넣으면, 냄새를 맡은 뱀게들이 그물에 걸린다. 낚시를 하듯 갯바위에 앉아 뱀게의 입질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부터 전해오는 뱀게 잡는 방법이다. 약 1시간 소요. 1인당 3000원.



1



2



### 3 창경밭이 전통어업 체험

창경밭이는 목선을 타고 바닷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경을 사용해 어류와 해조류를 채취했던 전통어업방식이다. 그런데 요즘은 창경밭이를 위한 배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바다 밑을 맑게 보여주는 창경밭이는 아이들에게 신비로운 해양생태체험을 선물한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7000원 / 어린이 5000원.



### 4 가자미 연승어업 체험

가자미 연승어선에 승선해서 줄줄이 올라오는 가자미를 잡는 체험. 선상에서 먹는 가자미회도 별미. 해맞이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자. 약 3시간 소요, 어른 3만 원.

### 5 경매체험

남해항 어판장은 양양에서 가장 크고 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새벽 6시 20분 시작.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물고기들의 이름을 맞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중매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생선을 직접 구매해 시식할 수 있다. 약 1시간 소요, 체험비 무료.



### 6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지인망 그물을 당긴 후 지인망에 걸려든 물고기를 가둔 채 맨손으로 잡는 체험이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물고기를 쫓다가 팔뚝이는 놈을 하나 손안에 움켜쥐면 짜릿하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알아두면 도움되는 남해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강원도 3대 미항답게 인근에는 숙박업소가 많다. 대부분이 펜션형민박, 찬이네민박(033-671-7612)과 영일민박(033-671-7097)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찬이네민박은 갯마을해수욕장 앞에 위치, 밤이면 파도소리를 자랑가 삼아 잠들 수 있다. 주인장의 인심이 좋아서 편안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영일민박은 일반 가정집처럼 아늑하

고 시설이 깨끗하다.

#### 먹을거리

이 지역은 오징어, 도다리, 쥐치(세꼬시), 감성돔, 도루묵 등이 유명하다. 남해2리 어촌 계획센터에 위치한 경기도횃집(033-671-8506)은 오징어통삼이와 도루묵찌개를 주메뉴로 한다. 남해해수욕장이 바라보이는 남해수산(033-671-9779)에서는 싱싱한 물회를 맛볼 수 있다.



#### 특산물

**문어와 가자미 & 도루묵** : 남해마을에서는 문어, 가자미, 도루묵 자량이 넘쳐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도 만날 수 있는 문어와 가자미는 사시사철 잡아 올릴 만큼 어획량이 풍부하다. 선상에서 맛보는 가자미회도 별미. 도루묵은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만날 수 있으며 특히 산란기에 맛이 좋다.



추천 여행코스 : 남해마을 → 남해항 → 남해해수욕장과 포매호 → 휴휴암 → 죽도암 → 하조대 →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점심(ହି집) → 동호해수욕장 → 일현미술관 → 곤충생태관 → 낙산사

**남해해수욕장 & 포매호** 수심이 얇고 경사가 완만할 뿐 아니라 백사장 길이가 약 500m인 아담하고 예쁜 해수욕장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해수욕장 뒤편, 마을 안쪽에는 철새도래지로 알려진 포매호가 있다.

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문의 현남면사무소 033-670-2650 / 마을이장 010-7175-4195



**휴휴암** 쉬어 가고 또 쉬어 가라는 절, 휴휴암(休休庵)은 바닷가에 있는 해안사찰이다. 해안사찰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관세음보살이 이곳 휴휴암에는 경내가 아닌 해안가 절벽에 편안히 누워 있다.

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

문의 033-671-0093

**일현미술관** 동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교육 휴양시설인 을지인력 개발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3만3057㎡에 이르는 넓은 야외조각공원과 'Sky Is the Limit'이라는 전망대가 유명하다.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91-8

문의 033-670-8450



**낙산사**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국내 3대 관음성지로 유명하다. 1300여 년 전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 온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진신사리가 출현한 공중사리탑,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 보물로 지정된 건칠관음보살좌상 등 많은 문화재를 갖추고 있다. 입장료 무료.

위치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문의 총무소 033-672-2447

낮엔 자하 잡고 달밤엔 해루질하고,  
하루가 짧네~

“아아~ 월하성마을입니다!”



월하성(月下城), 달빛 아래 놓여 있는 성. 전설에 따르면 우리 마을은 먼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음풍농월을 즐겼다고 합니다.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마을, 어떤 마을일까 궁금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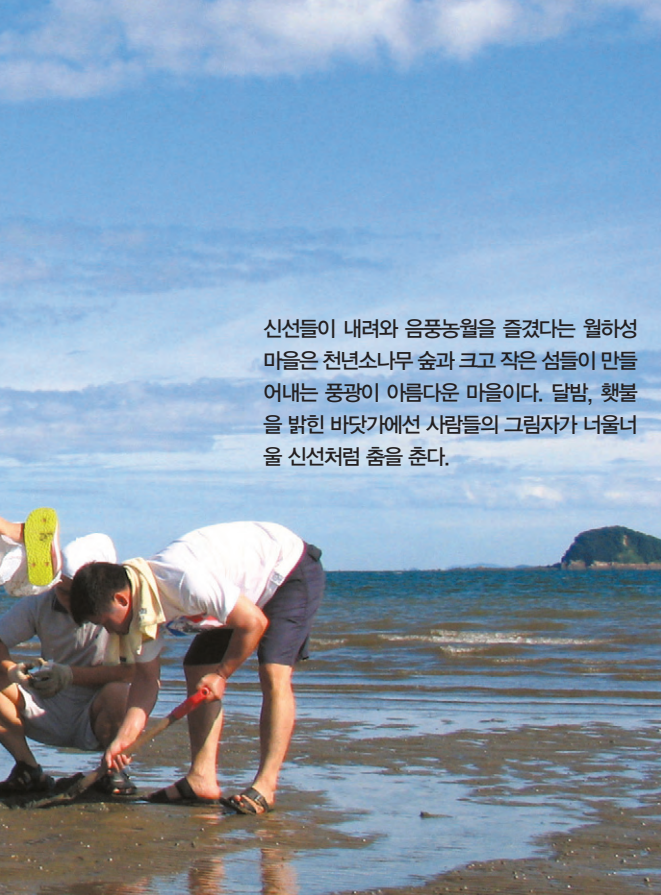
월하성마을로 가려면 천년소나무 숲이 만들어낸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서해바다가 넘실거리고, 그 바다 위에는 물에 허반신이 잠긴 듯, 떡섬과 쌍도와 할미섬이 떠 있습니다. 월하성 뒤편으로는 높이 78m의 옥녀봉이 있지요. 밀물 때가 되어 마을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풍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려 1km가 넘는 갯벌은 모래와 개흙이 적당히 섞인 혼성갯

벌이라서 바지락, 맛조개, 동죽, 꼬막, 백합, 민꽃게 등 갯벌생물이 다양합니다. 학생들의 체험교육장으로 제격이지요.

갯벌에서 단연 인기 있는 체험은 맛조개잡기. 맛소금을 솔솔 뿌려놓은 구멍에서 쑥, 올라오는 맛조개를 낚아채듯 잡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지난해 여름 선보인 이색 체험프로그램, ‘월하성 달밤 햇불잔치’는 정말 반응이 대단했지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루질은 밤에 바닷가에 햇







신선들이 내려와 음풍농월을 즐겼다는 월하성 마을은 천년소나무 숲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들어내는 풍광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달밤, 햇빛을 밝힌 바닷가에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너울너울 신선처럼 춤을 춘다.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 → 삼거리에서 우회전 → 춘장대 흥원항 방향 → 2km 가면 우측에 서면사무소, 좌측에 농협 → 500m 전방 여촌체험마을 입간판 화살표 방향 →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천행 버스 첫차 06:40(40분~1시간 간격) 약 3시간 소요. 서천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 당정, 다사리 방면을 타면 월하성에 하차할 수 있다. 08:20, 13:40, 16:10, 18:40 버스가 있다. 서천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카테고리에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서천버스터미널 041-953-0776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28

불을 밝혀 게나 고동, 낙지, 해삼 등 바다생물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송진기름을 잔뜩 묻힌 '왜' 대신 손전등을 이용하지요. 불빛을 따라 모여든 낙지를 잡는 것은 묘한 운치가 있습니다.

마을 인근에는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은 푸른 해송과 아카시아 숲이 무성한 해변으로 가족, 연인의 나들이 코스로 제격입니다. 또 인접 포구에서 계절마다 열리는 해산물축제, 동백꽃으로 유명한 동백정,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산모시마을 등이 있지요. 여러분도 신선처럼 월하성마을에서 멋진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 Mini Interview

### 최용수 어촌계장

월하성마을은 작은 포구마을입니다.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곳이지요. 마을주민들



은 충청도 특유의 순박함이 가득하답니다. 포구에 떠 있는 작은 배들,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해 질 무렵이면 바다를 온통 물들이는 노을은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월하성마을 주변에서 연출됩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해주는 월하성마을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월하성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도예체험, 돌게잡이체험, 조개잡이체험, 돌게잡이체험, 송어잡이체험

**여름** 갯벌도예체험, 돌게잡이체험, 조개잡이체험, 송어잡이체험

**가을** 자하잡이체험, 갯벌도예체험, 돌게잡이체험, 조개잡이체험, 송어잡이체험

**겨울** 갯벌도예체험(전화 문의 바람)

## 이용 요금

갯벌체험 비용은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

## 문의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585-12

전화 041-952-7060

홈페이지 <http://walhasung.seantour.org>



### 1 갯벌도예체험

갯벌과 고령토를 혼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이다. 갯벌을 소재로 활용한 점이 흥미롭다. 사장님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색소폰 연주도 서비스한다. 또한 도예체험장, 전통장작가마, 전시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모두에게 인기만점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 민박을 겸하고 있어 단체에 한해 예약도 가능하다. 약 1~3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2 돌게잡이체험

낙시줄에 고등어를 넣은 미끼주머니를 만들어서 매달고 바위틈새로 넣으면 돌게가 고등어를 먹기 위해 미끼주머니로 모여든다. 이때 낙시줄을 올려서 돌게를 잡으면 된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3000원.





### 3 조개잡이체험(갯벌채취)

맛조개를 잡는 기본 도구는 삽과 소금. 어촌계에서 체험 장비를 대여해준다. 먼저 삽으로 개흙을 살짝 걷어내고 구멍에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려놓으면 소금의 짠 기운을 견디지 못한 맛이 '썩' 튀어 오른다. 하지만 맛을 억지로 잡아 빼는 것은 금물. 끊어지기 때문이다. 반 이상 올라왔을 때 재빨리 낚아채야 한다. 잡는 방법도 간단해서 아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5000원 / 어린이 3000원 / 장비대여비 1000원.



### 4 자하잡이체험

월하성의 특산물이기도 한 자하는 어린 새우를 말한다. 자하낚시는 민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족대를 이용하는데 족대를 잡고 있는 사람과 몰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가족이 함께 할 때 더욱 재미있다. 아빠가 족대를 잡고, 아이들과 엄마는 자하를 족대 쪽으로 몰아줘보자. 자하를 쫓다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날지도. 체험 시에는 족대를 대여해준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5 송어잡이체험

기존의 송어잡이체험은 방문객들이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방식이었다면 월하성마을에서는 송어잡이체험은 투망을 이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신나는 체험이다. 송어를 찾아 갯벌을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문다. 힘든 만큼 재미도 두 배, 체험 후 맛보는 음식 맛도 두 배가 될 수 있을 듯. 투망 대여, 약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알아두면 도움되는 월하성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체험센터 내에는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마을에 펜션형민박이 여럿 있다. 그중 바다에황토펜션(041-952-3618)은 황토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색 있다. 덩장민박(041-952-3566)은 1983㎡ 규모에 수족관과 식당 등이 갖춰진 마을의 대표적인 민박집이다. 노부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며 민박 바로 앞쪽에는 갯벌이 있어 체험 후 이동이 용이하다.

#### 먹을거리

이곳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먹을거리는 맛조개와 바지락, 꼬막, 밀조개 등, 등백수산(041-952-1781)은 월하성에서 아주 오래된 식당으로 조개구이와 해물갈국수가



주메뉴이다. 당일 잡은 물고기로 신선한 횡감과 음식을 낸다. 이외에 자연산 활어 회를 주로 하는 월하성회해물탕(041-951-4745)과 바다소리(041-952-3473)가 있다.

#### 특산물

**어리굴젓** : 바다의 우유라 일컬어지는 굴로 어리굴젓을 담가먹어보면 다른 반찬이 필요없다. 서천의 특산물인 굴로 만든 어리굴젓의 명성은 자자하다. 신선한 굴을



소금에 절여 일주일 이상 숙성시킨 후 다시 고춧가루로 버무리려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먹을 때 고추, 참기름 등의 양념을 해서 먹으면 더욱 맛있다.

#### Tip 한산모시

서천지방의 모시는 백제시대 한노인의 현몽으로 건지산 기슭에서 모시풀을 발견한 이래 1000여 년 동안 나라의 진상품으로 이어져 온 지방의 명물이다. 한산모시는 백옥같이 희고 우아하며 잠자리날개처럼 섬세하고 기늘어 여름철 옷감으로는 으뜸으로 치며 고려시대에는 명나라 공물로,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 그 명성을 떨쳤다.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한산모시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한산모시홍보관 041-951-4100





# 여기저기 서천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월하성마을 → 한산모시홍보관과 한산소곡주 → 신성리갈대밭 → 춘장대해수욕장 → 흥원항 → 흥원항에서 점심 (횃집) → 마량리동백나무숲 → 마량해돋이마을 → 마량휴양어촌 → 서천해양박물관

**춘장대해수욕장** 해송숲으로 둘러싸인 춘장대해수욕장은 1.5°의 완만한 경사와 맑고 잔잔한 수면이 특징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해수욕장 내 갯벌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올해 국토부에서 선정한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꼽혔다.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400

문의 041-951-9110 / 041-952-2695



**서천해양박물관** 세계적인 희귀어종과 현존어종 등 15만여 점에 달하는 바다생물들을 전시한 서해안 최대의 해양박물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바닷물고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이 있다.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90-3

문의 041-952-0020

**마량리동백나무숲** 마량은 예로부터 서남해를 잇는 뱃길의 시발점이며 서해로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 만호성(萬戶城)이 있었던 포구이다. 서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천연방파제 끝에 동백나무숲이 있다. 이곳에 흥원항이 있다.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1

문의 041-952-7999



**신성리갈대밭** 금강 하구변에 드넓게 펼쳐진 신성리갈대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는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대 7선에 속한다.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문의 서천군청 생태관광과 041-950-4019

# 일출이 아름다운 서해의 다도해, 최고의 낚시체험!



“아아~ 영목마을입니다!”



영목마을은 안면도에서 77번 국도를 타고 가면 길이 끝나는 지점, 안면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명 안면도 땅끝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법석거리는 도심을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제대로 오신 거지요. 게다가 앞바다에는 작은 다도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십 개의 작은 섬과 바위들이 흩뿌려져 있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섬들에 관련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전해옵니다. 동짓날 할머니가 바다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팔죽술을 안고 그대로 섬이 되었다는 팔죽섬 이야기와 시루(시루섬)에 떡을 해놓고 추석추석(추섬) 까불다가 빼앗겨버렸다(빼섬)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들곤 했지요.

영목항의 제방도로에 주차를 하고 바다를 보면 향과 마주한 작은 섬, 소도와 유람선이 눈에 띕니다. 소도에 들어서 있는 펜션단지에는 섬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지요. 영목항 주변 60여 개의 섬을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면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유람선체험에서는 낚시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배를 타고 하는 낚시체험이 낫떨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해안 모양이 활처럼 휜 테다 항




안면도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가장 먼저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해돋이와 해넘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해의 영목마을은 잔잔한 해수면으로 낚시체험의 천국이 되고 있다. 마을 앞바다에 흩뿌려놓은 60여 개의 섬은 서해의 작은 다도해를 경험하게 한다.


주변 수십 개의 섬들이 천연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보다 수면이 잔잔하답니다. 옆의 천수만은 호수 같은 느낌을 더해줍니다. 더불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뗏목을 타고 하는 낚시체험도 즐겨보세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답니다.

영목마을은 왜목마을과 함께 서해에서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요. 혹자는 '온몸에 전율이 온다'고 표현하더군요. 체험을 마치고, 고남패총박물관이나 안면도자연휴양림, 물 위에 떠 있는 부잔교로 유명한 안면암 등 마을 주변의 관광지를 다녀가시면 더욱 알찬 체험여행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 서산 AB지구 방조제 → 원정삼거리 77번 국도 직진 → 안면도 → 고남면 → 영목어촌체험마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안면도행 버스를 타고 안면도 마지막 종점인 영목버스터미널에 내린다. 하루 12회 운행(2시간 30분 소요). 다른 지역에서 올 때는 태안행 버스를 타고 오다가 태안에서 안면도행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문의 태안시외버스터미널 041-674-2009

## Mini Interview

### 편승환 어촌계장

영목어촌체험마을에선 해마다 5월부터 6월 중에 <영목항 fun fun 바다축제>와 같은 갯마을체험수산물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넓은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아름다운 풍광과 체험을 즐기세요. 정초에는 햇맞이 체험도 있지요. 영목마을은 웰빙체험을 개발하여 청정 어촌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추억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영목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낚시체험, 유람선체험, 갯벌체험
- 여름 낚시체험, 유람선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 가을 낚시체험, 유람선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 겨울 낚시체험, 유람선체험, 갯벌체험

## 이용 요금

체험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이 각각 책정되어 있다.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 할인되므로 참고하자. 낚시와 독살 체험은 어른 2만 원, 어린이 1만 원 기준이며 당일 예약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독살체험은 취소될 수도 있다.

## 문의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34-66

전화 041-672-7334

홈페이지 <http://yeongmok.seantour.org>



### 1 낚시체험

영목마을에서 할 수 있는 낚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뗏목을 타고 하는 낚시, 유람선을 타고 하는 낚시, 갯바위낚시. 잡히는 어종도 우럭, 볼락, 노래미, 광어, 주꾸미, 갑오징어, 해삼 등 다양하다. 주변이 운동 낚시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다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에게 이미 소문난 낚시터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은 절대 없단다. 갯바위낚시는 주꾸미나 갑오징어가 잡히는 철에 가능하다. 낚시대는 현장에서 대여 가능하나, 미끼나 추, 바늘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약 3시간 소요. 좌대낚시 어른 2만 원 / 어린이 1만 원.

### 2 유람선체험

영목항 주변 선도, 추도, 육도, 효자도, 원산도, 뚝섬 등 60여 섬을 모두 둘러보는 유람선 코스. 작은 다도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유람선 2대가 번갈아 운행하며 소요시간 1시간, 1시간 20분, 1시간 40분짜리 코스가 있고 코스별로 요금이 다르다. 운항 시간



1



2





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환상적인 해돋이와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상시 운행한다. 원한다면 유람선 위에서 낚시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약 3시간 소요. 어른 1만3000원 / 어린이 8000원(1시간 코스 기준. 단체의 경우는 3000원씩 할인).

### 3 독살체험

안면도를 달리다 보면 해안 곳곳에서 V자 형태로 쌓여 있는 돌무더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전통어업 방식인 독살어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과 함께 나가지 못하게 돌을 쌓아 가두어 두고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장화나 운동화, 장갑과 갈아입을 여벌 옷을 준비하자. 물때에 따라 2시간 가능. 약 2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 어린이 1만 원.



### 4 갯벌체험(조개잡이)

살아 있는 갯벌은 신기한 보물창고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꼬물꼬물한 생명들이 제 삶을 찾아 움직이는 게 눈에 포착된다. 이런 갯벌에서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는 바지락을 캐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다. 바지락 외에도 고동류, 방게, 범게 등 갯벌생물도 만날 수 있다. 물때에 맞춰 2시간가량 체험 가능. 호미와 바지락통, 면장갑은 무료로 대여한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어린이 5000원.



#### Tip 영목항

영목항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수산시장이 있다. 유람선 선착장과 체험마을사무실 뒤쪽 바닷가에 모두 10개 정도 되는 수산물판매점이 한데 모여 있다. 이곳에서 횡감을 사면 되는데 회를 떠주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양념을 파는 음식점이 주변에 여럿 있다. 마을 어부들이 직접 잡은 자연산 물고기가 많아서인지 싱싱하다. 조개를 사다가 펜션에서 조개구이를 해 먹을 수도 있는데 횡감이나 조개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천수만의 바닷물이 머무는 자리,  
안면도의 새로운 명소

“아아~ 대야도마을입니다!”



대야도는 태안반도 꼬트머리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아담하고 소박한 마을입니다. 중장리에서 영목항 방향으로 오다가, 누동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자동차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느 섬마을일까 싶지만 어엿한 육지마을입니다. 바로 인근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것을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겠지요. 간척사업을 하기 전까지 천수만은 서해와 남해, 일본 근해에 사는 물고기들의 최고 산란장이었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먹이가 풍부해서 물고기들이 산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지요. 또한 서해안 최초로 김양식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야도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했지요. 60년대에도 작은 마을에 대학생이 여러 명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간척 사업으로 대야도마을이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야도마을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수만을 품고 있고, 낮은 구릉성 산지와 자갈과 갯벌이 적절히 섞인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경관이 좋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전망 좋은 곳에는 펜션

서해안 최고 여행지로 각광받는 안면도의 작은  
어촌마을, 대야도는 안면읍에서 영목항으로 가  
는 길목에 있다. 태풍이 불어도 큰 너울이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 향기 그  
윽한 솔밭길 속에 낭만이 흐르는 곳이다.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 서산 AB지구  
방조제 → 원청삼거리 → 고남 · 안면 방향 → 연  
륙교 → 안면읍 → 중장리 → 누동삼거리 → 대  
야도어촌체험마을(중장5리)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안면도행 고속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11회 운행, 3시간 소  
요. 혹은 남부터미널에서 30~4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태안행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태안에서 안면도행 버스  
로 갈아탄 후 안면도터미널에서 대야도방면 버  
스(하루 3회 운행, 30분 소요) 타고 대야도 정  
류장에서 하차.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태안행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다. 하루 10회 운행, 2시간 30분 소요.  
문의 태안터미널 041-674-2009 / 안면정류  
소 041-673-8666

들이 들어서고, 낚시꾼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유명세를 떨치  
고 있지요. 갯바위낚시와 선상낚시, 가두리낚시는 인기만점  
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인 토끼섬까지 길이  
납니다. 토끼섬까지 이어진 갯벌에는 바지락, 고동, 굴이 많  
이 나지요.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무인도에서는 다른 사  
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 친구들과 오붓하게 한적한 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무인도  
체험이 좋겠습니다. 썰물 때는 돌담 양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내는 독살체험도 할 수 있지요. 우럭, 게, 갑오  
징어, 봉장어 등 철에 따라 다양한 어종을 만나보세요.

### Mini Interview 김기욱 추진위원장

대야도는 세계절  
체험거리가 많습  
니다. 역사가 아  
주 오래된 마을이  
고, 경치도 아름  
답지요. 조용하고  
잔잔한 천수만에  
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아침에 일출도  
볼 수 있거든요. 안면도에 오면 모두들 서  
해안만 생각하는데 천수만에 인접해 있는  
대야도는 안면도의 새로운 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대야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선상낙시체험, 가두리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무인도체험

**여름** 선상낙시체험, 가두리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무인도체험

**가을** 선상낙시체험, 가두리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갯벌체험, 독살체험, 무인도체험

**겨울** 선상낙시체험, 가두리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무인도체험

## 이용 요금

각각의 체험별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는 배 이용요금과 함께 체험비용이 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체험마을에 문의 후 결정하자. 갯벌 체험 어른 1만 원, 어린이 6000원.

## 문의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433  
전화 041-673-9673  
홈페이지 <http://daeyado.seantour.org>



### 1 갯벌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갯벌체험. 천수만 갯벌에서 바지락, 소라, 고동 등을 잡을 수 있으며, 굴도 딸 수 있다. 갯벌에 들어갈 때 장화와 호미, 채취한 바지락과 고동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양동이를 제공한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어린이 6000원.

### 2 선상낙시체험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천수만에서 즐기는 선상낙시. 선주가 함께 낚시를 돕는다. 예약을 해야 물때를 맞춰 출항할 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예약하지 않으면 배를 못 탈 수도 있다. 약 7시간 소요. 성수기 1인당 6만 원.



1



2



3

### 3 가두리낚시체험

바다 위에 떠 있는 가두리양식장 주변에서 하는 가두리 낚시체험. 예로부터 천수만은 어류의 산란장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사철 서식하고 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주변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2만 원.



4

### 4 통발체험

선상에서 통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체험. 통발을 들어 올리면 우럭, 돌게, 낚지, 붕장어, 갑오징어 등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하다. 미리 통발을 설치해야 하므로 최소한 3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약 1시간 소요. 기본 20만 원(보통 5~10명씩 참여).



5

### 5 무인도체험

마을 앞에 위치한 토끼섬, 모래섬, 닭섬의 무인도에서 진행되는 체험. 무인도에서 낚시와 조개잡이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토끼섬은 물이 빠질 때 걸어가갈 수 있고, 모래섬과 닭섬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캠핑 도구를 가져가면 무인도에서 캠핑을 하며 하룻밤 묵을 수 있다. 10인 이상 단체신청, 약 4시간 소요. 1인당 2만 원.



6

### 6 독살체험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인 '독살' 고기잡이는 맨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는 체험이다. 광어, 송어, 노래미 등을 잡을 수 있다. 체험장이 무인도 앞에 있어서 배를 타야 하고, 미리 예약해야 한다. 20인 이상 단체신청. 약 2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 어린이 1만5000원.



## 알아두면 도움되는 우리 마을 요모조모

### 영목마을을 자고 먹고!

#### 잠자리



영목항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민박집과 펜션단지가 있다. 민박집은 2층이나 3층으로 민박을 위해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깨끗하며 바다가 보인다. 민박집이지만 독립형펜션과 유사하다. 해오름민박(041-673-6655), 정다워민박(041-673-6514)이 있다. 펜션은 최근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언덕 위에 있어서 바다를 향한 조망이 좋다. 파란 바다를 가르며 지나다니는 유람선이나 어선이 마을을 평화롭게 한다. 그중 테라스가 돋보이는 펜션으로는 두바다찬술(041-673-0661), 섬마을이야기(041-672-2231), 바다와술술(041-672-3281)이 있다.

#### 먹을거리

박하지(돌게)의 집어항인 영목항에서는 배가 들어오는 오후 2~3시면 저렴한 가격에 박하지를 구입할 수 있다. 수협 앞에



위치한 신진수산(041-673-7133)에서는 계장백반과 태안의 명품 우럭젓국을 맛볼 수 있다. 영목항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보이는 오복횃집(041-673-6771)은 간자미회무침, 물굴회가 일품이다. 해성호집(041-673-7825)은 직접 잡은 신선한 횃감을 공수한다.

### 대야도마을을 자고 먹고!

#### 잠자리



대야도에는 펜션이 10가구 있다. 10여 년 전부터 펜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근사한 펜션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곳처럼 사람들이 와글거리진 않는다. 대야도펜션은 대부분 천수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침이면 흥성 쪽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소나무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소리와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10년 된 펜션단지이나 최근에 지은 펜션은 모두 다 세련된 감각이 가미된 현대식 건물이다. 숲속을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길가에 피어 있는 야생화가 잔잔한 서정을 느끼게 한다. 예덴산장(041-673-1599), 이니스프리(041-673-7237), 해와달이머무는곳(041-673-0557) 등이 있다.



#### 먹을거리

천수만에는 다양한 수산물들이 잡힌다. 바지락, 굴, 고등은 기본이고, 낚시로 우럭이나 광어, 송어, 장어, 갑오징어를 낚아 올릴 수 있다. 이런 수산물은 미리 예약하면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조리해준다. 마을에는 음식점이 없고, 자동차로 10분 정도 나가야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단체 손님들에게 마을에서 우럭젓국이나 매운탕, 낙지연포탕을 해주기도 한다.

### Tip 여기도 가볼까?

**소나무숲 산책로**: 대야도에는 소나무숲이 두 군데 있다. 펜션단지가 있는 곳과 체험장 바로 위쪽에 있다. 이른 아침 소나무숲을 산책하면 보드랍고 강렬한 소나무 향기가 폐를 자극하고, 원추리를 비롯한 들꽃들이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소나무 사이로 푸른 바닷물이 보이고,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 모습이 한가롭게 보인다.



추천 여행코스 : 대야도·영목 마을 → 영목항 → 고남패총박물관 → 셋별해수욕장 → 꽃지해수욕장 → 안면도자연휴양림 → 백사장항에서 점심(횃집) → 몽산포해수욕장 → 팜키밀레 허브농원 → 오키택터운식물원 → 안흥항

**고남패총박물관** 태안지역은 패총이 많은 곳이다. 고남패총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의 패총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패총뿐 아니라 토기와 석기도 전시되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611

문의 041-670-2337



**안면도자연휴양림** 국내 유일의 소나무천연림으로 우거진 휴양림에서 머리와 가슴까지 뚫리는 시원함을 느껴볼 수 있다. 곳곳에 자연학 습장,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체력단련장이 있어 쉬어갈 곳이 많다. 가까운 소나무 숲길을 산책하는 사람이나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솔향기가 스트레스를 씻어준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3리 산32-567

문의 041-674-5019

**꽃지해수욕장**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환상적인 낙조 경관을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문의 태안해안관리소 041-672-9737



**팜키밀레 허브농원** 3만9669㎡ 규모의 국내 최대 허브농원이다. 인공이 아닌 농원에서 자연 그대로 허브를 키운다. 농원 안 레스토랑에서는 허브로 만든 식사도 할 수 있다. 허브공방에서는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977

문의 041-675-3636

# 갯벌 무한체험과 선운사 트레킹을 즐기세요!

뜨거운 태양빛을 온전히 받은 염전에 순백의 소금꽃이 활짝 피었다. 끝이 아득할 정도로 드넓은 갯벌에는 동족조개가 알알이 빛난다. 고창 만들마을이 품은 천혜의 보석들을 알차게 즐기는 1박2일 여행스케줄.







고창 만돌마을 사람들이 입 모아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갯벌이지요. 마을에서 갯벌 끝까지의 거리가 무려 6km랍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끝이 아득한 회색의 갯벌. 망망대해를 보며 감탄하는 일은 많지만 이처럼 드넓은 갯벌에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지요. 바로 이 너른 갯벌에 굵직굵직한 조개가 풍성하답니다. 덕분에 체험객들은 시원한 갯벌에 한번, 난생처음 큼직한 조개를 캐는 재미에 두 번 탄성을 연발합니다. 차진 갯벌을 호미로 쓱쓱 긁으면 제법 씨알이 굵은 조개가 한 아름씩 나오니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만돌마을표 갯벌버스를 타는 재미도 끝내줍니다. 갯벌버스는 창문으로 사방이 막힌 일반버스와 다르지요. 경운기를 개조해 만든 오리지널 '만돌표' 버스입니다. 질척한 갯벌을 달리는 탓에 좌우로 덜컹덜컹, 위아래로 들썩이지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야호! 엄마야!" 연신 소리를 질러댁니다. 20분쯤 달리면 바다 생물이 그득한 원시의 섬 죽도에 닿습니다. 특히 게와 우렁이가 많아 줍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갯벌체험이 '바다의 선물'이었다면 염전체험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게 진짜 천일염이지요, 천일염은 햇빛이고 바람이고 모든 자연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지요, 비라도 한 번 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염전사람들의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삼양염전은 맑은 하늘을 거울처럼 담아내고 있지요. 체험하러 온 아이들도 그 모습이 신기한지 순식간에 왁자지껄... 아이들은 발아래 미끌미끌한 염전의 감촉이 재미있어 발을 밀며 장난을 칩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만돌마을에선 체험만으로도 하루해가 짧습니다. 고창 고인돌마을, 선운산도립공원 등이 가까이 있으니 체험여행 후 하루 정도는 관광을 즐기는 스케줄에 끼워 넣어보세요.

**Mini Interview**

**김근옥 어촌계장**



고창은 복분자, 수박, 장어 등 풍부한 특산물 만큼이나 천혜의 자연에서 즐기는 체험도 알차고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만들어내는 염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드넓은 갯벌, 그리고 원시생태를 그대로 간직한 죽도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마을에서 고안해서 만든 갯벌버스는 그 자체로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C → 석교교차로에서 좌회전 → 22번 국도 → 용선삼거리에서 우회전 → 심원면 농민상담소 지나서 우회전 → 만돌어촌체험마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창까지 1시간 10분 간격으로 17회 운행한다. 3시간 50분 정도 소요. 고창터미널에서 심원 방면 시내버스 타고(하루 20회 운행) 심원에서 하차. 이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한다(만돌마을까지 약 4km). 택시요금 5000원.

문의 고창터미널 063-563-3344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만돌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햇불 원시어로 체험, 죽도 원시생태 체험, 갯벌 체험, 염전체험
- 여름** 햇불 원시어로 체험, 죽도 원시생태 체험, 갯벌 체험, 염전체험
- 가을** 햇불 원시어로 체험, 죽도 원시생태 체험, 갯벌 체험, 염전체험
- 겨울** 갯벌체험

## 이용 요금

갯벌버스 드라이브, 동죽캐기, 원시어로 체험을 하는 1코스와 갯벌버스 드라이브, 죽도 원시생태 체험을 하는 2코스 중 선택할 수 있다. 1, 2코스 모두 어른 1만 원, 어린이 7000원. 단체 체험객은 어른 8000원, 초중고생 6000원, 유치원생 5000원. 염전체험선택시 어른 5000원 / 어린이 4000원.

## 문의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27  
 전화 만돌어촌계 063-561-0705 / 011-682-1733  
 삼양염전 063-563-5467 / 011-9190-6542  
 홈페이지 <http://www.mandolri.com>  
<http://mandolri.seantour.org>



### 1 갯벌버스 드라이브

갯벌버스는 바닷바람을 흠뻑 맞으며 갯벌의 명소를 콕콕 찍어 이동할 수 있는 만돌의 명물이다. 사방이 뽕 뚫린 버스를 타고 갯벌을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다. 다른 체험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약 1시간 소요.

### 2 갯벌체험(동죽캐기)

부릉부릉 갯벌버스를 타고 체험장에 도착한 아이들은 동죽 캐는 데 여념이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포크처럼 뾰족한 삼발호미로 갯벌을 쓱쓱 쓸어내리면 씨알 굵은 동죽이 걸려든다. 바구니에 동죽이 불어날수록 아이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약 2시간 소요.





3



4



5



6

### 3 죽도 원시생태체험

마을 앞에 있는 '초미니섬' 죽도는 태곳적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천혜의 체험장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각종 바다생물이 그득하다. 그중에서 작은 게와 우렁이가 풍성하다. 꿈틀대는 작은 바다생물을 요리조리 관찰하며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약 3시간 소요.

### 4 염전체험

만돌마을 삼양염전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활짝 꽃핀 순백의 소금을 수확해볼 수 있다. 소땀을 손에 꼭 쥐고 염전 위에 소금을 미끄러지듯 밟고 젖히면 어느새 하얀 소금이 은반 위에 수북하게 쌓인다. 내 손으로 거둔 천일염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약 1시간 소요.

### 5 횃불 원시어로체험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이면 횃불을 들고 바다로 나가보자. 죽방렴에 가둔 생선을 수확하기 위함이다. V자로 박은 말뚝 안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다. 과연 그물을 살살 풀어내자마자 주꾸미, 굴비, 꽃게가 줄줄이 흘러나온다. 약 3시간 소요.

### 6 정치망 고기잡이체험

정치망 고기잡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그물을 쳐놓고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 뒤,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어로방식이다.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어른들도 장갑을 끼어야 한다. 약 2시간 소요.



## 알아두면 도움되는 만돌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만돌마을은 어촌계(063-561-0705)에서 단체 숙박시설을 운영한다. 갯벌 체험장과 지척이라 여러모로 편리하다. 20~30명의 단체인 경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만돌마을에는 민박집이 드물지만, 10분 거리에 있는 이웃마을에는 민박집이 여럿 있다. 해원민박(010-3977-3818), 골든캐슬(010-323-0010). 만돌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동호해수욕장이나 선운사 입구에는 여관들이 많이 있다. 특히 선운산도립공원 입구에는 선운산관광호텔(063-561-3377), 선운산유스호텔(063-561-3333) 등이 몰려 있어 가족끼리 숙박을 하기에 적당하다.



#### 먹거리

체험객들은 갯벌에서 직접 잡은 조개류를 삶아 먹거나 구워 먹을 수 있고, 생선은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다. 심원면 연화리에 있는 수궁회관(063-564-5035)의 굴밥이 인기가 있고, 우정회관(063-561-2486)은 간장게장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토박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집이다. 철에 따라 석화나 서대당 따위 매운탕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다. 주변에 한정식집도 몇 집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고창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풍천장어다. 소금구이와 양념구이로 대표되는 장어구이집은 만돌마을에도 두 집이 있고, 해안을 따라 여러 집이 들어서 있다.

#### 특산물

**복분자와 김** : 만돌마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 두 가지 있다. 고창 수박과 복분자. 여름이면 만돌마을에서도 맛있고 저렴한 수박을 맛볼 수 있다. 복분자는 음료(차), 술, 된장, 고추장,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는 복분자로 만든다. 겨울에는 재래식 김을 맛볼 수 있다. 하루 5~6시간씩 태양 열에 키운 김을 마을에서 생산한다. 악물 따위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재래식 김은 만돌마을의 자존심을 건 특산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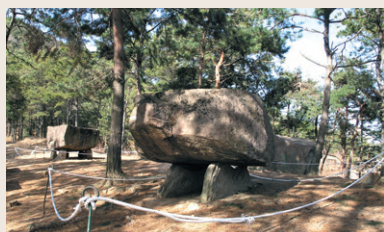
구매 문의 063-561-0705

**추천 여행코스** : 만들마을 → 미당시문학관 → 선운사 → 하전마을 → 하전마을 → 부근에서 점심(한식, 장어전문) → 동호해수욕장 → 장호방조제 → 구시포항과 구시포해수욕장 → 학원농장 →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

**선운사** 선운사는 577년 백제 위덕왕 때 검단선사와 신라 진흥왕의 왕사인 의운국사가 창건한 사찰. 봄에는 동백꽃이 피고, 야생늪차가 그윽한 향기를 피운다. 초가을에는 상사화가 숲속에 불이 난 듯 빨갛게 꽃을 피운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92-5

**문의** 063-563-3450



**고인돌 유적지**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는 강화와 화순에 이어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47기의 고인돌이 있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 밀집지역이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76

**문의** 고인돌박물관 063-560-2576

**구시포항과 구시포해수욕장** 울창한 송림과 넓고 단단한 모래사장을 갖춘 아름다운 해수욕장. 바다낚시터로 유명한 가막도를 비롯해 무수한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섬 사이로 넘어가는 낙조가 장관이다. 인근에 아름다운 포구 구시포항이 있고, 여름이면 주변에 해당화가 많이 핀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문의** 상하면사무소 063-563-0700



**학원농장 청보리밭** 66만m<sup>2</sup>에 이르는 넓디넓은 청보리밭에선 아이들의 발길이 멈출 줄을 모른다. 4월과 5월에 가장 파릇파릇한 청보리를 만날 수 있다. 농장에서 보리비빔밥을 판다. 6월 초에는 황금보리밭을 볼 수 있다.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산119-2

**문의** 063-564-9897

#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그 섬에 풍부한 해산물이 가득!

“아아~ 장자도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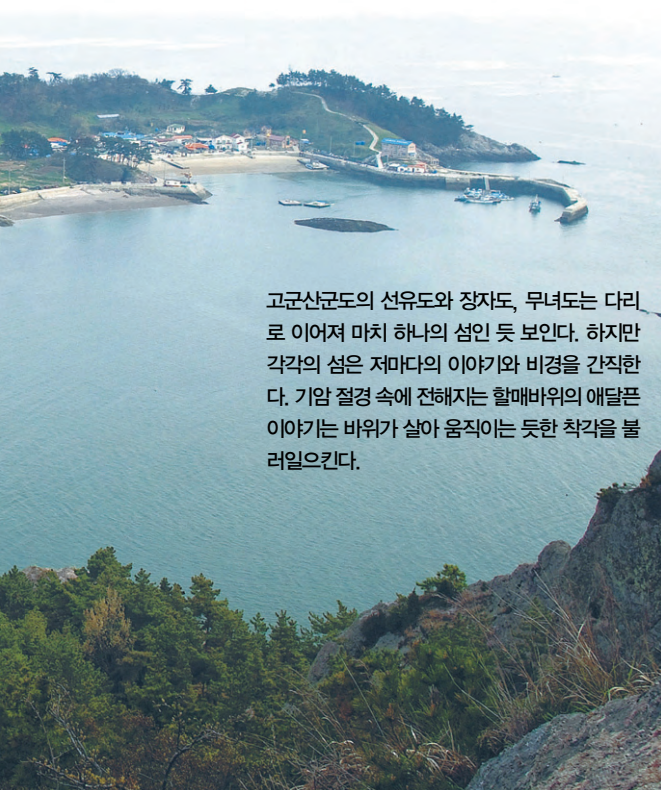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 그중에 네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장자도입니다. 지금은 선유도와 장자대교로 연결되어 있지요. 차는 다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하이킹코스가 인기가 높는데, 장자대교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장자도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뛰는 말 앞의 커다란 먹이 그릇처럼 장자봉이 우뚝 솟아 있는 형국으로, 눈앞의 선유도가 그 맥을 감싸 안고 있어 인제가 많이 나온다 합니다. 장사가 많이 난다고 '장자도'라 이름 붙였다는 유래도 이런 설에 기인한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지형은 장자도가 천연적인 대피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도 장

자도로 피하면 안전했답니다. 그래서 60여 년 전까지는 장자도가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가장 풍요로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선유팔경의 '장자어화(壯子漁火)'는 장자도 앞바다에 불을 밝힌 고깃배들이 장관이었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지요.

마을에는 기암괴석이 많아 그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장도 장자봉에 위치한 장자할매바위는 아기를 업고 뒤돌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고산군도의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는 다리로 이어져 마치 하나의 섬인 듯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섬은 저마다의 이야기와 비경을 간직한 다. 기암 절경 속에 전해지는 할매바위의 애달픈 이야기는 바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횡경도의 장자할아버지바위와 함께 애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실제 할아버지바위 주변에는 자갈한 바위들이 있어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합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마을 장자도는 군산여객선터미널에서 1시간가량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갯바위는 흥함을 비롯한 해산물이 지천이지요. 갯벌은 바지락, 맛, 키조개 등 각종 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낚시를 드리우면 백발백중, 크고 작은 물고기가 달려 올라옵니다. 풍요로운 어촌체험 여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C → 706번 지방도(군산) → 27번 국도(성산) → 이마트 → 군산여객선터미널

※ 섬내에서는 자동차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터미널에 주차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차는 6시에 있다. 동서울터미널에서는 하루 11회 운행되며 첫차는 7시 30분, 3시간 30분 소요.

군산여객선터미널에서 장자도행은 09:00와 14:00 하루 2회(선유도는 하루 8회) 운항, 1시간 10분가량 소요.

문의 군산여객선터미널 063-472-2712

## Mini Interview

### 김종주 어촌계장

장자도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섬마을이지만, 풍부한 수산자원과 볼거리로 체험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해산물을 채취하고, 바다에 드리운 낚시줄에는 커다란 물고기가 달려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유팔경과 기암괴석, 선유도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등 볼거리,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1박2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장자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낙시체험, 갯벌체험, 홍합채취체험, 후릿그물체험, 자전거 하이킹
여름	낙시체험, 갯벌체험, 홍합채취체험, 후릿그물체험, 자전거 하이킹
가을	낙시체험, 갯벌체험, 홍합채취체험, 후릿그물체험, 자전거 하이킹
겨울	갯벌체험, 홍합채취체험, 자전거 하이킹

## 이용 요금

각각의 체험프로그램에 이용금액이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움직이는 체험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배를 한 번 타고 나갈 때 드는 비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 문의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11  
 전화 010-4652-4944 / 010-8678-9543 / 063-471-7574  
 홈페이지 <http://jangjado.seantour.org>



### 1 낙시체험

센터 앞 큰 여 부근에 2개의 좌대가 설치되어 있다. 좌대 사이로 물결이 잘 흐르고 많은 여가 산재해 있어 우럭, 노래미, 장어, 송어, 낙지 등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잡은 물고기를 바로 회로 먹을 수도 있고, 좌대에 설치된 바비큐시설에서 구워 먹을 수도 있다. 미끼, 낙시대 대어비, 선박운항비, 구명조끼 대어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좌대 낚시 이외에도 선상낚시, 갯바위낚시도 가능하다. 약 3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 어린이 1만 원.



### 2 갯벌체험

갯벌에서 맛을 채취해본 사람은 그 재미를 보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난다. 망구멍에 소금을 살살 뿌리고 하나, 둘, 셋을 세면 맛이 쏙 올라온다. 반쯤 올라왔을 때 재빨리 잡아야 한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바지락양식장에서 바지락, 맛을 채취할 수 있다. 물때에 따라서 키조개, 해삼, 전복, 소라 등도 잡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낙지와 개조개도 잡힌다. 물때에 따라 야간 체험도 가능. 약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3 홍합채취체험

해안 갯바위는 자연산 홍합의 서식처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가 홍합을 채취한다. 홍합의 종패관리를 위해서 정량바구니를 준다. 배에서 홍합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 먹는 홍합 맛은 일품이다. 체험도구 제공. 약 2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어린이 1만 원.



### 4 후릿그물체험

계절마다 다양한 어종을 그물로 잡을 수 있다. 양쪽에서 그물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으며, 주요 어종은 송어, 민꽃게, 소라 등이다. 그물이 크기 때문에 3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어린이 1만 원(자연산 회 제공).



### 5 자전거 하이킹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를 잇는 자전거코스를 따라 달리면 고운산군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산길과 섬을 잇는 다리, 해안을 고루 다닐 수 있다. 총 주행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하지만 반드시 이 세 섬을 다 돌 필요는 없다.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한다. 자전거 대여는 여객선터미널 주변과 마을의 민박집에서 하고 있다. 전통카트도 대여하지만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자전거가 용이하다. 약 3시간 소요, 대여료는 1인용 자전거 1시간 3000원, 하루 1만 원, 2인용 커벌 자전거 1시간 6000원, 하루 2만 원.



#### Tip 장자도항

‘장자어화(壯子漁火)’는 장자도항에 불을 밝힌 고깃배들이 장관을 이룬 모습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만큼 장자도항이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지금은 옛 명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장자도는 다시 한 번 그 시절을 꿈꾼다. 태풍이 불어도 안전한 정도로 천연적인 대피항이었던 장자도는 예전에는 멸치포구로 유명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포구에 첫갈통이 빼곡하게 들어찼을 정도. 하지만 수운의 변화로 지금은 그 양이 많이 줄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장자도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잡자리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에 들면 고깃배를 타고 유람, 혹은 낚시 등의 체험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바다하우스(고운봉 사장님 017-612-0654)는 장자도선착장에서 제일 가까운 펜션형민박,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깨끗하고, 평상과 차광막, 바비큐시설도 갖추고 있다. 펜션 뒤로는 텃밭이 있어 싱싱한 채소도 맛볼 수 있다. 그 외에 그린하우스(010-6622-2483), 바다풍경(063-466-2322), 섬마을풍경(063-468-7300)도 있다.



#### 먹을거리

장자도는 것갈이 유명하다. 특히 바지락 것갈은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이 좋다. 식당은 한 곳뿐인데 화이트식당(010-9897-8380)은 제철에 맞는 반찬이 나오는 백반과 생선탕을 주로 한다. 그리고 여촌계에서 운영하는 활어센터 내에는 횡집인 도원이네(063-465-6250)에서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 특산물

**멸치액젓** : 장자도의 보물, 멸치액젓 트레킹코스를 다 돌아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작은 마을이니만큼 인터넷이나 중간상인을 거쳐 판매할 만큼 많은 양을 만들지는 않지만, '알고 찾는 이들'을 위해 주민들이 먹고 팔 만큼만 멸치액젓을 담고 있다. 멸치에 소금만 넣어 3년 이상 숙성시킨 멸치액젓에 변질이란 있을 수 없다. 바지락것도 맛있지만 역시 양이 많지는 않다



# 여기저기 고군산군도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장자도항 → 대장봉과 장자할매바위 → 장자도 트레킹 → 선유도 명사십리해수욕장 → 망주봉 → 평사낙안 → 몽돌해수욕장 → 선유도 방파제등대 → 선유대교 → 무녀도 조약돌해변

**대장도 대장봉과 장자할매바위** 장자도에서 현수교를 지나면 대장도다. 대장봉을 향해 15분쯤 올라가면 아기를 업은 모습의 장자할매바위를 볼 수 있다. 대장봉은 정상까지 총 20여 분. 정상에 서면 장자도가 한눈에 펼쳐진다.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문의 옥도면사무소 063-442-0442 /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0-6110



**장자도 트레킹** 장자도항에서 오른쪽으로 섬 전체를 에두르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한 바퀴 도는 데 30여 분. 길을 평평하게 닦아놓아 하이킹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다.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문의 옥도면사무소 063-442-0442 /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0-6110

**선유도 명사십리해수욕장 · 망주봉 · 평사낙안** '신선이 노니는 섬' 선유도는 장자대교를 지나면 만난다. 선유팔경 중 명사십리와 망주봉, 평사낙안은 명사십리해수욕장,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문의 옥도면사무소 063-442-0442 /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0-6110



**몽돌해수욕장** 선유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의 해변을 지나 좀 더 내려가면 남악마을 몽돌해수욕장이 나온다. 모래사장이 아닌 둥글둥글한 모오리돌(몽돌)들이 파도에 씻길 때마다 자그락자그락 노래를 한다.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문의 옥도면사무소 063-442-0442 /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0-6110

드넓은 갯벌과 소나무 숲에서  
해넘이와 해돋이가 일품이네~



“아아~ 송계마을입니다!”



소나무 송(松)과

시내 계(溪), 송계마을은 글자 그대로 솔숲이 계곡을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마을뒷산에도 소나무가 울창하고, 해안에는 3km 넘게 해송이 숲을 이루고 있지요. 이 소나무 숲 길을 걸으며 드넓은 갯벌을 감상하고, 소나무 향과 어우러진 바다냄새를 접했던 이들은 너무 멋진 추억을 안고 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송계마을의 역사는 500년이 넘습니다. 남양 홍씨 대훈이란 분이 1480년경 이곳으로 유배되어 입향한 것이 우리 마을의 시초이며, 그 후 1530년경에 김해 김씨 일가가 경기도 양주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내려와 남양 홍씨와 함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청정지역,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인 송계 갯벌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습니다. 썰물 때 뽕뽕 소리를 내면서 걷기도 하고, 어부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지요. 도깨비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정말이냐고요? 사실은 주민들의 믿음이고, 갯벌과 마을 주민들의 삶이 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청정지역 송계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무안바다에는 송어, 민어, 농어, 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진 무안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마을은 송계마을. 전국에 갯벌체험 바람을 일으킨 선도적인 마을이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조개채취, 낚시 체험과 무인도탐방을 할 수 있다.

오리, 낙지, 바지락, 고등 등 많은 해산물이 납니다. 해산물을 직접 잡기도 하는데,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낙지랑 씨름한판 붙어보세요. 그 재미를 어떻게 말로 설명한답니까? 해마다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열리는 송어축제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때 오시면 '송어회 예쁘게 썰기', '어린 송어(모찌) 빨리 먹기', 품바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에 여행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웃 도리포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같은 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고, 송어축제와 함께 송년 해넘이와 신년 해돋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마을이지요. 함평만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는 전라도 서해안의 특이한 볼거리이니 꼭 함께 해보시라고요~~. 강추~!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함평JC → 북무안IC → 현경면 → 해제면 → 송석리(마을입구 도로변)에 송계마을 안내판 → 송계어촌체험마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1일 2회, 07:30과 16:20(동서울터미널은 9:10, 16:20)에 무안행 버스를 탈 수 있다. 약 4시간 30분 소요. 목포행 버스는 05:30에서 24:00까지 40~50분 간격으로 운행, 목포에서 무안행으로 갈아탄. 무안해제터미널에서 1일 7회 운행하는 도리포행 군내버스 승차, 20분 거리. 문의 무안터미널 061-453-0156 / 무안역 061-453-7788 / 무안해제터미널 061-452-7403

## Mini Interview

### 박상범 어촌계장

송계마을은 우리나라 갯벌체험마을 1세대입니다. 초창기에는 남의 도움 없이 자리잡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마을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친부모 모시듯 하면서 출향민들이 기부하고,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체험을 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서 체험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송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체험(조개잡기), 낙지잡기체험, 갯바위낚시 체험

**여름** 갯벌체험(조개잡기), 낙지잡기체험, 갯바위낚시 체험, 후리질체험, 선상 대나무낚시 체험

**가을** 갯벌체험(조개잡기), 낙지잡기체험, 갯바위낚시 체험

**겨울** 갯벌체험(조개잡기), 낙지잡기체험, 갯바위낚시 체험, 이각망 물보기 체험

## 이용 요금

갯벌체험에 조개잡기, 낙지잡기, 후리질 등 다양한 체험 포함, 물때가 맞으면 조개 및 낙지 잡기 견학과 시식이 가능하다. 물때가 맞지 않으면 여름에는 후리질체험, 선상 대나무낚시 체험, 겨울에는 이각망 체험으로 대체된다. 2만 원의 체험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 문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저면 송석리 30-4

전화 061-454-8737

홈페이지 <http://songgye.seantour.org>

[www.songgye.muam.go.kr](http://www.songgye.muam.go.kr)



### 1 조개잡기체험

송계마을의 갯벌은 일단 배를 타고 나가야 만날 수 있다. 길게 이어진 목책길 끝에 용궁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을 것 같은 송계마을의 바다풍경은 갯벌체험마저도 신비롭게 만든다. 송계마을의 갯벌은 깨끗하고 부드러워 맨발로 다녀도 좋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바지락조개뿐 아니라 고둥, 방게 등이 널려 있다. 약 2시간 소요.

### 2 선상낚시체험

밀물 때면 낚싯배를 타고 나가 대나무낚시를 한다. 낚싯배에는 10~15명이 승선하는데 송어나 망둥이를 낚아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골 출신 어른들은 어렸을 때 직접 해본 낚시방법이라 추억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낚싯배는 체험안내소에서 무료로 빌려준다. 약 3시간 소요.



1



2



### 3 낙지잡기체험

무안 갯벌은 세발낙지가 유명하다. 뽀글뽀글 숨구멍을 찾아 재빠르게 흙을 뒤집으면 도망가는 낙지의 다리를 잡을 수 있다. 빠른 손놀림이 중요하다. 송계마을에서는 낙지를 잡는 모습과 방법을 보여주고 잡은 낙지는 그 자리에서 시식하게 해준다. 약 2시간 소요.



### 4 이각망 물보기 및 후리질 체험

어장에 예들러 쳐놓은 이각망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후 이각망의 끝을 열어 물고기를 통에 받아 돌아오는 체험이다. 겨울에 물때가 맞지 않을 때 갯벌체험의 대안으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그물을 던져 여럿이 끌어올리는 후리질 체험이 갯벌체험을 대신할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 Tip 무안생태갯벌센터

1층 갯벌생태관에는 갯벌의 생성원리부터 다양한 생명활동까지 거시적 시각으로 갯벌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갯벌탐사관에서는 '갯벌이야기'와 '소중한 갯벌', '갯벌친구들'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갯벌이 가진 가치와 효능을 미시적으로 이야기한다. 특히 '갯벌친구들'은 갯벌생명을 다름으로써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2층의 갯벌학습실은 갯벌에 관련한 자료를 모아놓은 미니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망대를 통해 드넓은 바다와 갯벌을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다. 4만8100㎡ 규모로 야외에 조성된 갯벌생태공원은 염생식물단지과 갯벌탐방로, 생태연못 등이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송계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잡자리**

체험센터 내에 콘도형민박이 마련되어 있는데 단체로 오는 체험객이나 가족단위 체험객에 따라 숙박할 수 있도록 큰 방과 방갈로형펜션이 있다. 체험센터 내 민박은 사무실에 전화하여 예약하면 된다. 마을에는 가정식민박과 펜션형민박이 있다. 당산나무(061-454-6886), 여름향기(061-454-9113), 해맞이민박(061-454-3388), 도리포민박(061-454-6893) 등이 있다.



#### **먹을거리**

도리포에 횡집이 많다. 메뉴는 산낙지, 송어, 민어, 농어회, 가오리찜 등. 특히 황가오리찜은 무안의 별미이다. 갯마을횡집(061-454-7448), 도리포횡집(061-454-6890)에서 가오리찜을 만날 수 있다. 일억초횡집(061-454-0506)에서는 회와 매운탕을 먹고 신선한 생선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홀통유원지에도 횡집이 여럿 있다. 갖가지 낙지요리와 회, 갯장어구이가 많이 나온다.



#### **특산물**

**양파즙** : 무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파 산지 송계마을에서 직접 농사지는 양파를 사용하여 양파즙을 생산한다. 전체 가공과 정을 주인이 직접 관리하여 믿을 수 있다. 무안산이 아니거나 다른 약재나 감미료, 설탕 등을 첨가한 흔적이 보인다면 즉시 배상한다. 방문객에게는 즙을 내지 않은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시음용이 필요하면 무료로 배송해주시기도 한다. 판매 문의 체험안내소(061-454-8737).





추천 여행코스 : 송계마을 → 도리포유원지 → 해제염전 → 갯벌생태체험관 → 해제분재타운 → 홀통유원지 → 홀통유원지에서 점심(횃집) → 조금나루유원지 → 톱머리해수욕장 → 청계면 초의선사유적지

**조금나루유원지** 마을에서 톱 불거져 나와 물이 들면 나루터가 조금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금' 나루다. 긴 백사장에 소나무숲까지 겸비한 해수욕장과 낙조가 절경이다. 매년 10월 세발낙지 큰잔치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067

문의 무안군 관광문화과 061-450-5472



**홀통유원지와 홀통해수욕장** 울창한 해송숲과 긴 백사장이 장관이며, 캠핑장이 있어서 야영과 함께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스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년 전국 단위의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요트장, 카누장도 있다.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1368

문의 무안군 관광문화과 061-450-5472

**해제분재타운** 2010년 봄에 오픈한 이곳은 50여 종의 수종에 약 3만 그루가 전시되고 있다. 대형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10동이 있는데 체험객들은 분갈이, 물주기, 철사결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47

문의 061-454-7378 / 010-3636-0832(김성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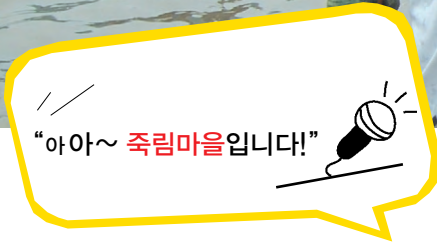
**도리포유원지** 도리포유원지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도리포 뒤쪽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길고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마을에서 송어축제와 민속놀이축제를 개최한다.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문의 무안군 관광문화과 061-450-5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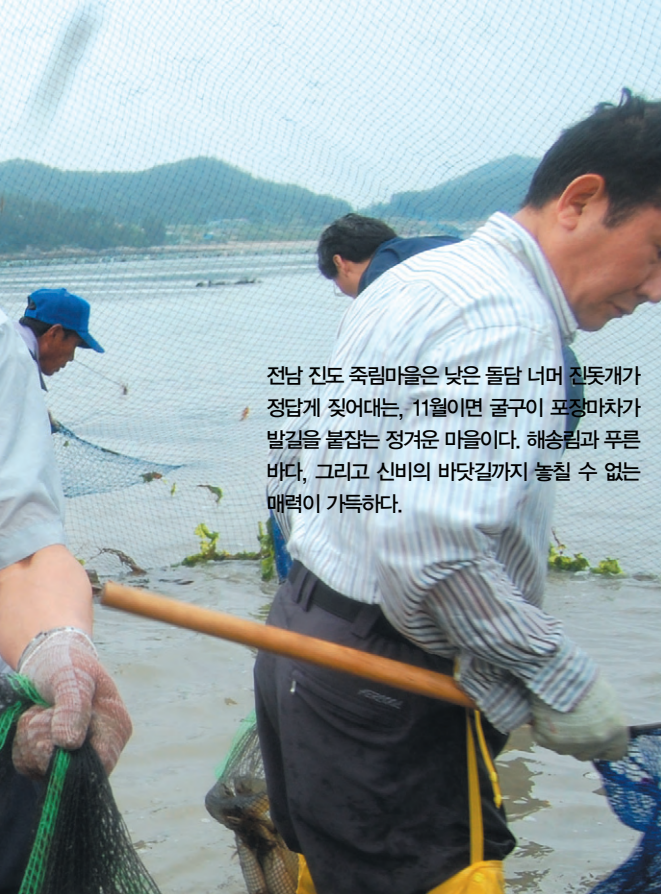
지천에 널린 해산물을 주워담아 볼까요?



진돗개, 바다, 해송림, 논, 다시마, 돌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이지요. 원래는 어촌마을이었지만 약 400년 전 마을 앞에 논을 만들면서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바람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방책으로 생각 해낸 것이 바다와 농토 사이, 마을 중심에 나무를 심는 거였답니다. 세월이 지나 그것은 숲을 이루었고, 지난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을의 자랑인 해송림입니다. 마을입구부터 200여 미터 길에 늘어선 소나무숲은 초록 들판, 푸른 바다와 어울려 묘한 운치를 자아냅니다. 죽림마을의 바다는 주민들의 또 다른 삶의 터전입니다. 물이 빠지고 너른 갯벌이 드러

나면 바지락, 귀머거리, 맛과 같은 패류가 넘쳐납니다. 손으로 주워담을 수 있을 정도예요. 돔이나 송어, 농어 같은 물고기는 썰물 때 개막이 그물에 걸려드니 이 역시 그냥 주워담으면 됩니다. 바로 생생한 개매기 체험이지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다시마를 거두기 시작해 7월까지의 마냥 바쁘지요. 일손이 바쁠 때는 사람을 사야 할 정도랍니다. 굴양식은 그래




전남 진도 죽림마을은 낮은 돌담 너머 진돗개가 정답게 짝어대는, 11월이면 굴구이 포장마차가 발길을 붙잡는 정겨운 마을이다. 해송림과 푸른 바다,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까지 놓칠 수 없는 매력이 가득하다.



### ▶▶ 교통안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 → 진도 방면 → 진도대교 → 임회면 → 18번 지방도 → 죽림어촌체험마을

 목포행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 내려 진도행 시외버스를 탄다. 진도버스터미널에서 다시 '탐림' 행 군내버스를 이용해 죽림마을로 오면 된다. 죽림마을은 진도군을 오가는 군내버스만 다닌다. 진도읍에서 2~3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40분 정도 소요. 문의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도 손이 털 가는 일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굴양식으로 양식업을 전환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덕분에 겨울 바닷가에 늘 어선 굴구이 포장마차는 우리 죽림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도 굴구이를 찾아 많이 방문해 주신답니다.

진도 하면 진돗개를 떠올리듯이 우리 마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낮은 돌담을 넘어다보면 집집마다 진돗개가 천연덕스럽게 쳐다보지요. 2009년부터 조성된 해안산책로 '미르길'을 따라가면 작은 산도 오르고 섬들이 부유하는 바다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국립남도국악원이나 운림산방, 진돗개 체험장, 신비의 바닷길 등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한반도 남단에서 보는 해넘이도 잊지 마세요.

### Mini Interview

### 천중선 운영위원장

죽림마을 야바바는 태풍이 불어도 섬들이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어 파도가 크게 거칠지 않습니다. 갯벌이지만 바닷물도 깨끗한 편이죠. 죽림마을에 오시면 진도 특유의 고풍스러움과 전원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죽림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갯벌체험, 개막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  
낙시체험

**여름** 갯벌체험, 개막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  
낙시체험

**가을** 갯벌체험, 개막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  
낙시체험

**겨울** 갯벌체험, 갯바위낙시체험

### 이용 요금

체험프로그램에 이용금액이 각각 책정되어 있다. 갯벌  
체험에는 체험도구 대여료를 받고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 문의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301

전화 061-544-6645

홈페이지 <http://jukrim.seantour.org>



### 1 갯벌체험(조개잡이)

마을 앞 갯벌에는 바지락과 고동, 조개, 맛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죽림마을의 갯벌은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갯벌  
이기 때문에 굳이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도 조개를 잡을  
수 있다. 호미, 장화, 장갑, 망 등이 필요한데, 죽림특산  
물판매장에서 호미와 통을 각각 2000원씩 받고 빌려준  
다. 반납 시 각각 1000원 환불. 약 2시간 소요,  
어른 5000원 / 어린이 3000원



### 2 개막이체험

죽림마을은 하루 두 번 물길이 열린다. 밀물 때 갯벌 위  
에 쳐놓은 개막이라고 하는 그물에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떼가 갇히고, 물이 빠지면 개막이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다. 체험을 위해 약 1.5km를 막아  
두기 때문에 많은 양의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준  
비물 장화, 장갑, 뜰채, 망. 약 2시간 소요,  
어른 8000원 / 어린이 4000원





### 3 선상낚시체험

바다로 나가는 선상낚시체험은 상쾌한 바닷바람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수 있다. 횃집에서만 보았던 우럭이나 광어, 노래미가 낚시줄에 걸려 올라오면 선상에서 직접 회를 먹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회맛은 기가 막히다. 10인 이상 단체, 배를 이용하는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예약 필수, 약 3시간 소요.



### 4 갯바위낚시

배를 이용해 작은 섬 갯바위로 가는 다른 체험마을과 달리 죽림마을은 마을 옆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갯바위에서 낚시체험이 가능하다. 낚시도구만 챙겨온다면 체험비용은 공짜다. 약 3시간 소요.



### Tip 수품항

수품항은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에 있다. 금갑해수욕장과 수품항은 의신면 바다를 대표할 만한 제일의 풍경이다. 1991년 1월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죽림마을에서 수품항까지 가는 해안도로가 매우 아름다우며, 항구 앞에 섬들이 버티고 있어 태풍의 영향이 적다. 그래서 일찍부터 의신면 일대 어민들의 생활근거지로 발전했고, 어종이 풍부하여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 항구 뒷산에 웰빙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다. 항구에는 신선한 회를 파는 횃집이 여럿 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죽림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마을 안에는 마땅한 숙박업소가 없다. 마을 주민들의 집에 하루 묵거나 마을회관(061-544-6645)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소나무숲에 있는 한옥집은 한국적인 정서와 섬문화를 느끼게 한다. 체험마을 사무소에서 옆 마을 민박집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소나무숲에서 야영을 할 수도 있다.

#### 먹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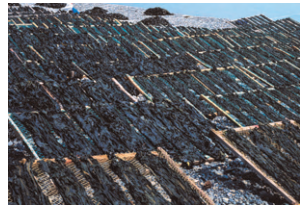
죽림체험마을에는 음식점이 드물다. 유일

한 음식점은 마을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차와 그림이 있는 곳'(061-544-0071). 화가가 운영하는 찻집이다. 정원이 예쁘고 주인이 직접 그린 소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주메뉴는 칼국수, 수제비, 파전.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갯벌체험을 한 여행객들은 마을회관에서 회를 떠준다. 채취한 바지락으로 조개탕을 끓여 먹을 수도 있다.



#### 특산물

**진도곽** : 진도사람들은 진도의 3대 보물로 진돗개, 진도구기자, 진도곽을 말한다.



여기서 진도곽이란 미역을 말하는 것. 진도미역이 얼마나 맛있고 귀한 것이면 섬마을 사람들이 미역바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겠는가? 진도곽은 돌미역 씨를 양식해서 줄기와 머리를 떼어내고 연한 이파리만 엄선해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다. 그래서인지 진도사람들이 임신부나 산모에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진도곽이라고 한다. 딱 1년치 판매할 양만 특산물판매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중간상인에게 넘긴다. 마을 특산물판매장(061-544-6645)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추천 여행코스 : 죽림마을 → 운림산방과 쌍계사 → 신비의 바닷길 → 금갑해수욕장 접도와 수품항 → 수품항에서 점심(횃집) → 국립남도국악원 → 남도석성 → 서망항 → 세방낙조 → 진도읍 저녁(한정식)

**운림산방, 그리고 쌍계사** 조선후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 허유(1807~1892)가 만년에 기거하던 화실로 운림각이라고도 부른다. 바로 옆에 쌍계사가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전남유형문화재 제121호다.

위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64 운림산방 / 76 쌍계사

문의 061-543-0088 / 061-542-1165



**세방낙조** 낙조 아름답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세방낙조. 갈대숲 사이로 바다를 본다. 인간이 그린 그림으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전망대가 있다.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문의 진도군 관광문화과 061-544-0151

**신비의 바닷길**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에서 나타나는 바다갈림 현상. 길이 2.8km, 폭 10~40m로 한 시간여 동안 일정하게 갈라져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린다.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3

문의 진도군 관광문화과 061-544-0151



**남도석성**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진도에서 몽골군과 항쟁을 벌일 때 해안지방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지금 남아 있는 성은 세종 20(1438)년 이후에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문의 진도군 관광문화과 061-544-0151

# 땅끝길 따라가는 생생한 갯벌생태체험

“아아~ 오산마을입니다!”



오산마을은 땅끝 해남군 북평면에 위치해 있는 소박한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 바로 물이 빠진 갯벌 위로 드러나는 목책인데요, 갯벌 생태 탐구를 위해 조성된 것이지요. 목책은 마을 앞 밤섬까지 800m가량 이어집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10곳 중 해남의 땅끝길에선 우리 마을의 이 목책로도 포함되었답니다. 해안을 따라 강진까지 이어지는 제2코스 생태체험길이지요.

오산마을은 갯벌생태체험에 더욱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갯벌에는 질퍽한 펄갯벌과 모래갯벌, 이 두 갯벌의 형태가 혼재한 혼성갯벌의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서는 이 세 종류

의 갯벌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각각의 갯벌형태에 서식하는 갯벌생물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면 해남 자연사랑메아리에서 운영하는 생태학교에서 오산마을로 갯벌생태체험을 오곤 합니다.

목책로를 따라 걸으며 갯벌을 들여다보면 쟁뚱어, 게, 고동 등 여러 가지 갯벌생물과 염생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해변테크도 조성되어





땅끝으로 향하는 마음은 시작과 끝, 새로운 다짐이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땅끝길을 걷다 보면 오산어촌체험마을을 만날 수 있다. 세 가지 갯벌의 형태가 혼재된 이곳에서 참된 갯벌체험을 만난다.



### >> 교통안내

🚗 호남고속도로 해남톨게이트 → 강진 → 완도 방향 → 55번 지방도 진입 → 남창 → 오산어촌체험마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 → 해남 대홍사 방면 → 해남 완도 방향 → 55번 지방도 진입 → 남창 → 오산어촌체험마을

🚌 해남버스터미널에서 남창, 영전 방면 버스 타고 남창터미널에서 하차한다. 30분 소요. 대략 30분~1시간 간격으로 06:10에서 20:00까지 있다. 기차를 이용할 때는 목포역까지 와서 완도 방면 버스 타고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완도, 남창행 버스로 갈아탄다.

문의 해남교통 061-533-8826

있지요.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히 갯벌만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무락, 꼬막, 고둥도 잡아보고, 갯벌스포츠로 피구도 하는 등 갯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오산마을 인근에는 강진, 완도, 땅끝마을이 있어서 볼거리도 많지요. 해남군에서 조성 중인 땅끝길을 따라가는 것도 여행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땅끝전망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대홍사, 미항사 등 포인트를 짚어 나가는 것도 좋지요. 해남을 제대로 보려면 하루가 모자라겠지만, 더불어 자연산 굴, 꼬막, 갯벌나지, 전복 등 남도의 풍미를 즐기는 행복을 놓쳐서도 안 되겠지요? 가까운 완도에서 해산물을 맛보며 바다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Mini Interview 오수현 운영위원장

해남의 땅끝에 위치한 오산마을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갯벌을 간직한 어촌체험마을입니다. 밤섬까지 연결된 목책로를 따라 걸으면 살아 있는 갯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개를 양껏 담아 가실 수는 없지만, 정말 갯벌생태에 관심이 있으시고 남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분이려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오산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갯벌생태체험, 갯벌썰매체험
- 여름 갯벌생태체험, 갯벌피구체험, 갯벌썰매체험, 개막이체험
- 가을 갯벌생태체험, 갯벌썰매체험
- 겨울 굴따기체험

## 이용 요금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은 모두 갯벌생태체험과 연계되어 있어 갯벌생태체험 비용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갯벌생태체험 어른 7000원 / 어린이 5000원

## 문의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1174-4  
전화 070-7759-5047  
홈페이지 <http://osan.seantour.org>



### 1 갯벌생태체험

갯벌의 종류에 따라서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도 달라진다. 오산마을은 펼갯벌, 모래갯벌, 혼성갯벌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진정한 갯벌생태체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물때에 맞춰서 밤섬까지 이어지는 목책로를 따라 짱뚱어나 망둥이를 만나고, 흰다리농게와 칠게 등 다양한 종류의 게들을 관찰할 수 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가운데 목책로를 걸으면 환상의 나라를 걷는 기분이다. 꼬막과 바지락, 굴도 채취해보자. 약 2시간 소요, 어른 7000원 / 어린이 5000원.

### 2 갯벌피구체험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나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들은 갯벌에 들어가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데 육지에



1



2



3



4

서 하던 피구를 갯벌에서 한다면 어떨까? 갯벌에서 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뒹굴고 온몸은 진흙범벅이 되지만, 그래서 더욱 재미가 있다. 편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갯벌에서 업어주기’, ‘얼굴에 진흙팜 바르기’와 같은 벌칙을 걸 수 있다. 단체이용 가능. 약 2시간 소요. 어른 7000원 / 어린이 5000원.

### 3 갯벌썰매체험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갯벌에서 썰매를 태워주는 체험이다. 플라스틱 갯벌썰매를 타면 아이들은 색다른 기쁨을 느낀다. 어른이 타면 끌고 가기 곤란하고 부서질 우려가 있으니 삼가야 한다. 약 2시간 소요. 1시간 2000원.

### 4 개막이체험

마을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돌로 물을 막아 놓은 개막이체험장이 있다. 망둥이, 우럭, 광어, 갯장어 등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가 잡힌다. 단체인 경우만 가능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약 2시간 소요.



### Tip 남창5일장

오산마을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북평면소재지인 남창리가 있다. 남창리는 완도로 가는 길목이며 완도대교가 연결되기 전에는 해남과 완도를 잇는 중요한 포구였다. 남창에는 5일장(2, 7일)이 지금도 열린다. 주로 오전에 열리고 말지만 이른 아침에 가면 인근마을 어민들이 잡아온 싱싱한 자연산 해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낚시나 그물로 잡아 올린 생선은 물론 어패류, 파래와 미역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의 북평면사무소 061-533-0983



## 알아두면 도움되는 오산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마을주민 10여 명이 민박을 받고는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영업을 하지는 않는다. 여행객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마을사무소에서 민박집을 알선해준다. 마을사무소(070-7759-5047), 함박골큰기와집(061-533-0960), 마을 옆 동촌리의 남도의향기펜션(061-535-3133), 오산마을 어촌체험센터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며, 15~20명 정도의 단체가 묵을 수 있는 방도 있다.



#### 먹을거리

오산마을에는 식당이 없고 북평면 남창리와 원도대교 부근에서 식당을 찾아볼 수 있다. 남창리에는 석식구이로 유명한 진미식당(061-533-0818)이 있고, 그 외에 유섬횡집(061-533-0978), 미주횡집(061-533-8854), 남해횡집(061-534-5342)이 있다. 인근마을에 사는 어민들이 직접 잡은 낙지나 송어, 망둥이 등이 많다. 원도대교 부근에는 맛집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만큼 먹을거리가 많다.

#### 특산물

칠게장과 파래김치: 오산마을 앞 갯벌에

는 칠게가 많이 잡힌다. 체험객들이 잡을 수는 없고, 노련한 어민들만 잡을 수 있다. 칠게는 기껏해야 어른들 엄지손가락 보다 작다.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고 간장에 절여 밥과 함께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간장게장처럼 밥도둑 소리를 듣는다. 일명 감태라고 부르는 파래도 오산마을 앞 깊은 갯벌에서 서식한다. 역시 체험객들이 채취하기는 곤란하다. 찬 바람이 불 때 채취하며, 간단한 양념으로 만든다. 밥을 비벼 먹으면 별미이며,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남창5일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여기저기 땅끝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오산마을 → 남창5일장 → 땅끝전망대 → 땅끝마을에서 점심(Hits), 되돌아서 →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 사구미 해수욕장 → 땅끝조각공원 → 설아다원 → 대흥사 → 해남읍

**해남대흥사** 두륜산도립공원에 위치.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서산 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곳으로 전해지면서 호국불교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던 호국도량이다. 도립공원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거나 2km 내외의 수풀이 울창한 등산로를 걸어 오르는 방법이 있다.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문의 061-534-5502



**땅끝전망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 땅끝마을에 있는 땅끝전망대에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다. 작은 산의 정상부분에 위치하므로 아이들과 함께 전망대에 오르려면 모노레일카를 이용하면 좋다.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문의 땅끝관광지 관리사무실 061-533-9324  
 땅끝모노레일카 061-533-4414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세계적인 패류와 산호류, 어류, 포유류, 갑각류, 화석류, 파충류에서 육지곤충에 이르기까지 2만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남도 최대의 박물관. 이곳에 땅끝조각공원이 있다.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95-4  
 문의 061-535-2110



**설아다원** 향기나는 싹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륜산 설아다원은 유기농농축재를 재배한다. 다도체험과 풍물체험, 생태체험, 제철음식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어른은 40명, 어린이는 50명 정도를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다.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256-3  
 문의 061-533-3083

하얀 모래 바닷길 따라  
갯벌 놀이터로 출발!



“아아~ 백사마을입니다!”



백사마을은 남해의 청정해역이 내륙으로 들어온, 고깔 모양의 강진만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름대로 하얀 모래마을이지요. 이 고요한 어촌마을에는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백사마을 입구에서 체험장으로 가는 길은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어울릴 법한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봄이면 흰 구름 속을 걷는 듯하지요.

‘백사바지락’이라고 하면 다 알아줄 정도로 백사마을에는 바지락과 꼬막, 석화가 풍부합니다. 갯벌이 바지락장이요, 바지락장이 갯벌인 셈이지요. 모래갯벌이 여물어서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지만 전문가인 동네아주머니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금방 한 소쿠리 가득 바지락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바지락을 캐다 보면 빨낙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척지사업과 규모가 큰 마량항의 포획으로 백사마을 바다 앞까지 올라오는 어종은 줄었지만, 바지락만은 백사바지락을 알아 준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패류와 어류의 생산이 원활하고 바닷물이 깨끗한 것이 바로 백사마을의 자랑입니다. 청정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만 산다는 은어도 백사마을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지요. 갯벌체험이 끝

체험도 즐기고, 바닷길을 따라 산책도 할 수 있는 곳, 오로지 자연과 나, 들만의 시간으로 시간이 잠시 멈춰 가는 곳, 바로 백사마을이다. 두루미, 저어새 등 새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여촌이다.



### >> 교통안내

 호남고속도로 광선C → 나주 방면 2번 국도 → 강진읍 → 마량 방향 23번 국도 → 대구 백사어촌체험마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강진행 고속버스 일 6회 운행, 7:30부터 17:40까지 2시간 간격 4시간 50분 소요. 강진터미널에서 마량행 농어촌버스 이용 백사마을 하차. 30~40분 간격으로 운행.

문의 강진버스터미널 061-432-9666

나면 마을 뒤 냇가에서 은어 낚시도 해보세요. 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추억이 떠오르겠죠. 낚시로 잡은 은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물이 차고 빠지는 폭이 커서 어선이 체험장 앞까지 들어옵니다. 그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비래도를 돌며 배 위에서 낚시도 할 수 있지요. 가족단위 체험객에게는 인기가 만점인 체험입니다.

비래도는 연안낚시공원으로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닷바람을 가르며 비래도와 백사마을을 함께 가슴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하얀 모래의 바닷길도 꼭 산책해보세요. 깨끗하고, 물 맑고, 인심도 좋은 백사마을, 어촌체험의 진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백사마을을 꼭 찾아주세요.

### Mini Interview

### 이영태 운영위원장

바지락, 꼬막, 석화의 천국 백사마을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 체험에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백사마을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바다를 청소합니다. 밀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만 산다는 은어를 낚는 일은 백사마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바구니 한 가득 담아 갈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바지락을 품고 있는 백사마을 갯벌은 전라남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백사의 청정 갯벌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백사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비지락캐기체험
- 여름 비지락캐기체험, 은어잡기체험, 어선탈기체험
- 가을 비지락캐기체험, 꼬막캐기체험, 은어잡기체험, 어선탈기체험
- 겨울 비지락캐기체험, 꼬막캐기체험

## 이용 요금

각각의 체험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비지락캐기의 체험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두 가지 체험을 묶어 이용하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 문의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백사리 백사어촌체험마을  
전화 061-433-2040  
홈페이지 <http://baeksa.seantour.org>



### 1 비지락캐기체험

강진 백사비지락은 유명하다. 비지락캐기는 자연 갯벌 특성에 대한 학습도 되고 소쿠리에 한가득 담긴 비지락으로 성취감과 보람도 느끼는 일석이조의 시간. 갯벌이 여물어 이동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초보자들은 따로 신청하면 동네주민이 인솔해준다. 장화, 호미, 소쿠리 등 모든 준비물은 체험장에 준비되어 있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5000원 / 어린이 3000원

### 2 꼬막캐기체험

비지락과 함께 백사를 대표하는 패류로 가을에 들어서야 살이 여물어 맛이 있다. 이 시기에는 펄을 캐기만 하면 꼬막이 쏟아진다. 연중 늘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비지락과는 달리 꼬막은 가을부터 겨울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색다른 경험을 즐겨보자.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1



2





3

### 3 은어잡기체험

환경지표종으로 활용될 만큼 고급어종인 은어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민물고기이다. 깨끗한 하천에서 서식하는 은어를 잡는 체험은 자연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은어는 7월부터 산란하려고 하천을 거슬러 올라온다. 그때가 가장 어량이 많기에 7월부터 9월까지 은어잡기 체험을 꼭 추천한다. 체험비용은 1인당 5000원이지만 '쪽대'라 불리는 어망대여료가 추가된다. 약 2시간 소요.



4

### 4 어선타기체험

강진만 주변의 무인도와 비래도를 돌며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서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선상에서 낚시도 할 수 있다. 강진만 해역에는 송어, 물매기, 가자미, 돔, 웅어, 넙치 등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어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선상 드라이브로 청정해안 곳곳을 돌아보자. 약 1시간 소요. 어른 3만 원 / 어린이 2만 원.



### Tip 마량항

강진군 최남단에 위치한 마량항은 옛 강진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어항으로서 어촌과 어항이 함께 있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고 풍경이 아름다워 미항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마량풍물패의 공연과 토요일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마량과 고금을 잇는 연륙교와 파도가 치면 모습을 감췄다 드러내는 까막섬의 풍광이 일품이다. 매년 9월 중에는 마량항축제가 열린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백사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백사마을에는 상업적인 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을 테고, 이것 때문에 백사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백사마을에는 체험센터에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시설은 콘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식사도 직접 해 먹을 수 있다. 백사마을은 개인 민박이나 식당이 없으므로 체험 후 백사마을에서 1박을 하고 싶다면 체험과 함께 숙소도 예약하자. 식당과 조리장은 숙소가 아니라 바로 옆 건물에 있다. 10인용 방 4개, 4인 기준 평일

5만 원, 주말과 성수기 6만 원.

#### 먹을거리

식사는 직접 해 먹을 수 있다. 찾아주는 관광객들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텃밭에 심은 상추나 각종 채소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하면서 캔 바지락, 꼬막, 은어로 근사한 저녁 식탁을 차려보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직접 취사가 불가능하면 여항이 있는 마량항이나 강진군 근처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 특산물

**자연산 돌굴** : 예로부터 천연 정력제로 명성이 높은 굴은 여패류 가운데 미세랄과 아연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피부에도 좋고 빈혈을 예방하며, 칼슘이 쇠고기보다 8배나 많아 골다공증을 막아준다고 하니 명약이 따로 없다. 백사마을의 돌굴은 특히 상품이 좋아 가격과 영양, 맛을 모두 만족시킨다. 직거래하고 있으므로 전화로 주문하면 된다.

**구매 문의** 061-433-2040



# 여기저기 강진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백사마을 → 마량항 → 고금대교 → 청자박물관과 청자도요 → 봉황옹기 → 강진읍내 점심(한정식) → 사의재 → 영랑시인 생가 → 백련사 → 다산초당 → 다산수련원과 유물관

**강진청자박물관** 1997년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청자박물관. 백사마을을 비롯한 대구면 일대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청자를 제작하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주변에 고려청자 도요가 여럿 있으며, 도자기를 판매한다.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17  
문의 061-430-3718



**다산초당**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을 보낸 곳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조선후기 실학서를 집대성한 곳이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 가는 숲길이 한적하고 아름답다.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8  
문의 061-430-3782

**백련사** 신라 초기에 세워진 백련사는 만덕리 주차장에서 동백림 오솔길을 따라 800m 지나면 있다. 대웅전, 시왕전, 만경루 등 유서 깊은 불사의 장소와 7000여 그루의 동백나무숲이 장관이다. 백련사 서쪽에 다산수련원과 유물관이 있다.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  
문의 061-432-0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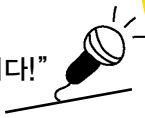


**사의재** 강진군청 옆에 있는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로 강진 유배 시 처음 묵었던 곳이다. 사의재는 '네 가치를 올바르게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생각, 용모, 언어와 행동을 올바르게 하려는 다산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95  
문의 061-433-3223

#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해양소설의 주인공을 꿈꾸다

“아아~ 수문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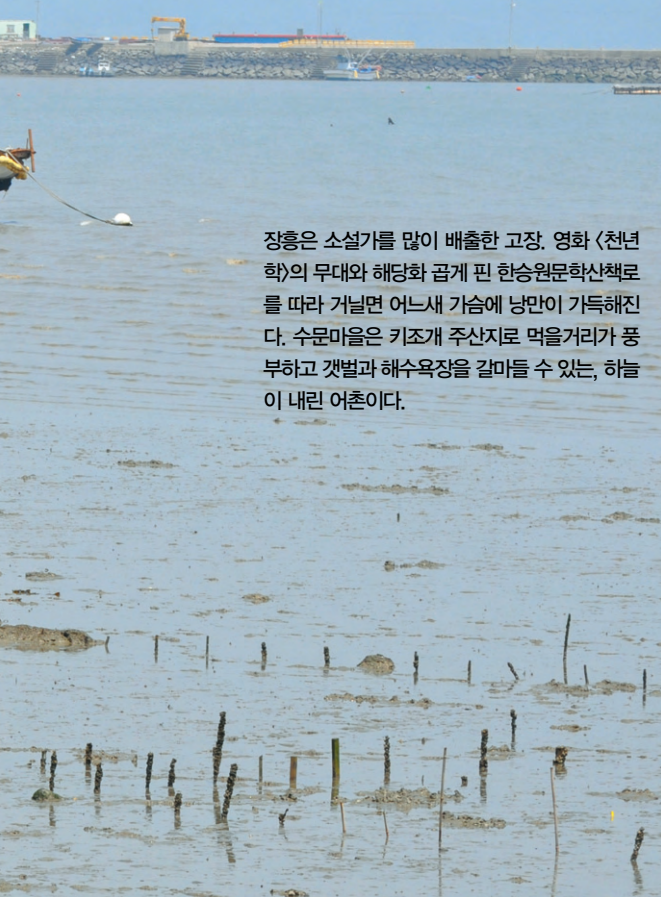


다른 어촌체험마을도 바다와 갯벌은 있겠지만, 우리 장흥 수문마을은 갯벌과 해수욕장이 함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요. 갯벌체험 하다 지치면 해수욕하면 되고, 반대로 해수욕하다가 갯벌로 가바지락을 캐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유명한 소록도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소록도에 감금되어 있던 한센인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여기 수문마을까지 건너왔답니다. 붙잡힐까 두려웠던 그는 해수욕장의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숨었는데, 며칠 만에 한센병이 싹 나았다고 뭐예요. 본의 아니게 모래찜질한 게 큰 도움이 된 거지요. 그만큼 수문해수욕장의 모래찜질이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수문마을은 장흥뿐 아니라 전국에 키조개마을로 유명합니다. 요즘 장흥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장흥삼합'은 장흥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말하는데, 그중 키조개 주산지가 우리 마을입니다.



매년 5월 초, 제암산에 철쭉꽃이 만발할 때 수문마을에서는 키조개축제가 열립니다. 거의 7~8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158명의 어촌계원이 꾸려가는 마을의 축제치고는 대단한 일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장흥은 소설가를 많이 배출한 고장. 영화 <천년학>의 무대와 해당화 곱게 핀 한승원문학산책로를 따라 거닐면 어느새 가슴에 낭만이 가득해진다. 수문마을은 키조개 주산지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갯벌과 해수욕장을 갈마들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여촌이다.



### >> 교통안내

 호남고속도로 광산C → 화순(29번 국도) → 23번 국도(장흥) → 수문어촌체험마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장흥버스터미널까지 하루 6회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탄다. 첫차 8:00, 막차 16:50. 장흥버스터미널에서 수문마을로 떠나는 군내버스는 하루 13회 운행한다. 첫차 6:10, 막차 20:00.  
**문의 장흥버스터미널 061-863-9036**

약 10만 마리의 감성돔 치어를 바다에 방생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성어가 돼 다시 이 아름다운 득량만에 다시 돌아올 날을 기원하며 치어를 방류하는 모습은 흐뭇한 풍경이지요.

이를 계기로 해서 2011년부터는 해수욕장 가족운동회나 키조개를 까서 그 껍데기로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할 작정입니다. 그동안 바지락 갯벌체험 외에 이렇다 할 게 없었거든요. 더불어 소설가 한승원문학산책로나 종려나무거리 등을 조성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해변의 낭만과 먹을거리 풍성한 우리 수문마을에 들르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슴 벅찬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Mini Interview

### 동혜순 사무장

우리 수문마을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더불어 낭만 가득한 마을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화 곱게 핀 한승원문학산책로나 다른 마을과 힘을 합쳐 약 11km에 이르는 종려나무거리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지요. 해변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 문학책 한 권 읽는 여유 있는 마을, 멋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수문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키조개 맛보기체험, 치어방류체험, 바지락캐기 체험, 갯벌체험, 갯잔디체험

**여름** 해수욕장 가족운동회, 바지락캐기체험, 갯벌체험, 갯잔디체험

**가을** 바지락캐기체험, 갯벌체험, 갯잔디체험

**겨울** 키조개까기체험, 키조개 껍질공예체험, 갯벌체험, 갯잔디체험

### 이용 요금

갯벌체험 비용은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호미, 장화, 바구니, 장갑 등 필요한 제반 장비 모두 제공.

### 문의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인양면 수문리 189

전화 010-7248-1655

홈페이지 <http://sumun.seantour.org>



### 1 치어방류체험

어린 생명을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일! 수문마을에서는 매년 어린 감성돔 새끼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치어방류를 체험객들과 함께한다. 감성돔은 고급횡감에 속하는 어종이라 새끼 한 마리, 한 마리가 고귀하다. 그들이 광활한 바다를 누비다가 수문마을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약 1시간 소요. 체험은 5월 축제 때만.



### 2 키조개 맛보기체험

수문마을은 장흥뿐 아니라 전국에 키조개 주산지로 유명하다. 매년 5월 초 성대한 키조개축제를 열어 마을을 찾는 손님들에게 키조개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쫄득하고 말랑한 키조개는 회, 구이, 볶음 등 갖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다. 장흥한우, 장흥표고버섯과 더불어 '장흥삼합'의 3대 명물로도 통한다. 약 1시간 소요.





### 3 바지락캐기체험

‘당연히’ 갯벌체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바지락캐기체험도 진행한다. 갯벌 곳곳에 숨어 사는 바지락을 캐면 소풍 때 보물을 찾은 것처럼 짜릿하다. 하지만 너무 작은 바지락을 캐는 것은 금물!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량만 캐는 것도 상식일 터이다. 캐낸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끓여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약 2시간 소요.



### 4 해수욕장 가족운동회

득량만의 푸른 바다, 머리칼에 찰랑이는 바닷바람, 그리고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얀 백사장! 장흥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 모래밭에서 온 가족이 모여 운동회를 해본다. 조금은 어설피더라도 자연과 함께 하는 맛만 즐기면 된다. 운동 후 지친 몸은 마을에서 배려해놓은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 회복한다. 약 2시간 소요.



### 5 갯벌체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잘 발달된 곳이다.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엔 수많은 미생물과 이들을 먹고사는 어패류가 살고 있다. 또한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인간에게도 이익을 준다. 갯벌에 사는 많은 생물과 하나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깊은 체험이다. 약 2시간 소요.



#### Tip 회진항과 노력항

“내가/회진항의 허름한 다방을 좋아하는 건/잡아당기면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나는/…/허름한 바다와 하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남의 시 ‘회진항에는 허름한 하늘이 있다’의 한 대목이다. 득량만 서쪽입구에 있는 노력도 안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회진항은 소설가 이청준과 한승원의 고향바다이기도 하다. 이곳에 가면 푸른 바다와 파란 인심을 만날 수 있다. 회진항 이웃에 있는 노력항에서 제주도까지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문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짐자리



수문마을 내에는 해수욕장민박촌이 있어 어디를 가나 편한히 묵을 수 있다. 값도 싸지만 대부분 해변에 있어 정취가 뛰어나다. 특히 갯마을민박(061-863-1111)이나 정남진민박(061-862-6700)은 2층에 객실을 뒤 바다경치를 조망하기에 그만이다. 조금 규모 있는 숙박처를 원한다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옥섬워터파크(061-862-2100)를 권한다. 파크 내에 물놀이시설이 잘되어 있어 온 가족이 물놀이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 먹을거리

특량만은 펴이 길고 수심이 완만해 키조개를 양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수문마을은 전국 키조개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여서 '키조개마을'로도 불린다. 키조개요리와 장흥산 표고버섯, 장흥한우를 함께 싸 먹는 '장흥삼합'을 주로 요리하는 곳이 수문마을에 많다. 이 중 섬이보인대(061-862-8969), 바다하우스(061-862-1021), 갯마을(061-862-1203)을 찾을 만하다.



#### 특산물

**키조개** : 장흥의 특산물은 역시 키조개다. 수문마을은 1987년부터 키조개 이식에 눈을 떠 지금은 전국 최대 생산지가 되었다. 키조개 이식은 어린 종패를 공기량 많은 모래에 심었다가 성패가 되었을 때 영양 풍부한 펴에 옮겨 심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7년 걸려야 수확 가능한 키조개를 2~3년 만에 식단에 올릴 수 있다. 부위별로 버릴 게 거의 없어 고급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 여기저기 장흥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수문마을 → 정남진기념탑 → 천관산 → 천관산문학공원 → 회진항 → 회진항에서 점심(횃집) → 정남진 장흥도요 시장 → 탐진강변 산책 → 억불산천문과학관 → 억불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전망대**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사람 흔적 거의 없는 적요한 바닷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동진을 벤치마킹하면서 장흥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정남진전망대를 땅끝동산에 돋보이게 건설 중이다.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산61  
문의 장흥군청 061-860-0224



**해양낚시공원** 2008년 10월 바다낚시의 명소인 회진면 대리에 개장한 전국 최초의 바다낚시 휴양시설이다. 낚시교와 부교식낚시터, 육상낚시터, 콘도식낚시터 및 파고라,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감성돔 낚시포인트.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 115-12  
문의 061-867-0555

**천관산문학공원** 소설가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아동문학가 김녹촌 등 장흥이 배출한 문학계 거성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천관산기슭에 조성됐다.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0  
문의 061-860-0457



**정남진 장흥도요시장** 장흥삼합을 비롯한 한우 전문음식점들이 즐비하며, 지역 농어민이 기른 채소와 과일, 어류 등을 직접 갖고 나와 5일장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믿고 살 수 있도록 판매자실명제를 도입했다.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58-1  
문의 061-860-0741

# 바다와 물을 잇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재미있게~



“아아~ 안남마을입니다!”



안남어촌체험마을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시골마을입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이 고향처럼 푸근해 하시지요. 유려한 곡선을 가진 해안선과 넓은 바다, 가까이 또는 멀리 떠 있는 섬들과 그리 높지 않은 고만고만한 산들이 우리 마을의 풍경입니다.

우리 마을은 신기거북이마을로도 불립니다. 마을모양이 거북을 닮았다 해서 고려 말 무렵부터 귀형촌(龜形村)으로 불리다가 조선 말에는 새로 잡은 터가 큰 촌락을 이루면서 새신(新), 터 기(基)를 써서 신기거북이마을로 굳어진 거지요. 거북은 장수, 부지런함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비한 동물이고, <별주부전>에서는 바다와 물을 이어주는 의미도 있어 저


희 마을이름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로 시티, 슬로 푸드가 대세인 요즘 콘셉트와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안남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농촌체험, 바다체험, 학습체험, 민속체험의 4개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4가구, 200여 명의 마을사람들이 살면서 실제 생활하는 것들을 대부분 함께 체험할 수 있지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뿔배타기’입니다. 뿔을 이동하며 꼬막과 바지


나로우주센터로 유명해진 전남 고흥반도 초입, 득량만에 자리잡은 안남마을은 초봄의 햇볕처럼 아주 보드라운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넓은 갯벌과 나지막한 초록의 산, 섬이 점점이 떠 있는 비취빛 바다, 그리고 인심 좋은 마을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고흥 같은 곳이다.



### >> 교통안내

 호남고속도로 주암IC → 벌교 → 대서 → 안남마을

남해고속도로 순천IC → 벌교 → 대서 → 안남마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40분 간격으로 순천행 버스를 운행한다. 첫차는 6시 10분, 막차는 24시.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는 하루 6회 운행하며 첫차는 8시 10분, 소요시간은 4시간 30분.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벌교 간 직행버스를 탄 후 벌교버스터미널에서 신기행 버스(2시간 간격, 첫차 7시 10분)를 타고 신기거북마을(안남마을) 하차.

문의 벌교버스터미널 061-857-2149

고흥여객 061-834-3641

락을 캐내려면 빠른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생긴 게 ‘빨배’ 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배를 타면서 어민의 수고로움과 재미를 함께 느껴보세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인 고흥의 특성을 살려 물로켓 발사체험, 별자리 관측체험, 지층단층 학습체험 같은 과학체험도 있습니다. 마을 해안 절벽에 지구의 생성시기에 함께 만들어진 지층대가 또렷이 남아 있거든요.

최근에는 마을 한쪽에 한옥 10채를 지어, 오시는 손님들이 전통가옥에서 하룻밤 편안히 묵어 가실 수 있게 준비한 것도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맛있는 시골밥상도 맛보시면 좋겠고요. 자연이 풀어놓은 고흥 같은 안남마을, 우리의 소박한 정이 담뽕 담긴 1박2일을 느껴보세요.

### Mini Interview

### 박연수 사무장

우리 마을과 도회지분들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가 시작된 2006년부터입니다. 처음엔 어



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마을주민 모두가 힘심해서 오시는 분들을 편안히 모시고 있지요.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고, 한옥민박시설도 갖춰놓았습니다. 1박2일 동안 고흥처럼 편안히 즐기다 가실 수 있게 최대한 배려했으니 꼭 한번 놀러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안남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뽕배타기, 개막이체험, 바지락캐기, 몰로켓 제작 및 발사, 완두콩따기, 전통두부 만들기, 지층단층 학습체험, 별자리 천체관측, 트랙터 열차타기

**여름** 뽕배타기, 개막이체험, 바지락캐기, 몰로켓 제작 및 발사, 전통두부 만들기, 지층단층 학습체험, 별자리 천체관측, 트랙터 열차타기

**가을** 뽕배타기, 개막이체험, 바지락캐기, 몰로켓 제작 및 발사, 호박고구마 캐기, 전통두부 만들기, 지층단층 학습체험, 별자리 천체관측, 트랙터 열차타기

**겨울** 바지락캐기, 몰로켓 제작 및 발사, 전통두부 만들기, 지층단층 학습체험, 별자리 천체관측, 트랙터 열차타기

## 이용 요금

개막이 체험, 전통두부 만들기, 호박고구마 캐기, 완두콩 따기 체험은 1만 원이고 뽕배타기, 바지락캐기, 몰로켓 제작 및 발사는 5000원이다. 별자리 천체관측과 지층 단층 학습체험은 3000원이며 트랙터 열차타기는 2000원이다.

## 문의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전화 061-834-1546 / 070-7768-1545  
홈페이지 <http://annam.seantour.org>



### 1 바지락캐기체험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해역 득량만에 위치한 안남마을은 깨끗하고 넓은 갯벌을 자랑한다. 청정갯벌을 누비며 바지락을 캐는 것은 농칠 수 없는 즐거움. 보물찾기 같은 짜릿함은 물론이고 갯벌의 소중한도 배워볼 수 있다.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2 뽕배타기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신나게 달릴 수 있다! 그저 널빤지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뽕배 덕분에 바지락 캐기가 한층 수월하다. 잡은 바지락은 뽕배 짐칸으로 쏙~. 우리네 어머니들은 이 뽕배 하나로 바지락을 캐서 자식들을 다 키위 대처로 내보냈다. 그 수고로움을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듯. 약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2



3



### 3 개막이체험

개막이는 초석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전통어업방식이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갯벌에 그물을 쳐놓으면 물이 나갈 때 들어왔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린다. 안남마을 앞 바다엔 송어는 물론이고, 전어, 가자미 등 어종이 다양해 잡는 재미가 배가된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4 물로켓 제작 및 발사체험

우주항공센터가 있는 고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고장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를 살려 물로켓을 직접 제작해 발사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이다. 먹고 즐기는 체험만이 아닌 과학과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안남마을이 유일하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5 전통두부 만들기체험

반농반어지역인 안남마을에선 유기농콩을 많이 심는다. 두부는 고기보다 훨씬 영양이 있는 웰빙식품. 직접 맷돌에 콩을 갈아 끓이고 응고시킨 두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다시피 한다.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안남마을 산그늘에서 먹는 손두부 맛은 도시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6 지층단층 학습체험

안남마을 바닷가의 절벽엔 지구의 생성 역사를 오롯이 관찰할 수 있는 지층대가 발달해 있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어준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안남마을에서 만끽해보자. 약 2시간 소요, 1인당 3000원.



### Tip 녹동항

고흥에서 유명한 항구는 해상교통 요충지인 녹동항이다. 소록도로 가는 연륙교가 여기 놓여 있고, 인근의 거금도, 시산도는 물론 멀리 제주도 가는 배까지 여서 뜬다. 또한 녹동항은 남해안의 수산물 집결지이기도 하다. 녹동 앞바다에는 물고기의 먹이인 갯지렁이, 새우,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 물고기가 풍부하다. 이 밖에 삼치로 유명한 나로도항과 바다를 끼고 달리는 77번 국도 중간쯤에 있는 풍남항도 가볼 만하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남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잡자리



오랫동안 손님들을 받아와서 마을주민의 민박집은 깨끗하고 대부분 현대식시설이 갖춰져있다. 이 중 송성모 씨댁(061-833-3395)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동네 옆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10채를 더 늘렸다. 단아한 처마 밑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풍경이 좋다. 한옥민박 중예선 송정준 씨댁(061-833-3404)을 추천한다. 단체가 합숙할 수 있는 거북이체험관(061-834-1546)도 있다.

#### 먹을거리

마을 안에 따로 먹을 음식점은 없다. 정녕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웰빙시골밥상을 권한다. 6000원 이란 비용이 아깝지 않다. 직접 가꾼 채소와 어물로 만든 반찬이 입에 딱 붙는다. 그야말로 어릴 적 고향집에서 먹었던 '엄마의 밥상' 처럼 느껴져서다. 안남마을 들어가기 전이나 나와서 먹을 곳을 찾다면 대서면의 보성장어집(061-833-9811)을 들를 만하다.



#### 특산물

**붕장어** : 고흥 청정해역에서 사철 잡히는 붕장어는 영양가 높고 가격은 저렴하다. 싱싱한 붕장어를 숯불에 구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가득해진다. 녹동항에 가면 붕장어 요리 전문점이 많은데, 이 중 특량식당(061-842-2082)을 권할 만하다. 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이 월등히 좋은 참장어도 고흥이 독보적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 여기저기 고흥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안남마을 → 수문동나루터 → 두원면 → 고흥만 인공습지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 녹동항 → 녹동항에서 점심 (횃집, 한정식) → 소록도 → 나로우주센터 → 팔영산 → 동강민속체험관

**팔영산** 고흥십경 중 으뜸! 해발 608m의 팔영산은 기암괴석이 병풍 처럼 펼쳐진 8개의 암봉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광이 기막히고, 장엄한 일출이 압권이다. 천연림 속에 8개의 객실이 행복하게 웅크리고 있는 휴양림(061-830-5430)에서 숙박한 후 능가사(061-832-8090)를 거닐 만하다.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문의** 061-830-5430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장간산 정상에 있는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천문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800mm 주망원경을 비롯해 6개의 보조망원경과 60석 규모의 천체투영실, 야외전망대 등의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장계산 선암길 353

**문의** 061-830-6690

**소록도**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소록도는 아주 평온하고 예쁜 섬이다. 일제시대에는 한센병환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노역시킨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소록대교가 개통되어 자동차와 사람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다.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

**문의** 061-830-5224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우주의 기본원리,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를 테마로 한 상설전시관을 비롯, 기획전시실, 3D 입체영상관, 4D 돔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의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제격이다.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

**문의** 061-830-8700

# 평화로운 다도해,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에서 어촌체험!



“아아~ 안도마을입니다!”



안도마을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에 있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오시면 입구에서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이라는 머릿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마을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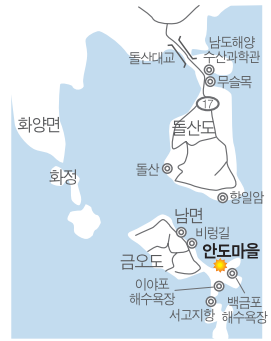
먼저 우리 마을의 주택이 자리한 모습을 내려다보면 한반도의 모형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섬 안쪽으로는 마치 호수가 자리한 것처럼 보이는 두명안(안도항)이 있는데 이곳은 ‘바다의 호수’라는 애칭을 가진 천혜의 항입니다. 오래전에는 해적들의 본거지로 이용될 만큼 천연요새였다고 하네요. 태풍이 오면 이웃섬 배들까지 대피할 수 있는 피항지가 됩니다. 다도해역에 속한 마을인 만큼 섬에서 바라보는 풍광 역시 빠

지지 않겠지요. 마을주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상산동 탐방로를 걷다 보면 안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 동백나무, 소나무 등의 군락지가 있어 마치 열대우림을 연상케 하는 곳도 있답니다. 또 동고지의 산책길은 상록수터널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지요.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하나의 섬처럼 이어져 있는 금오도의 비렁(벼랑)길까지 걸으면 남도를 모두 본 듯한 느낌이 들지







다도해는 말만 들어도 아름다움이 그려진다. 다도해를 뒀바다로 둔 안도마을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마을의 형태까지 한반도 모양이라니. 신의 의도인지, 사람의 의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 >> 교통안내

 남해고속도로 순천C → 여수 17번 국도 → 여수시외버스터미널 → 여수여객선터미널 → 여객선(금호페리호) → 안도어촌체험마을 남해고속도로 순천C → 여수 17번 국도 → 돌산대교 → 돌산읍 신복리 1113 → 여객선(한림페리호) → 금오도 → 안도대교 → 안도어촌체험마을(여안초등학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06:00부터 40~5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여수행 고속버스를 타면 4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동서울터미널에서는 4시간 50분 정도 소요. 여수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육교를 건너 시내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교통 여객선터미널에 내린다.

문의 여수시외버스터미널 061-652-1877  
여수여객터미널 061-663-0117

도 모를 일입니다.

금오도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을 때 발견된 신석기유적은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섬에서 신석기유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6천여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던 섬, 안도에서의 체험여행은 어떨까요? 낚시체험, 정치망체험과 함께, 안도에서는 해녀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촌체험마을이 있지만 해녀들의 물질을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지요. 바다가 주는 선물인 여러 가지 해산물을 맛보고 다도해도 둘러보고, 낚시도 하는 1박2일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말 그대로 '즐길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 Mini Interview

### 김대준 어촌계장

호수를 안고 있는 다도해의 섬마을, 안도는 예로부터 긴급재난 시 피항지로 이용될 정도로 안전한 곳입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동백나무 등의 상록수 군락지, 풍부한 수산자원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안도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체험여행을 약속합니다. 단, 여러분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는 양심을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안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b>봄</b>	갯바위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좌대낙시체험, 정치망체험, 해녀들과 함께 하는 체험, 섬돌이체험, 슬로푸드체험(고급형), 동고지일출체험
<b>여름</b>	갯바위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좌대낙시체험, 정치망체험, 해녀들과 함께 하는 체험, 섬돌이체험, 슬로푸드체험(고급형), 동고지일출체험
<b>가을</b>	갯바위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좌대낙시체험, 정치망체험, 해녀들과 함께 하는 체험, 섬돌이체험, 슬로푸드체험(고급형), 동고지일출체험
<b>겨울</b>	갯바위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좌대낙시체험, 정치망체험, 해녀들과 함께 하는 체험, 섬돌이체험, 슬로푸드체험(고급형), 동고지일출체험

## 이용 요금

체험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이 각각 책정되어 있지만 1박 2일 패키지는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다. 또 배를 타고 나가는 프로그램도 참여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오키체험은 봄, 가을에 특히 체험하기 좋고, 겨울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 888  
 전화 061-665-9340  
 홈페이지 <http://ando.seantour.org>

### 1 낙시체험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낙시할 수 있는 좌대낙시는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갯바위낙시나 선상낙시는 다소의 기술이 요구된다. 갯바위낙시는 낙시꾼들이 좋아하는 체험 중 하나. 배를 타고 무인도 등 갯바위까지 이동한다. 약 3시간 소요.

**좌대낙시** 1인당 1만 원 미끼본인 준비, 낚시대 대여 가능  
**갯바위낙시** 1인당 2만 원

**선상낙시** 오전 25만 원(4~6시간)

오후 포함 45만 원(14인 기준, 추가인원 협의)



### 2 정치망체험

선상낙시와 병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배를 타고 어장으로 가서 정치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이 있다. 날씨가 시기별로 다르지만 삼치, 병어, 갈치, 전갱이, 고등어 등 다양한 횡감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할 수도 있다. 선상에서 갯 잡아 회로 먹어보면 시내에서 회 먹기가 힘들다고 한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1만5000원.





### 3 섬돌이체험

장엄한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금오도 비렁길과 연도, 안도의 해변을 배를 타고 이동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 다도해의 축소판인 금오열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곳곳의 비경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10인 기준 13만 원, 추가인원 협의.



### 4 슬로푸드체험

정치망, 각망, 잠수체험(해녀들이 전복, 소라, 해삼, 멍게 등을 직접 채취하여 시식), 낚시체험(선상, 좌대, 갯바위), 루어낚시, 섬돌이체험, 보트 타고 무인도 돌기, 야간갯놀이 중 원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1박2일 종합바다체험이다. 단체가 예약할 수 있으며 숙박, 식사,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용은 프로그램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 5 동고지일출체험

바다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언제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힘이 있다. 동고지일출체험은 매년 1월 1일 청장년회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생선구이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푸짐한 잔치상과 다양한 기념상품도 주어지는 대박 공짜 체험이다. 약 2시간 소요.

### 6 고동체험

고동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은 물론 무기질도 풍부한 바다의 보물이다. 안도마을에선 너른 갯벌에서 직접 고동을 잡아 가져갈 수 있다. 어른 1만원, 어린이 5000원.



### Tip 돌산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돌산도에 있는 어항이다. 돌산도는 바다를 감싸 안은 지형으로 여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상악화 시 어선의 대피항으로 이용되어왔다. 여수 앞바다의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드나든다. 인근에 향일암과 금오도가 위치해 풍광이 아름답다.




Tip 여기도 가볼까



**금오도 비렁길** : 제주도 올레길을 시발단으로 지리산 돌레길 등 전국에 '걷기여행 코스'가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금오도의 비렁길은 바람의 남도사투리인 '비렁'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에 면한 섬의 절벽 위로 걷기 코스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완만한 코스가 대부분이고 다소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가드가 잘 설치되어 있다. 전망이 우수한 지점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전망데크까지 설치되어 있다. 해안뿐 아니라 마을 곳곳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금오도의 생태와 풍습까지도 알 수 있다.

선착장이 있는 함구미에서 우학선착장까지 총 12km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직포까지 코스는 8.5km, 약 3시간 30분 소요. 짧은 코스를 원한다면 초포에서 함구미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추천한다. 1시간 30분 소요. 여천에서 함구미로 이어지는 코스는 대부산에 오르는 등산이 포함돼 다소 힘든 코스다.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소요. 배시간을 확인해 차를 미리 선착장에 가져다두고, 원하는 비렁길 출발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된다. 금오도에는 2대의 택시가 운행 중. 자주 오지는 않지만 버스도 운행한다. 남면택시 011-608-2651, 061-666-2651~2 / 남면버스 011-616-9544

문의 남면사무소 061-690-2605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도마을 요모조모 

자고 먹고!

 잠자리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이 있는데, 해변민박은 언덕에 위치해 전망이 좋고, 정원과 2층 테라스가 있다. 정원에는 텐트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안도모텔민박(061-665-3369)은 옆에 노래방이 있으며, 취사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먹을거리

대부분의 음식점은 숙박업소와 겸하고 있다. 백송민박식당(061-665-9391), 황금민박(061-665-9489), 일번지민박(061-665-9424), 해변민박(061-665-9342). 마을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안도리어촌계(061-665-9340)에서는 자연산 해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산물

**돌멍게** : 여수 안도마을의 특산물은 양식이 아닌 자연산 전복과 자연산 돌멍게, 자연산 해삼이다. 그중에서도 돌멍게는 겉표면에 해초와 돌조각 같은 것이 잔뜩 붙어 있어 마치 돌처럼 보인다. 돌멍게는 멍게 특유의 향이 진하고 덜 쓰고 덜 달며 다량의 칼슘과 인을 함유하고 있다. 멍게 껍질을 반으로 쪼개 소주를 부어 마시면 그 맛이 독특하다.





# 여기저기 여수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안도마을 → 백금포해수욕장 → 이아포 몽돌밭 → 서고지항 → 금오도 비렁길 → 향일암 → 향일암 앞에서 점심(횃집) → 돌산항 → 무슬목유원지 → 남도해양수산과학관 → 돌산대교

**백금포해수욕장** 일명 안도해수욕장. 백금포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로 유명한 곳이다. 물이 맑아 수경을 준비하면 각 시고등도 잡을 수 있다.

**위치**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안도리 855

**문의** 안도출장소 061-690-2632



**이아포 몽돌밭** 안도해수욕장에서 여객선터미널 방향으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아포 몽돌해수욕장이 있다. 개장 이래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안도대교로 이어지는 안도해변길을 따라 금오도로 갈 수 있다.

**위치**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안도리

**문의** 안도출장소 016-690-2632

**향일암**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 '해를 향하여 있다, 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금오산 향일암(向日庵)은 신라 선덕여왕 8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다른 해안사찰에 비해 해수관음상이 소박하지만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일출도 유명하다.

**위치** 전라남도 여주시 돌산읍 울림리 산 7

**문의** 061-644-4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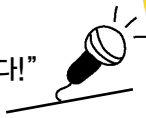
**무슬목유원지** 정유재란 때 이순신장군이 왜군을 섬멸한 전승지다. 해돋이 장소로 유명하다. 해송숲과 700m 길이의 몽돌해변이 유명하다. 해변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위치** 전라남도 여주시 돌산읍 평사리 1271-3

**문의** 여주시 문화관광과 061-690-2036

# 수중세계로의 신비한 여행과 블루로드 트레킹

“아아~ 대진1리입니다!”



우리 마을 앞바다는 예부터 바닷물이 아주 맑기로 유명합니다. 마을 뒷산인 상대산이 고기떼를 관찰하는 ‘뽕어대’라 불릴 정도였지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목은 이색은 이곳을 즐겨 찾으며 ‘뽕어대부’란 시를 남기기도 했답니다.

대진1리는 맑은 바다 덕분에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손꼽히는 마을입니다. 바닷속에는 물고기, 형형색색의 자연암초뿐만 아니라 대게조형물과 페어션 등으로 아름다운 해저공원이 꾸며져 있지요. 도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스킨스쿠버는 잠깐의 강습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객들에게는 수중

카메라를 이용, 물고기와 어울려 노는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체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바다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스킨스쿠버를 체험해볼 수 있답니다.

또 무릎 정도 깊이의 해안에서는 사시사철 백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래를 발로 비비면 백합이 올라오지요. 멍게어장체험도 인기가 많습니니다. 배를 타고 나가 멍게양식장을 견학하고 직접 채취, 시식도 할 수 있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양초는 우리나라 최고의 바닷속 비경으로 스낵스쿠버를 즐기기에 안성맞춤. 명사20리 해변과 해송림은 바다여행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 >> 교통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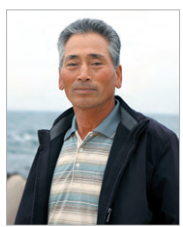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34번 국도 안동 방면) → 안동 → 진보(31번 국도) → 영양(918번 지방도) → 영해 → 대진해수욕장  
 경부고속도로 경주IC → 경주(7번 국도) → 영덕 → 영해(우회전) → 대진해수욕장  
 동서울터미널에서 영덕행 고속버스가 07:00부터 18:30까지 하루 9회 운행한다. 4시간 20분 소요. 영덕터미널에서 영해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버스가 06:30~20:58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15분 소요. 영해버스정류장에서 다시 대진 방면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07:00 ~ 19:00 하루 10회 운행. 10분 소요. 문의 영덕터미널 054-732-7673 / 영해 버스정류장 054-732-1564

습니다. 방금 따낸 싱싱한 멍게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결코 잊을 수 없지요.

선상낚시나 갯바위낚시 체험은 손맛도 손맛이지만 탁 트인 넓은 동해가 주는 상쾌함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낚시도구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결정만 내리면,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포인트로 안내해드립니다. 즉석에서 회와 매운탕도 맛볼 수 있지요. 낚시가 개인의 체험이라면 전통어법인 후릿그물체험은 단체체험으로 협동심을 기르기에 좋은 체험입니다. '영차영차' 힘을 합쳐 그물을 당기다 보면 어느새 고기가 가득, 이제 바구니에 고기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도 한 바구니, 정도 한 바구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체험이 아닐까요.

### Mini Interview 김태산 어촌계장

예로부터 물 맑기로 이름난 우리 마을은 하얀 해변과 우거진 해송림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해양레포츠의 꽃인 스낵스쿠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낚시, 백합줍기, 멍게채취로 하루해가 짧기만 한 대진리로 놀러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대진리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스킨스쿠버체험, 멍게어장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바위낚시체험

**여름** 스킨스쿠버체험, 멍게어장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바위낚시체험, 백합줍기체험, 해수욕체험

**가을** 스킨스쿠버체험, 멍게어장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바위낚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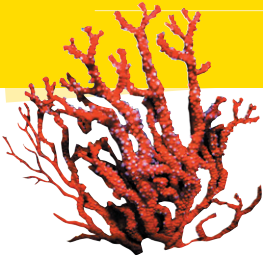
**겨울** 스킨스쿠버체험, 멍게어장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바위낚시체험

## 이용 요금

스킨스쿠버체험은 12만 원(장비, 강습비, 입장료, 수중 기념사진 촬영 포함), 풀장체험은 8만 원(장비, 강습비, 입장료 포함), 멍게어장 체험비는 1만 원, 선상낚시 체험비는 1인 3만 원, 후릿그물 체험비는 20인 이상 20만 원, 30인 이상 30만 원이다.

## 문의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전화 054-734-1018 / 010-9882-8253  
홈페이지 <http://daejin1.seantour.org>



### 1 스킨스쿠버체험

맑은 물 속 물고기들이 흰히 보이는 곳, 아름다운 암초와 어울리는 해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초보들도 잠깐의 강습으로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해양레포츠이다. 수중기념촬영까지 찰칵. 바다가 아직 두렵다면 풀장체험부터 도전해도 좋다. 장비도 대여하고 수중 기념사진 촬영도 해준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12만 원.



1

### 2 멍게어장체험

배를 타고 멍게양식장으로 가서 직접 멍게도 채취하고 즉석에서 싱싱한 멍게도 맛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이다.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겨울철에는 멍게씨앗감기, 바다에 넣기 체험으로 대체된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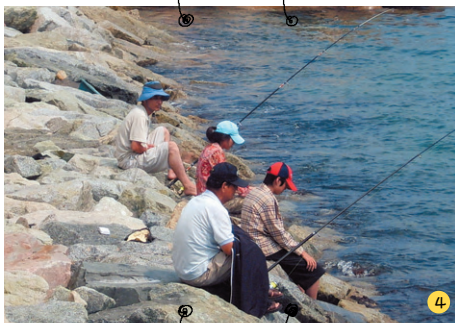
2





### 3 선상낚시체험

넓은 동해에서 느껴보는 짜릿한 손맛은 더 특별하다. 봄에는 도다리와 광어, 여름에는 노래미, 가을에는 오징어와 돔, 겨울에는 불락이 많이 잡힌다. 배 위에서 바로 먹는 자연산 회와 매운탕 맛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약 3시간 소요, 1인당 3만 원.



### 4 갯바위낚시체험

푸른 바다에 드리운 낚시줄은 고기만 낚는 게 아니다. 송어, 노래미뿐만 아니라 푸른 바다도 함께 낚아보자.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멋진 저녁상을 만들어보자. 그보다 더 맛있는 밥상이 있을까. 약 3시간 소요.



### 5 후릿그물체험

후릿그물은 전통어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기잡이 방법이다. 어선을 이용해 그물을 원형으로 바다에 펼치고 양쪽에서 그물을 당겨 고기를 잡는다. 대진해수욕장 앞에서 체험을 한다. 그물을 양쪽에서 일제히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협동심과 단결심을 기를 수 있다. 현장에서 잡은 고기는 체험객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20인 이상 20만 원, 30인 이상 30만 원.



### Tip 축산항

축산항은 영덕의 대표적인 어항이다. 대게원조미울인 차유미울이 바로 옆이라,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게위판항이다. 가지미, 문어도 풍성하며, 해풍으로 건조한 오징어는 짜지 않고 담백하다. 와우산이 북풍을 막고, 대소산이 서풍을, 죽도산이 남풍을 막아 천혜의 조건을 갖춘 대피항으로 이름이 높다.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축산리라 부른다. 해마다 6월이면 물가지미축제도 열린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대진1리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잡자리



펜션 좋은생각(010-7226-4564)은 원룸 형펜션으로 마을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작은 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2층 양옥이 제법 운치가 있다. 싱크대가 놓인 방과 화장실도 깔끔하다. 창을 열면 시원스레 동해가 펼쳐지고, 파도소리가 귓전에 드나든다. 그 외에 파도소리(054-733-5910), 동해가든(054-732-7800) 등이 비교적 넓고 깨끗하다. 마을에는 민박집이 여럿 있으며, 대부분의 횡

집은 민박을 겸하고 있다.

#### 먹을거리

마을과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해변화식당(054-732-0679)은 백합물회로 이름난 곳이다. 사철 잡히는 대진리의 백합 덕분에 언제든지 싱싱한 백합물회를 먹을 수 있다. 어머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 지금은 모자가 함께 운영 중이다. 자연산 회와 조개구이, 회비빔밥, 매운탕도 인기메뉴이다. 경복화식당(054-733-6278), 동아회수산(054-



733-2935)도 자연산 회와 전복죽, 물회 등이 맛있다.

#### 특산물

**돌미역** : 대진리에는 백합, 멧게 등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한 마을이지만 특히 돌미역을 최고의 특산품으로 손꼽는다. 바닷물이 맑아 예부터 고기떼를 관찰한 관여대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빼어난 청정해역 덕분에 미역의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적당한 해풍에 말려 꿀엿을 때 맛과 향도 뛰어나다.



추천 여행코스 : 대진마을 → 대진항 → 고시리전통마을 → 축산항과 죽도 → 축산항에서 점심(횃집) → 블루로드 → 경정해수욕장  
→ 햇맞이공원 → 풍력발전단지 → 강구항 → 경보화석박물관

**고시리전통마을과 목은 이색기념관** 고려시대 대학자인 목은 이색 출생지로 유명한 고시리전통마을은 200여 년 된 고옥이 고스란히 보존된 마을이다. 이색기념관에는 목은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와 목은의 영정, 목은의 한시, 목은집 등이 전시돼 있다.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고시리 265-7

문의 영해면사무소 054-730-7701



**경보화석박물관** 국내 최초의 화석박물관이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수집된 약 2500여 점의 화석들이 시대별, 지역별, 분류별 특징에 따라 전시되어 있다.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67-9

문의 054-732-8655

**영덕 블루로드** 영덕 강구면의 강구항을 출발하여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동해 최고의 비경을 간직한 해안도보길. 모두 3코스로 총 51km에 이른다. 계속 바다를 끼고 걷는 2코스가 가장 인기가 높다.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2코스 종착지)

문의 영덕군 문화관광과 054-730-6514

홈페이지 <http://blueroad.yd.go.kr>



**햇맞이공원** 해돋이를 관람할 수 있는 곳까지 1500여 개의 나무계단을 따라 걷다 보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창포말등대는 대게의 큰 집게다리가 붉은 해를 집어 올린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 모양만으로도 유명하다.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 26

문의 영덕군청 공원관리과 054-730-7022



금빛어촌마을과  
관동팔경의 멋을 즐기세요!

금빛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이 있는 구산해수욕장과 문어, 대게, 조개 등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 구산마을. 오감이 즐거운 체험여행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관동팔경은 예부터 그 아름다움이 유명합니다. 그중 월송정이 있는 구산마을은 금빛 모래와 울창한 송림을 간직한 구산해수욕장까지 있어, 여름이면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금빛 모래는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지요.

구산마을 앞바다는 수심이 얕아 아이들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맑아 조개가 많이 잡힙니다. 발로 작은 조개를 파헤치며 손으로 चु키만 하면 됩니다. 수심이 얕아서 오히려 아이들이 조개를 더 잘 잡습니다. 때로는 주먹보다 큰 조개도 잡히는데 그럴 때면 어른들이 더 신나서 환호성을 지르지요.

구산마을의 명물은 대게와 문어입니다. 문어는 1년에 10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지요. 문어가 가장 맛있는 수심이 50m라고 합니다. 수심이 깊지 않은 우리 마을 문어가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대게도 큰 배 없이 120~200m 수심에서 잡오기 때문에 찌지 않고 담백하며, 더 고소합니다.

위판장에서는 아침마다 문어와 대게 경매를 볼 수 있습니다. 암호 같은 분주한 손짓과 경매장면을 보는



### >> 교통안내

동해고속도로 동해C → 7번 국도 → 삼척 → 울진 → 기성면 → 구산어촌체험마을 (7번 국도 이용, 영덕 → 평해 → 기성면 → 구산리어촌체험마을)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 07:10 ~ 20:05 하루 18회 운행한다. 4시간 10분 소요. 울진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평해행 버스를 타고 구산리에 하차(1시간 10분 소요) 하면 된다.

문의 울진종합버스터미널 054-782-2971

것은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경매가 끝나면 눈앞에서 떠오르는 동해의 장엄한 일출이 펼쳐집니다.

문어를 잡는 문어통발체험도 참 재미있습니다. 통발 안에 먹이를 넣어 밤사이 바다에 가라앉혀 두면 문어들이 먹이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갇히게 됩니다. 다음 날 배를 타고 나가 통발을 건져 올려 문어를 꺼내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통발에는 문어만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어나 노래미, 게가 들어 있을 때도 있지요. 통발을 당길 때마다 어떤 녀석이 들어 있나 조마조마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통발체험의 매력입니다. 보고, 잡고, 먹고, 느끼고, 나누는 오감여행은 아름다운 어촌 풍경과 함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 Mini Interview

### 이만식 어촌계장

월송정과 울창한 송림 그리고 금빛 해변을 간직한 구산마을은 관동팔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 조개잡이가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통발체험과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낚시를 하는 창경발이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넣어 말린 미역으로 끓여낸 미역국은 온 가족의 사랑으로 차린 밥상이겠지요. 사랑의 추억 만들기가 있는 구산마을로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구산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통발체험, 조개잡이체험, 낚시체험, 창경밭이  
체험, 미역널기체험

**여름** 통발체험, 조개잡이체험, 낚시체험, 창경밭이  
체험, 성게알까기체험, 해수욕체험

**가을** 통발체험, 조개잡이체험, 낚시체험, 창경밭이  
체험

**겨울** 통발체험, 조개잡이체험, 낚시체험, 창경밭이  
체험

### 이용 요금

통발체험 5000원, 조개잡이체험 한 소쿠리 5000원,  
낚시체험 낚시대 대여비 1만 원, 미끼 2000원, 창경밭  
이체험 1만5000원, 미역널기체험 1kg 5000원.

### 문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100  
전화 054-788-5312  
홈페이지 <http://gusan.seantour.org>



### 1 통발체험

통발 안에 먹이를 넣어 밤사이 바다 밑에 가라앉혀 두면 각종 고기가 먹이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갇히게 된다. 배를 타고 나가 통발을 끌어 올려보자. 문어, 장어, 노래미 등 해산물이 올라올 때마다 환호성이 절로 나온다. 문어를 꼬집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장비보다 용감한 사람이다. 사전예약 필수. 약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2 조개잡이체험

수심이 얇고 물이 맑아 맛있는 조개가 지천이다. 발로 물속에 모래를 살살 비벼 보면 조개가 발에 닿는다. 손을 넣어 잡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금방 한 소쿠리가 가득 찬다. 잡은 조개로 조개탕도 끓여 먹고, 조개구이도 해 먹고, 조개무침도 만들어보자. 온 가족이 잡은 조개로 차린 저녁상은 정겨운 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소쿠리, 호미는 대여하므로 장갑과 편한 옷을 준비하자. 약 2시간 소요, 한 소쿠리 5000원.





3

### 3 낚시체험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동해를 향해 낚싯대를 던져보자. 노래미, 돔, 불락뿐만 아니라 바다도 통째로 건져낼 것이다. 짜릿한 손맛과 함께 싱싱한 회와 매운탕 맛은 기분 좋은 덤이다. 낚싯대는 1만 원에 그리고 미끼는 2000 원에 대여할 수 있다. 빈손, 빈 맘으로 가서 추억이라는 대어를 낚아보자. 약 3시간 소요.



4

### 4 창경발이체험

구산마을의 창경발이배는 맑고 맑은 바다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배 바닥에 유리창을 달아 낚시와 함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재미까지 있다.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바닷속까지 볼 수 있는 일거삼득의 체험이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과 암초에 붙어 있는 신비로운 해초들까지 지금까지 궁금했던 바닷속 모습을 요리조리 살펴보자.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5000원.



5

### 5 미역널기체험

봄은 구산마을의 또 다른 명물인 미역 철이다. 미역을 1kg씩 널어보자. 직접 말린 미역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가족 생일이 있는 날에는 특별히 직접 말린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내보자.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약 1시간 소요.



### Tip 구산항

구산항은 사철 문어잡이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항이며,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대게잡이도 울진군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또한 금빛 해변과 울창한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구산해변의 아름다움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물의 깊이가 얇고 완만하며, 배합을 건져 올리는 재미가 쏠쏠해 여름이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백암온천과 성류굴, 불영사가 가까우며, 월송정, 망양정 등도 관동팔경에 속해 명품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구산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어촌체험마을센터 2층은 펜션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싱크대 설비가 되어 있는 원룸형이며, 화장실 등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특히 센터 바로 앞에 동해가 펼쳐져 있어 풍광이 좋고, 창문만 열면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숙소이다. 숙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경매장이 있으니 새벽마다 열리는 경매도 놓치지 말고 구경하자. 부녀회장이 운영하는 민박(054-788-5312)과 산장모텔(054-788-3588)도 가족기

리 숙박하기에 적당하다.

#### 먹을거리

수협중앙인이 직접 운영하는 바다고기횃집(054-788-3905)은 자연산 활어회가 일품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몸소 느낄 수 있다. 맛도 맛있지만 양도 푸짐하다. 킁킁한 매운탕과 매콤달콤한 물회 맛도 일품. 넓은 실내는 단체손님도 문제없다. 그 외에 일미횃집(054-788-5551), 태평양횃집(054-788-5565) 모두 자연산 활어회의 싱싱한 맛을 보장한다. 체험하며 잡은 조개나



회로 직접 저녁을 해 먹으면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특산물

**대게 & 문어:** 구산마을의 대표 명물은 대게와 문어이다. 문어는 1년에 1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문어가 가장 맛있는 수심이 50m라는 조건이 구산마을과 딱 맞아떨어진다. 대게도 큰 배가 없어서 120~200m 수심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짜지 않고 담백하며, 더 고소한 것이 특징이다.





추천 여행코스 : 구산마을 → 월송정 → 구산해수욕장 → 구산항 → 사동항 → 해월헌 → 망양정 → 망양해수욕장에서 점심(횃집)  
→ 성류굴 → 민물고기생태체험관 → 불영계곡 → 불영사 → 불영폭포

**월송정**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은 '달빛이 어울리는 숲숲'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졌다. 신라 화랑들이 달, 바다, 송림과 더불어 풍류를 나누던 곳으로 일출의 명소이기도 하다.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62-2

문의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21



**해월헌** 광해군 때 이조참판을 지낸 해월 황여일의 별당인 해월헌은 500여 년 된 고택이다. 해월의 유품으로 보이는 서각·물통·화살·손가락·제기·청동등잔과 용도를 알 수 없는 녹각(鹿角) 3점 등의 유물과 교지 수십 점이 있다.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433

문의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21

**성류굴** 2억5000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인 성류굴은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아름다운 종유석들이 마치 금강산 같다 하여 지하금강이라고도 불린다. 총 길이는 870m.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30

문의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21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사라져가는 토종 민물고기 보전과 체험을 위해 2006년에 건립되었다. 119종 4400여 마리의 수중 생물이 주 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228

문의 054-783-9413



은빛 바다에서 멸치 낚고,  
폐교테마박물관에서 옛 추억 낚고

“아아~ 쌍근마을입니다!”



거제도 한려해상 국립공원 한가운데 자리잡은 쌍근마을은 때 묻지 않은 어촌 마을입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물과 병풍처럼 두른 그림 같은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촌마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우리 마을은 육지 쪽으로 동그랗게 파인 지형 때문에 마을 앞바다의 물살이 거센 편입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자란 덕분에 해산물 맛은 일품이지요. 특히 멸치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받는 일등멸치랍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 일등멸치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민들과 함께 정치망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당겨 올려 멸치를 잡습니다. '어기여차' 어부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

며 그물을 당기다 보면 파닥파닥 반짝이는 멸치떼가 그물 가득 올라오지요. '우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멸치를 가득 싣고 물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찌냅니다. 뽀얀 수증기 속에 구수한 멸치냄새가 진동하지요. 바로 찌낸 멸치 한 마리를 입에 쏙 넣어보면 싱싱한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찌낸 멸치를 건조기로 말려 포장하면 모든 공정은 끝이 납니다.

멸치잡기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닥파닥 은빛 멸치 잡아 올리고, 영차영차 후릿그물 당겨 보고, 통발 속의 꽃게 건져 내고, 노를 저어 낚시도 한다. 어느덧 한 바구니 건져 올린 건 푸른 바다.

50~100개의 통발을 줄줄이 끌어당겨 고기를 잡는 통발낚시도 재미있습니다. 통발 안에 먹이를 넣어 바닷속에 가라앉히면 먹이를 따라 들어갔던 해산물이 통발 안에 갇히게 되지요. 통발을 올릴 때마다 꽃게며, 낙지, 꼴뚜기들이 보입니다. 매번 어떤 것이 들어 있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큰 놈이 들어 있을 때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지요. 후릿그물체험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기에 그만인 체험입니다. '영차영차' 힘을 합쳐 그물을 당기다 보면 어느새 고기가 그득한 그물이 물에 올라옵니다. 그 외에 갯벌에서 바지락도 캐고, 선상낚시도 하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쌍근마을은 바다체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 >> 교통안내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 → 14번 국도 → 고성 → 통영 → 거제 → 쌍근어촌체험마을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주JCT → 35번 고속도로 → 동통영IC → 14번 국도 → 통영 → 거제 → 쌍근어촌체험마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까지 06:40 ~ 24:00, 40분 간격, 하루 34회 운행한다. 4시간 40분 정도 소요. 바로 옆 고현시내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쌍근마을 하차. 07:00 ~ 22:20 운행.

문의 고현시외버스터미널 055-632-1930

### Mini Interview

### 이동규 운영위원장

유리알처럼 맑고 아름다운 거제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우리 마을은 2008년 전국 우수어촌체험마을을 우수상, 2009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고의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전국 최고의 멸치인 쌍근 멸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통발체험, 후릿그물체험,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등 바다체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쌍근마을에 오셔서 청정바다를 통째로 낚아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쌍근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멸치잡이체험, 통발체험, 후릿그물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벌체험

**여름** 멸치잡이체험, 통발체험, 후릿그물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벌체험, 해수욕체험

**가을** 멸치잡이체험, 통발체험, 후릿그물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벌체험

**겨울** 통발체험, 선상낚시체험, 갯벌체험

### 이용 요금

멸치잡이체험비는 1인당 5000원이다. 갯벌 바지락캐기 체험비는 성인 1만 원, 어린이 5000원이다. 통발체험비는 6~7명이 한 팀이 되며 팀당 10만 원, 후릿그물체험비는 20~40명이 한 팀이 되며 1회에 15만 원이다. 해상콘도 및 선상낚시체험은 6인 기준 1박2일 25만 원, 당일 2인 기준 6만 원이다.

### 문의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탐포리 쌍근마을 504-1  
전화 055-635-4115  
홈페이지 <http://ssanggun.seantour.org>



### 1 멸치잡이체험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근 정치마을로 나간다. 은빛 멸치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고, 찜통에 찌서 말리는 과정을 체험한다. 새벽 5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6번 정도 출항한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5000원.



### 2 통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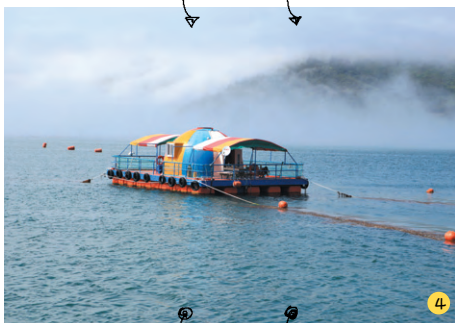
통발 안에 먹이를 넣어 바다 밑에 가라앉히면 각종 고기가 먹이를 따라 들어갔다가 갇히게 된다. 배를 타고 나가 줄줄이 통발을 끌어 올려보자. 꽃게, 꼴뚜기, 낙지 등 해산물이 올라올 때마다 환호성이 절로 나온다. 사전예약을 해야 통발에 미리 먹이를 담아 바다에 담가 둘 수 있다. 40~50개 정도의 통발체험, 약 1시간 소요, 6~7인 팀당 10만 원.





### 3 후릿그물체험

포물선을 그리며 쳐 놓은 그물을 양쪽에서 끌어당긴 다음, 그물 속의 고기를 건져내는 전통어업체험이다. '영차영차' 협동심도 기르고,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동안 몰려든 갈매기와 친구도 된다. 단체신청. 20~40명 가능, 약 2시간 소요. 1회 15만 원.



### 4 선상낚시체험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이웃사촌이 되고, 무수히 많은 별과 친구가 된다. 갯 잡아 올린 물고기로 회를 떠 먹고, 갈매기들과 노래도 부른다. 바다 위의 집, 선상콘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약 3시간 소요. 선상콘도 숙박이용자 6인 기준 25만 원, 2인 6만 원.



### 5 갯벌체험(바지락 캐기)

썰물 때면 마을 앞에 갯벌이 드러난다. 숨은 조개를 찾아내는 짜릿함과 바구니 안에 가득한 조개들을 보면 함박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엔 이보다 생생한 자연학습은 없을 것이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 명당 바지락 채취량은 1kg이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어린이 5000원.



#### Tip 학동몽돌 해변

매끈매끈한 검은 몽돌이 깔린 학동몽돌해변은 아름답기로 이름난 해변이다.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몽돌이 내는 소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올라 있다.

문의 거제시청 관광기획과 055-639-3546

# 별빛 가득한 해상콘도, 수선화가 가득한 공곶이 꽃길 트레킹



“아아~ 계도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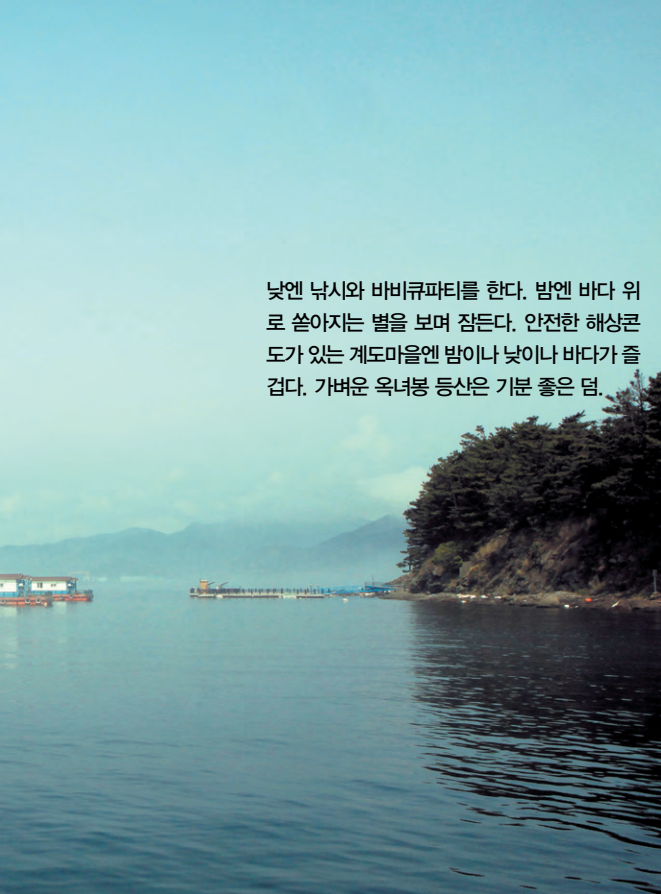


마을 뒷산이 꼭 닭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은 계도마을입니다. 마을 앞섬인 판섬은 지네처럼 생겨서 멀리서 보면 꼭 닭이 마을로 돌진하는 지네를 잡아먹으려는 형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바다 위 펜션은 이 판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섬이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어 바다 위의 펜션이 육지처럼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해상콘도에는 냉난방시설, 냉장고, 가스레인지, 화장실, 평상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낚시로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기도 하고, 맛있는 바비큐파티도 할 수 있지요. 밤에는 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들 수

있답니다. 바다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잠드는 것,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해상콘도 외에도 낚시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나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노를 저어가며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노배낚시도 인기만점입니다.



계도마을의 앞바다인 진해만은 예로부터 물고기 산란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봄에는 도다리과 볼락, 여름



낮엔 낚시와 바비큐파티를 한다. 밤엔 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잠든다. 안전한 해상콘도가 있는 계도마을엔 밤이나 낮이나 바다가 즐겁다. 가벼운 옥녀봉 등산은 기분 좋은 덤.



## >> 교통안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IC → 성포중학교 → 가조연륙교 → 가조출장소 → 계도어촌체험마을  
 남해제2고속도로 가락IC → 거가대교 → 58번 국도 → 고현시외버스터미널 → 성포중학교 → 가조연륙교 → 가조출장소 → 계도어촌체험마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거제 고현시외버스터미널까지 06:40~24:00 까지 30~4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탄다. 약 4시간 30분 소요, 거제 고현시내터미널에서 하루 8회,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43번 버스를 타고 계도마을에서 하차한다. 1시간 소요.  
 문의 고현시외버스터미널 055-632-1930  
 마산 남부시외버스터미널 055-247-6396

에는 노래미와 감성돔, 가을에는 학꽂치와 전어, 고등어, 그리고 겨울에는 대구와 물메기가 많이 잡힙니다. 우리 마을은 사계절 설 새 없이 손맛을 볼 수 있는 낚시천국입니다.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계도마을은 미더덕과 멧게, 홍합 등 신선한 해산물의 보고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멧게와 홍합을 만져보며 신기해하는 사이,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식을 하지요.

해발 332m의 옥녀봉 산행도 계도마을의 빠질 수 없는 여정입니다. 왕복 한 시간 반 낚시,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섬 산행은 가슴 뽐 풀리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른 아침 산행을 마치고 꿀맛 같은 아침식사를 경험해보세요.

## Mini Interview

### 이용조 어촌계장

맑고 아름다운 섬 공화국 거제도. 그 중에서도 계도마을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산란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계절 내내 손맛을 느낄 수 있지요. 안전한 낚시데크와 해상콘도는 온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전국 우수어촌체험마을을 2009년 장려상, 2010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고의 어촌체험마을, 계도마을로 놀러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계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봄** 해상콘도, 낚시데크 및 노배낚시 체험, 가조도일주 자전거타기, 바지락채취, 썩채취, 옥녀봉산행
- 여름** 해상콘도, 낚시데크 및 노배낚시 체험, 가조도 일주 자전거타기, 고등잡기, 미더덕어장체험, 통발체험, 미더덕·멍게 젓갈 만들기
- 가을** 해상콘도, 낚시데크 및 노배낚시 체험, 가조도일주 자전거타기, 전어잡이, 취도견학 및 역사기행
- 겨울** 해상콘도, 낚시데크 및 노배낚시 체험, 가조도 일주 자전거타기, 가두리양식 먹이주기, 굴·볼락 젓갈·김치담그기 체험

### 이용 요금

해상콘도 이용료는 크기에 따라 다르다. 성인기준 7~8명 크기는 평일 15만 원, 주말 20만 원이다. 20명이 묵을 수 있는 규모의 콘도도 있다(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이며 예약은 필수). 노배 이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이용료는 2인 기준 3만 원이다.

### 문의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들면 창호리 1076  
 전화 055-632-2515  
 홈페이지 <http://gyedo.seantour.org>  
<http://www.gyedo.co.kr>



## 1 해상콘도

낚시만 바다 위에서 즐긴다? 천만의 말씀, 이전 잠도 바다 위에서 잔다. 탄석이 병풍처럼 감싸주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며, 냉난방시설, 냉장고, 가스레인저, 화장실, 평상 등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아쉽지만 현재 4개 동만 마련되어 있어 빨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성인기준 7~8명 평일 15만 원, 주말 20만 원. 20명 크기는 평일 30만 원, 주말 40만 원.

## 2 낚시데크

진해만은 예부터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으로 물고기들이 풍부하다. 사계절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데크는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체험여행을 시도할 만하다. 약 3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학생 5000원.







### 3 노배체험

직접 노를 저어 낚시하는 노배는 바다낚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하고 좋은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어 전문 낚시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주말에는 예약이 많아 노배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2인 3만 원에 체험 가능하다. 약 2시간 이상 소요.



### 4 어민생활체험

멍게, 해삼, 미더덕 등 계절에 맞는 양식업을 체험한다. 미더덕·멍게 젓갈 담그기, 가두리양식 먹이주기, 굴·불락 젓갈·김치담그기 체험 등 어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체험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약 2시간 소요.



### 5 옥녀봉 산행

거제도의 동쪽에 있는 명산 옥녀봉에는 옛날 옥황상제의 딸 옥녀가 죄를 짓고 인간으로 환생하여 옥녀봉에 내려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해발 332m의 옥녀봉은 남해의 오밀조밀한 바다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산이다. 왕복 한 시간 반 남짓,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섬 산행은 가슴 뚫리는 기쁨을 선사해준다. 약 2시간 소요.



### Tip 다대다포항

다대다포항은 거제도의 이름난 관광지인 밀집해 있는 남부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어항이다. 해금강, 바람의 언덕, 신선대, 여차몽돌 해변 등이 모두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항과 다포항이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전복, 성게, 돌미역, 멍게, 멸치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특히 다대마을은 갯벌체험 마을(055-633-1064)로도 유명하다.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신나는 수상레저를 즐기다 보면 도심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우리 마을 요모조모

## 쌍근마을 자고 먹고!

### 📍 잠자리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인 해상콘도에서 좌대낚시체험과 함께 숙박을 해도 좋다. 쌍근어촌체험마을센터(055-635-4115)와 어민복지관(055-635-4115)의 숙박시설도 깔끔하다. 현대적인 외관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시설 콘도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체험마을센터 옆에는 축구장과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안심맞춤이며, 단체게임이나 야외 바베큐파티를 하기에 좋다.

### 🍴 먹을거리

센터와 연계된 쌍근시골밥상(055-635-2553)은 도다리썩국, 생선회, 매운탕, 시골밥상, 명계비빔밥, 해삼물회 등 싱싱한 제철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시골밥상은 어민들이 먹는 밥상처럼 차려 나와 어민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



다. 내 손자가 먹는 것처럼 맛있고 정직하게 차린다는 주인장의 말이 따뜻하다. 마을에 식당이 많지 않아 집은 고기와 바지락으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체험객들도 많다.

## 계도마을 자고 먹고!

### 📍 잠자리



계도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해상콘도가 아닐까? 바다 위에서 낚시도 하고, 바베큐파티도 하고, 밤이 되면 잔잔한 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잠들 수 있으니 이보다 낭만적인 숙소는 없을 듯. 마을 앞섬인 판섬이 병풍처럼 감싸주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며, 냉난방시설, 냉장고, 가스레인지, 화장실, 평상 등이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4동만 마련되어 있어 일찌감치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해상콘도 외에는 숙박시설이 없다. 마을에 부탁하면 마을주민의 집에서 민박(사무장 055-632-4905)을 할 수 있다.

### 🍴 먹을거리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직판장에는 도다리썩국, 돌장어구이, 명계비빔밥, 미더덕비빔밥, 매운탕, 된장찌개 등 제철



에 맞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마을 어머니들이 직접 채취한 식재료를 만든 반찬들과 제철 싱싱한 해산물의 만남이 마치 외할머니의 시골밥상처럼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밤금 잡아 올린 명계와 해삼은 입안에서 살살 녹을 만큼 맛과 향이 뛰어나다.

### 📍 특산물

**멸치**: 유리알처럼 맑은 쌍근마을의 바다물과 센 물살 때문에 멸치 맛이 좋다. 즉방렴멸치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릴 만큼 품질도 전국 최고다. 멸치는 잡는 순간부터, 찌고 말리는 모든 과정이 품질을 좌우한다. 마을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재빨리 처리하고 포장하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추천 여행코스 : 쌍근마을 → 여차몽돌해수욕장 → 바람의 언덕 → 거제해금강 → 해금강에서 점심(횃집) → 학동리동백나무숲 → 학동몽돌해변 → 구조라 → 공곶이 → 장승포항 → 계도마을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늘 바람이 머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바람의 언덕'. 언덕 위의 풍차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작은 동백나무숲이 보인다. 신선대에서는 다포도, 천장산, 오색바위 그리고 다대포의 화려한 경관이 시원스레 내려다보인다.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4-47

문의 거제시 관광안내소 055-639-3399



**해금강 테마박물관** 폐교를 개조한 박물관 1층에는 이발관, 만화방, 세탁소, 다방, 잡화점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마치 영화세트장처럼 꾸며져 있다. 2층에는 유럽의 장식품 5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62-5

문의 055-632-0670

**공곶이** 공곶이는 강명식(79), 지상익(75) 부부가 40년이 넘는 세월 피와 땀으로 가꾼 농원이다.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는 그곳에는 동백테널과 한려해상공원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지난해에 '거제 8경'으로 지정되었다.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 96

문의 거제시청 관광과 055-639-3546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을 바탕으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362

문의 055-639-8125~7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에서  
재미있는 어촌체험을 즐겨요!



“아아~ 연명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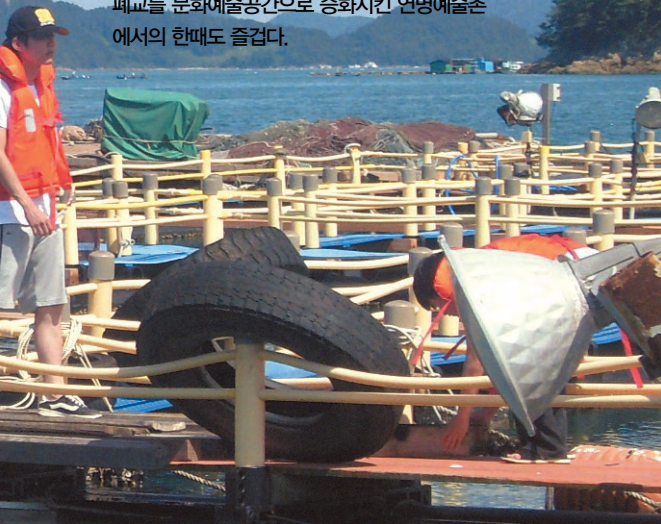
우리 마을은 통영 산양일주도로를 달리며 한려해상의 아름다움에 취할 때 즈음 만나는 아담한 항구마을입니다. 초승달처럼 휘어진 마을 모습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빨간 등대가 마치 작은 크레용처럼 눈에 띕니다. 그 앞에는 어류를 유인하여 양식하는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바로 통영, 연명마을이에요.

연명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입니다. 무서운 얘가지만 옛날 마을 앞바다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가라앉아, 익사한 자들의 영혼이나마 목숨을 연장하려고 연명(延命)이라 이름 붙였다고도 하고, 임진왜란 때 김·이·임씨 세 성씨가 이곳에 피난 와 목숨을 연명해서 그리 불렀다고도 합니다. 또, 마

을 뒤 망산에서 봉화를 올려 왜적침략을 망보던 포구라 하여 연망포 또는 열망개라 불린 것이 변형되어 연명이라 붙였다고도 하지요.

우선 우리 연명마을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은 바지락 캐기입니다. 바지락 캐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호미나 갈퀴 하나만 들고 갯벌에 난 조그만 구멍을 찾아 폭 하고 찌른 후 뒤집기만 하면 되지요. 어렵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직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코앞에 닿아 있는 통영의 연명마을은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을 자랑한다. 그리고 바다목장에서는 풍요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폐교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승화시킨 연명예술촌에서의 한때도 즐겁다.



집 캔 바지락은 바지락탕, 칼국수 등으로 요리하면 되지요. 그 외에 어촌계 선장님들과 함께 바다목장을 견학하고 목장 안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하루 동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생활해보는 무인도체험 등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도 짜릿하고요. 어촌체험이 끝나면 마을의 연명예술촌에 들러보세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연명초등학교가 폐교되고 통영 출신 화가 세 명이 자리를 잡으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지요. 1층엔 갤러리와 작업실, 2층에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영 예술인들의 작품도 보고 차 한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 ▶▶ 교통안내

🚗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C → 통영시내  
→ 미륵도 관광특구 → 산양읍 삼덕 → 연화리 연명어촌체험마을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통영종합터미널로 가는 첫차가 06:40, 막차가 23:30, 총 24회 운행된다. 4시간 30분 소요. 통영종합터미널에서 산양읍 연화리 방향 530번, 536번 시내버스를 타고 연명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문의 통영종합터미널 055-644-0018, 신홍여객 055-645-6331

### Mini Interview

### 김석관 어촌계장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를 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연명마을은, 대한민국 제1호 바다목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바다의 일정부분을 자연상태 그대로 관리하여 물고기나 어패류를 양식하는 바다목장은 체험객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실제로 먹이를 주거나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바다목장에서 알차고 즐거운 경험하러 빨리 오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연명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체험, 바지락체험,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 선상낚시체험

**여름**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체험, 바지락체험,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 선상낚시체험

**가을**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체험, 바지락체험,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 선상낚시체험

**겨울**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체험, 바지락체험,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 선상낚시체험

### 이용 요금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은 일반 1만 원이고, 어린이 5000원이다. 바지락체험은 일반 5000원이고, 어린이 3000원이다. 여벌의 옷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장화, 호미, 바구니, 붓 등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 문의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신양읍 연하리 437-1

전화 055-642-2345 / 010-9559-2389

홈페이지 <http://yeonmyeong.seantour.org>



### 1 가두리어류 먹이주기 체험

어촌계 어부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체험. 배를 타고 가두리어류장에 가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사계절 내내 가능하다.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인원이 10인 이상 되어야 출발 가능하다. 약 1시간 소요. 어른 1만 원 / 어린이 5000원.



### 2 바지락체험

연명마을 종합안내센터 앞 해변에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 일대에서 바지락캐기체험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고, 안내센터에서 장화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넓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오순도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5000원 / 어린이 3000원.





### 3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

바다목장 견학 및 먹이주기 체험은 10인 이상 인원이 되어야 출발이 가능하다. 2~3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바다에 떠 있는 목장에 도착하여 바다에 살고 있는 어류에게 먹이도 주고, 물고기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해양생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4 선상낚시체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서서 낚시를 하는 기분은 바닷바람만큼 상쾌하다. 낚시대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면 어촌센터에서 대여하는 줄낚시로 선상낚시체험을 할 수 있다. 선상낚시는 가두리양식장에서 하는 낚시체험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살아 있는 바다에서 자유로운 생명들과의 찰떡같은 만남을 기대해보자. 한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약 4시간 소요, 10인 기준 25만 원.

#### Tip 통영수산과학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생태환경을 무대로 하여 통영시의 관광자원이자 수산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영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굴, 진주, 멍게 등의 풍부한 수산물과 어부들의 일상을 5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체험실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682-1  
문의 055-646-5704





##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명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 잠자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055-642-2345)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체험 후 잡아온 어류나 여패류의 시식이 가능하다. 2, 3층에 위치한 숙소는 연명 앞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또한 족구장, 배구장, 세미나실 등 단체 숙박객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그 외에 연명마을 내에는 연명구판장에서 운영하는 펜션(055-642-1530)과 연명펜

션(055-643-8981) 등이 있다.

#### 🍽️ 먹거리

연명마을에는 가마솥해물탕, 향토굴밥, 해물낙지, 칼국수 등의 메뉴가 있는 통영해물나라(055-648-2344)가 있다. 특히 이 식당의 가마솥해물탕은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어류, 갖은 야채와 양념이 어우러져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있다. 40여 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1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갖추고 있다.



#### 🔴 특산물

**멸치 & 전복**: 연명마을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멸치와 양식 전복, 싱싱한 어류이다. 연명마을 앞바다에는 국내 최초의 바다 목장과 해상 가두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일대에 어족이 풍부하다. 연명의 멸치는 액젓을 만들 때 4~7년 지하저장고에서 숙성시켜 걸러낸다. 연명 액젓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어우러진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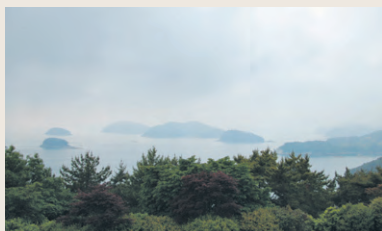


추천 여행코스 : 연명마을 → 연명예술촌 → 달아공원 → 통영수산과학관 → 도남관광단지 → 관광단지에서 점심(통영 굴요리전문점) →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 전혁림미술관 → 해저터널

**연명예술촌** 폐교되었던 학교에 통영 출신 화가 세 명이 자리를 잡으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1층은 갤러리와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24

문의 055-649-4799



**달아공원** 석양이 아름다워 통영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달아공원은 산양일주도로를 달리다 만날 수 있다. 코끼리 어금니와 닮았다 하여 달이라 이름 붙였는데, 지금에 이르러는 '달구경하기 좋은 곳' 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4

문의 통영 관광안내소 055-650-4681

**전혁림미술관** 미륵산 자락에 자리한 전혁림미술관은 한국적 색면추상의 선구자라 불리던 고 전혁림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189-2

문의 055-645-7349(<http://www.jeonhyucklim.org>)



**해저터널**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동양 최초의 해저구조물.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민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두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만든 것이다.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당동 406 외 · 미수동 907-1 외

문의 055-650-4683

## 열려라 바닷길, 나와라 썩!



“아아~ 문항마을입니다!”



문항마을은 바다를 앞에 두고 대국산 자락 아래에 형성된 전형적인 반농반어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2011년 농어촌 대표명소 20여 곳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주변의 산세와 지형이 아홉 마리 용과 비슷하다 하여 예전에는 구룡포라 불렀는데, 그 후 어느 선비가 골목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니 참 부러운 동네라 했다 하여 문항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썩, 바지락, 굴, 맛조개, 우럭조개 등의 해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간조 시에 너른 갯벌이 드러나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문항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썩잡이체험입니다. 어촌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장비

를 착용하고 부녀회 어머니들을 따라 갯벌로 들어가면 썩 잡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신답니다. 구멍에 재래 된장 물을 뿌린 후 구멍 앞에서 붓을 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올라온 썩이 붓을 침입자로 오해하고 집게 발로 째 잡거든요. 그 때 잡아 올리면 되지요. 예전과 같이 전통 그대로 여인들의 긴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잘라 붓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항마을에서 썩잡이체험만큼 인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드러나는 바닷길은 마치 바다로 들어오라 손짓을 하는 듯하다. 그 바닷길을 통해 섬으로 향한다. 문항마을은 바다가 열리는 신비한 모세현상을 간직한 마을이다. 이곳의 생명들과 조우하기 위해 갯벌을 한없이 들여다보 노라면 어느새 해가 진다.



## ▶▶ 교통안내

남해고속도로 진교C 또는 하동C → 남해대교 → 설천면 방면 → 문항어촌체험마을  
대전통영고속도로 → 3번 국도 → 사천C → 삼천포항 → 창선 · 삼천포대교 → 삼동면 → 남해읍 방면 → 고향면(성산삼거리) → 설천면 방면 → 문항어촌체험마을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남해시외버스터미널 첫차 07:00, 막차 18:00, 총 10편 운행, 4시간 30분 소요

진주터미널,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노량 하차 후 노량보건진료소 앞 승강장에서 문항리 방면 버스 탑승, 첫차 06:10, 막차 20:30, 총 10편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설천 · 노량 방면 버스 탑승 문항리 하차, 첫차 05:50, 막차 20:00 총 10편  
문의 남해시외버스터미널 055-864-7101

있는 것은 개막이체험과 바지락이나 맛조개, 우럭조개 같은 조개잡이체험입니다. 두 개의 체험은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재미가 쏠쏠하지요. 개막이체험은 밀물 때 고기가 들어오면 대말이농은 그물을 내리고 썰물 때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체험인데, 매번 인원이 넘쳐날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문항마을 앞에 떠 있는 두 개의 섬 상징도와 하장도는 간조 때 모세현상이라 불리는 바닷길이 열립니다. 물때가 가능한 날은(문항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물때 시간표 참조) 하루 두 번도 볼 수 있지요. 만조 시에는 어선을 이용해야 하는 상징도와 하장도가 썰물 때는 S자 라인의 산책길로 변신, 체험프로그램 후에는 산책도 즐기고, 섬의 아름다운 경정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Mini Interview

### 김순자 사무장

문항마을의 자원은 주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요. 함께 참여하고 생각하는 협력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프로그램을 다른 분들이 따로 하지 않고 마을 어른들이 하고 있지요. 또 모세현상이 일어나는 상징도와 하장도의 해안산책로도 문항마을의 자랑입니다. 갯벌체험과 함께 염생식물과 해양조류도 관찰할 수 있는 문항마을에는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문항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바지락 · 우럭조개 · 맛조개 체험, 썩잡이체험, 개막이체험, 후릿그물체험, 자연산 돌굴따기 체험, 석화구이체험

**여름** 바지락 · 우럭조개 · 맛조개 체험, 썩잡이체험, 개막이체험, 후릿그물체험

**가을** 바지락 · 우럭조개 · 맛조개 체험, 썩잡이체험, 개막이체험

**겨울** 바지락 · 우럭조개 · 맛조개 체험, 자연산 돌굴 따기 체험, 석화구이체험

### 이용 요금

문항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은 모두 어른 1만 원이고, 어린이 5000원이다. 여벌옷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호미, 바구니, 붓 등은 무료로 대여한다. 장화 대여료는 1인 2000원

### 문의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224-5  
전화 055-863-4787  
홈페이지 <http://munhang.seantour.org>



### 1 썩잡이체험

갯벌구멍에 된장 푼 물을 넣어 두고 붓대롱을 살랑살랑 흔들면 썩이 붓대롱을 잡는다. 썩잡기는 처음에 배우기는 어렵지만, 한 번 해보면 그 재미에 푹 빠져 시간은 줄 모르는 매력이 있다. 썩은 가재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새우같이 생겼는데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좀 더 있다.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구워 먹거나 튀겨 먹기도 하는데, 껍데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솜씨 좋게 껍데기를 벗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약 2시간 소요.

### 2 바지락 · 우럭조개 · 맛조개 체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바지락, 우럭조개, 맛조개 체험은 300m의 광활한 문항마을 갯벌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이다. 호미로 조개가 있을 법한 장소, 즉 조개가 숨을 쉬는 구멍(약간 타원형)을 보고 파내면 된다. 이 때 너무 작은 조개는 놓아줄 것. 약 2시간 소요.



1



2



### 3 개막이체험

밀물 때 고기가 몰려오면 공중에 매달아놓았던 그물을 내려 고기를 가둔 후, 썰물 때 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개막이 고기잡이 체험은 사전예약자가 최소 50명 이상일 때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매번 많은 체험자가 몰려 성황을 이룬다. 썩잡이체험과 더불어 문항마을의 인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약 2시간 소요.



### 4 후릿그물체험

개막이체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자가 최소 30명에서 최대 100명일 때 이루어지는 단체체험이다. 후릿그물체험은 자루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있고, 그 끝줄이 달린 그물을 육지나 배 가까이에서 투망해놓고, 끝줄을 오므리면서 잡아당기는 고기잡이 체험이다. 약 2시간 소요.



### 5 자연산 돌굴따기 체험

겨울에 체험할 수 있는 자연산 돌굴따기 체험은 간조 때 상장과와 하장도까지 물이 빠지며 모세현상으로 길이 열리면 그 주변의 자연산 돌굴을 채취하는 체험이다. 영양이 풍부한 굴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석화 구이체험도 더불어 할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 6 모세현상 관람

물때가 5~11물 사이일 때 열리는 모세현상은 문항마을의 상장과와 하장도를 S라인으로 연결하여 최고의 해안산책로가 된다. 해안에선 고동이나 게 등의 해산물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자연산 돌굴 등을 채취할 수 있어 다른 어촌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다. 약 2시간 소요.



# 문어랑 전복이랑잡아보고, 몽돌에 추억을 새기다



“아아~ 은점마을입니다!”



은점마을은 인근 지역에서는 잡하기 어려운 문어통발채취, 전복잡이체험, 정치망채취, 좌대낚시체험, 선상낚시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 2010년 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지요. 은점마을은 돌멩이와 문어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문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어통발채취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찾는 체험프로그램이지요.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통발을 던졌다가 다시 줄을 살살 잡아당겨 보면 안에 들어 있는 문어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운이 좋으면 문어뿐 아니라 장어나 감오징어도 잡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지요. 잡은 문어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어촌체험센터에서 시식도 가능합니다. 어촌체험센터에는 숙박시설뿐 아니라 체험한

문어나 어류,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주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 손으로, 그것도 갓 잡은 걸 먹을 수 있으니 사서 먹는 것보다 더 꿀맛이지요.

문어만큼 많은 것은 멸치랍니다. 그래서 멸치와 멸치액젓이 유명해요. 정치망으로 멸치를 한가득 잡은 홀치기배가 항구에 들어서면 멸치를 찌고 말리느라 어린 손자부터 할머니까지 손길이 바빠지지요. 멸치로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리니 정말



남해 최고의 해안도로인 물미해안도로 초입에 위치한 은점마을은 고만고만한 산에 안온하게 감싸인 마을입니다. 일찍이 은이 많이 나오던 지역이라 은을 거래하던 가게가 있었다고 해서 은점(銀店)이라 이름 붙였답니다.



### >> 교통안내

남해고속도로 사천C → 창선·삼천포대교 → 남해 삼동 방면 → 지족창선교 → 삼동 미조 방면 물미해안도로 → 은점어촌체험마을

남해고속도로 진교C → 남해대교 → 남해읍 → 삼동 창선 방면 → 지족창선교 → 삼동 미조 방면 물미해안도로 → 은점어촌체험마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남해공용터미널까지 첫차 08:00부터 막차 19:30까지 10회 운행, 4시간 3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에서 은점, 미조 방향 버스에 탑승하고 은점마을 정류소 하차. 첫차 06:40부터 막차 20:10까지 11회 운행, 소요시간 약 40분.

문의 남해시외버스터미널 055-864-7101

대단하지요? 또 마을 1종 공동지선에는 자연산 해삼과 진복이 있어 연각 1천만 원 수입을 가져다주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은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스란히 마을 공동사업 자금으로 쓰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은점마을에는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은점마을의 몽돌해변에서는 모래를 털어내거나 갯벌 흙이 물을 걱정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지요. 또 은점마을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멋진 일출광장이 있어요. 은점마을 산책로를 따라 슬슬 걸어가다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침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지요. 매년 정월대보름에는 마을의 발전과 마을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달맞이 행사와 풍어제도 함께 하세요.

### Mini Interview 정경규 어촌계장

우리 은점마을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예부터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다른 어촌체험마을처럼 갯벌은 없지만 아름다운 몽돌해변을 가지고 있지요. 또 다른 마을에는 없는 문어와 전복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의 문어보다 맛이 연하고 좋은 것도 장점이지요. 게다가 일출광장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은점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문어통발체험, 굴돌새끼기체험, 좌대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여름** 문어통발체험, 전복·고동 잡이 생태체험, 굴돌새끼기체험, 좌대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가을** 문어통발체험, 굴돌새끼기체험, 좌대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겨울** 문어통발체험, 굴돌새끼기체험, 좌대낙시체험, 선상낙시체험

### 이용 요금

문어통발체험은 1~5인까지 5만 원, 추가 1인당 어른 1만 원 / 어린이 5000원, 전복·고동 잡이 생태체험은 어른 2만 원, 어린이 1만 원, 굴돌새끼기 체험은 직접 물들을 채취하는 체험이므로 체험비가 없다.

### 문의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64-3  
전화 055-867-7119  
홈페이지 <http://eunjeom.seantour.org>



### 1 문어통발체험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 가능한 문어통발체험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통발을 던지고 건져 올리면 문어를 잡을 수 있는데, 잡은 문어는 어촌체험센터 내의 식당에서 곧바로 시식할 수 있다. 은점의 문어는 다른 지역의 문어보다 연하고 맛이 좋다. 약 2시간 소요, 1~5인까지 5만 원, 추가 1인당 어른 1만 원 / 어린이 5000원.



### 2 후릿그물체험

후릿그물체험은 문어통발체험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는 고기잡이체험이다. 어른들만 할 수 있다.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편 후, 그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가족끼리 할 때는 양쪽에서 그물을 당겨 고기를 잡으며 서로의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 원.







### 3 전복 · 고등 잡이 생태체험

여름시즌인 6월에서 9월에 할 수 있는 전복 및 고등 잡이 체험은 문어통발체험과 더불어 은점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이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풍부해 예부터 전복서식지로 알려진 만큼 전복잡이체험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져다준다. 약 2시간 소요. 어른 2만 원 / 어린이 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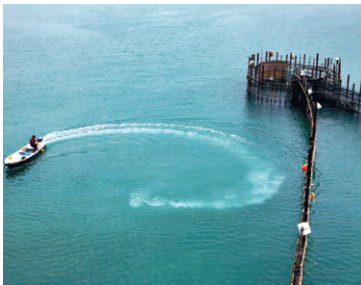
### 4 글돌새기기체험

은점마을 몽돌 해변에서 가져온 동글납작한 돌을 어촌 체험센터로 가지고 오면 물감이나 색연필, 사인펜 등으로 돌을 예쁘게 꾸며 기념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고, 이렇게 새겨진 글돌은 은점마을 해변길 벽에 장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은점마을에 찾아가서 자신이 새긴 글돌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한몫할 것 같다. 약 2시간 소요.



### Tip 1 물건항

은점마을 인근의 물건항은 국가가 지정한 제1종 어항으로 남동쪽 동매산 돌출부와 북동쪽 당기산 돌출부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2010년부터 마리나항으로 본격 개발되고 있는 물건항은 '2010 남해오토밸리'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물건항에 조성된 물건방조어부림은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인 동시에 방풍과 방조의 목적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Tip 2 지족해협 원시어업 죽방렴

죽방렴은 원시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는 민속문화재로 길이 약 10m의 참나무로 된 말뚝을 V자형으로 갯벌에 박아 대나무를 그물로 엮어 주렁처럼 만든 어업도구이다. 문의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 알아두면 도움되는 우리 마을 요모조모



### 문항마을 자고 먹고!

#### 📍 잠자리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055-863-4787/010-2224-4787) 2층에 위치한 민박과, 체험마을 도우미로 활동하는 주민이 운영하는 35개소의 민박(해오름민박 055-863-2127/010-3577-7863)은 문항의 인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 숙소에서 창밖으로 일출을 볼 수 있어 좋다.

#### 🍴 먹거리

은점마을에는 자연산 회와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진섬횡집(055-862-7184)이



있다. 횡감이 상심해서 씹는 맛이 좋고 감칠맛이 난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문항리에서 멀지 않은 문항리의 횡담밥을 맛있게 하는 식당 해안선(055-862-6705)도 추천할 만하다.

### 은점마을 자고 먹고!

#### 📍 잠자리



어촌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어촌게민박(055-867-7119/010-3070-5513)은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손님들을 맞이하기에 적당하다. 그 외에도 깨끗하고 편리한 숙박시설이 있으니 어촌체험마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 먹거리

은점마을을 포함한 남해안의 멀치는 육질이 좋고 고소한 맛으



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은점마을에는 운영하는 식당이 없어 비교적 가까운 미조항에서 멀치쌈밥을 맛볼 수 있다. 유일한 식당은 식육점 한포식당(055-867-0685)이다.

#### 📍 특산물

**자연산 굴 & 시금치**: 문항마을의 자연산 굴은 타 지역보다 단맛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김장용 양념, 굴회, 석화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항마을의 자연산 굴은 1kg이면 4인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또 해풍을 맞고 자란 문항마을의 시금치는 변비

와 빈혈 예방에 좋아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할 건 강식욕이기도 하다.



추천 여행코스 : 문항마을 → 가천다랭이마을 → 보리암 → 상주은모래비치 → 송정해수욕장 → 미조항과 물미해안도로 → 미조항에서 점심(생선조림) → 은점마을 → 물건방조어부림 →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 지족 죽방렴

**물건방조어부림** 수목 1만 여 그루로 이루어진 광대한 숲으로 현재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약 300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방조어부림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

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문의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상주은모래비치** 길이 2km, 폭 120m로 남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을 자랑하는 상주은모래비치는 울창한 송림과 함께 그 앞에 점점이 놓인 돌섬과 나무섬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한다. 마을 주변 바다를 순회하는 유람선도 있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148

문의 055-863-3573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미조항에서 물건리까지 이어지는 물미해안도로는 남해의 2대 명품 해안도로로 곳곳에 숨겨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문의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미조항** 점이 떠있는 크고 작은 섬과 포근하게 항구를 감싸는 울창한 숲. 남해의 동남쪽 끝에 자리한 미조항의 경치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다. 싱싱한 활어와 멸치회 등을 맛볼 수 있는 횡집도 즐비하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사항마을

문의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해녀물질을 체험으로  
제주바다를 만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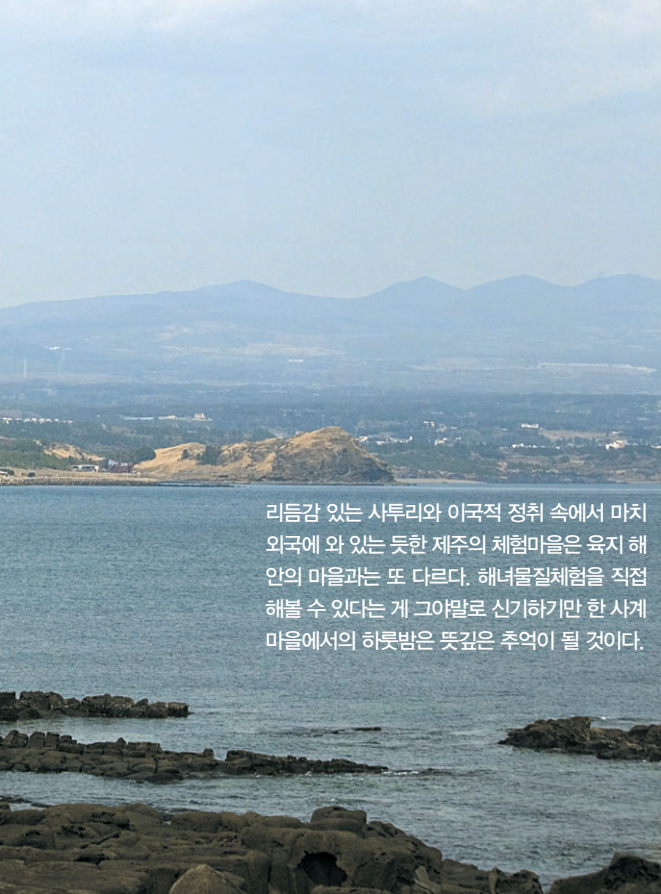
“아아~ 사계마을입니다!”



사계마을은 제주 명소 중 하나인 산방산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산방산 아래로는 푸른 물빛의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고, 앞바다에는 우에 깊은 형제처럼 형제섬이 나란히 떠 있지요. 이곳은 물질하는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정겨운 제주의 어촌체험마을입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어촌체험마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1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및 어촌문화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와 순박한 마을 인심이 어우러진, 가장 제주다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일단 사계마을에 오시면 다양한 바다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잡이체험이나 선상낚시, 갯바위낚시, 구멍낚시 등 일반적인 체험도 있지만,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지요. 맞습니다.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해녀지요? 체험객이 직접 해녀가 되어 물질을 해 보는 해녀물질체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테왁과 망사리, 골갱이 등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배우고, 숨비소리에 대한 이야기





리듬감 있는 사투리와 이국적 정취 속에서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제주의 체험마을은 육지 해안의 마을과는 또 다르다. 해녀물질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그야말로 신기하지만 한 사계마을에서의 하룻밤은 뜻깊은 추억이 될 것이다.

도 들을 수 있으니 교육적 효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바다로 들어가면 정말 해녀가 된 기분이 듭니다. 물질을 하며 전복과 소라, 성게, 보말 등을 잡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홍해삼이나 문어도 잡힙니다. 체험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이고, 잡은 해산물 중 소라는 1kg 내에서 체험객이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사계마을에서는 해녀물질체험과 함께 바닷가에서 소라, 게, 보말 등을 쪄는 바룻잡이체험과 함께 바다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선상낚시체험, 방파제 위에서 즐기는 갯바위낚시체험, 구멍낚시체험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계마을 체험객에게는 산방산 탄산온천과 마라도 잠수함 이용권을 각각 30%와 20% 할인해주는 특별한 혜택도 주어지므로 꼭 오셔서 제주를 직접 만나보기 바랍니다.



### >> 교통안내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여객선터미널 → 공항 입구 한림 방면 우회전 → 지방도 1135번 → 덕수사거리 우회전 → 사계남로 좌회전 → 형제해안로 → 사계어촌체험마을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화로(1135번 지방도)를 경유하는 화순이나 대정행 버스를 타고 사계리에서 하차, 하차 후 0.8km 정도 걸어야 한다. 배차 간격은 40분 정도.

문의 제주시외버스터미널 064-753-1153

### Mini Interview

### 김봉의 어촌계장

사계마을은 용머리해안이 지척에 있고, 해안도로 상에서 보면 산방산과 한라산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2.7km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입니다. 또 사계마을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맑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바룻잡이 체험, 갯바위낚시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체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하는 어촌체험 신나는 하루

# 사계마을 체험 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해녀물질체험, 바닷잡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구멍낙시체험

**여름** 해녀물질체험, 바닷잡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구멍낙시체험

**가을** 해녀물질체험, 바닷잡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구멍낙시체험

**겨울** 해녀물질체험, 바닷잡이체험, 선상낙시체험, 갯바위낙시체험, 구멍낙시체험

## 이용 요금

사계어촌체험마을에서 최고로 인기가 높은 해녀물질체험은 장비대여를 포함해 1만5000원의 체험비가 있고, 선상낙시체험은 5인 기준 10만 원이다. 바닷잡이체험은 성인 1만 원, 어린이 3000원이며, 갯바위낙시와 구멍낙시의 체험비는 각각 1만5000원, 1만 원이다.

## 문의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 - 30  
전화 064-792-3090 / 010-3694-2124  
홈페이지 <http://sagye.seantou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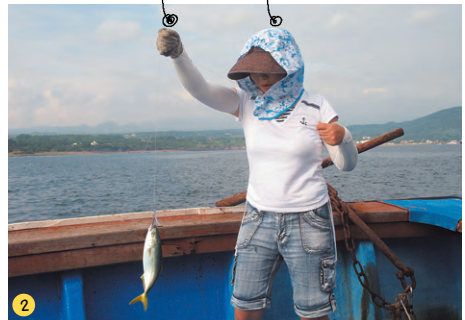
### 1 바닷잡이체험

바닷은 바다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바닷잡이는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백중날 햇볕을 이용해 해산물을 잡는 제주도 전통풍속이다. 바닷잡이체험은 간조 때만 할 수 있다. 소라, 게, 고둥, 성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돌틈에서 문어도 잡을 수 있다. 약 2시간 소요, 성인 1만 원 / 어린이 3000원.



### 2 선상낙시체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직접 낚시를 즐기는 체험이다. 사계마을 선주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낚시가 잘되는 포인트뿐 아니라 낚시를 잘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잡은 고기는 선상에서 직접 회를 떠 맛볼 수 있다. 약 2시간 기준, 10만 원.





### 3 해녀물질체험

해녀체험은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체험 전 해녀의 물질도구에 대한 설명과 해녀에 대한 기본 교육이 진행된다. 해녀복을 착용한 채, 체험에 필요한 테왁, 망사리, 골갱이를 둘러메고 나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해녀의 모습이다. 해녀와 함께 얕은 바다에서 물질이 시작된다. 전복, 소라, 보말, 성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채취한 해산물은 1명당 1kg 정도 먹을 수 있고,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약 1시간 소요, 1인당 1만5000원.



### 4 갯바위낙시와 구멍낙시 체험

갯바위낙시와 구멍낙시 체험은 사계리 앞바다의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할 수 있다. 갯바위낙시는 벵에돔, 감성돔 등 종류가 많이 잡힌다. 구멍낙시는 방파제의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낙시대를 넣어 잡는데, 우럭, 노래미 등이 잡힌다. 약 2시간 소요, 1인당 1만5000원, 1만 원



### Tip 모슬포항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은 대한민국 최남단 어업전진기지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북항과 남항으로 나뉘어 있다. 가파도와 마라도를 포함한 모슬포 앞바다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방어와 자리돔의 주산지로 매년 11월 중순에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모슬포항에서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운항한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계마을 요모조모

### 자고 먹고!

#### 잠자리



사계어촌체험마을 주변에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산방산 인근에 위치한 이디살래(064-792-7171)의 넓은 정원 뒤로는 산방산이 우뚝 솟아 있다. 이디살래는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제주방언이다. 살래와 발음이 비슷한 '살레'는 스위스의 작은 산장 또는 별장을 의미한다. 이디살래는 가족의 정을 파는 곳이라 당당히 말한다. 그만큼 가족 단위의 손님이 머물기 좋은 곳이라는 자부심 어린 말이다. 체험마을 주변으로는 해안성펜션(064-794-4848), 산방산에

펜션(064-794-3100)이 있고, 게스트하우스로는 레이저박스게스트하우스(070-8900-1254), 산방산게스트하우스(064-792-2533) 등이 있다.

#### 먹을거리

사계 마을에는 춘미향식당(064-794-5558)과 해변정식당(064-794-4170)이 유명하다. 춘미향식당은 고기정식과 뽕에 돔김치찌름을 잘 내는 곳이다. 고기정식은 점심메뉴로 자투리고기와 생선구이, 맛깔스런 밀반찬이 달려 나온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배부른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사계해안도로에 위치한 해변정식당



은 해물탕이 맛있다. 갯가지 해물로만 국물을 내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남경미락(064-794-0055), 진미식당(064-794-3639)은 활어회로 유명한 집이다.

#### 특산물



**홍해삼** : 사계리 앞바다는 해초가 풍부해 홍해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종패 방류사업을 통해 수확량이 늘었다. 해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겨울 보양식으로 일품이다. 피로회복과 여성들의 피부미용,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이다.



# 여기저기 제주도 여행하기!

추천 여행코스 : 사계마을 → 사계항 → 송악산 → 초콜릿박물관 → 모슬포항 → 모슬포항에서 점심(Hits) → 추사유배지와 대정항교 → 산방굴사 → 하멜표류지 → 용머리해안 → 화순해수욕장 → 주상절리대 → 중문관광단지

**추사유배지와 대정항교** 추사유배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9년여 동안 유배된 곳이다. 유배생활 중 추사체를 완성했으며, 국보 제 180호로 지정된 '세한도'가 탄생한 곳이다.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문의 064-794-3089



**산방산(산방굴사 - 하멜표류지 - 용머리해안)** 종 모양의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명소 중 하나다. 산방산 중간지점에는 자연석굴이 있어 산방굴사라 불린다. 해안에는 하멜표류지와 용머리해안이 자리하고 있어 세 곳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다.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6 일대

문의 064-794-2940

**초콜릿박물관** 초콜릿박물관은 초콜릿의 역사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초콜릿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초콜릿박물관이자 세계 10대 초콜릿박물관 중 하나다.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8

문의 064-792-3121



**송악산** 송악산은 해발 104m의 기생화산으로 소나무가 많아 송악산이라고 불리며, 해안 절벽에 부딪히는 절(물결의 제주 방언)이 범상치 않게 울린다 하여 절울이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31

문의 대정읍사무소 064-794-2302

대한민국 대표 체험관광지, 어촌체험마을  
아름다운 어촌으로 떠나는  
1박2일 바다여행

●  
초판 인쇄 2011년 7월 5일

초판 발행 2011년 7월 7일

●  
편집 하이미디어피엔아이

●  
등록일 2003년 5월 3일

등록번호 서울 라 10996

인쇄 (주)삼조인쇄

●  
발행처 한국어촌어항협회

●  
〈비매품〉

ISBN 978-89-93313-13-0

# 오감(五感) 여행, 어촌체험마을 다녀오셨군요!



여유 없는 도시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전국 100여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등 푸른 바다와 계절 따라 숨 쉬는 진흙갯벌에서  
가족과 연인의 처음 그 사랑을 만나게 합니다.  
한 해 763만 명의 행복을 충전하는 그곳.

## 어촌체험프로그램

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산물채취/ 후릿그물/ 해조류말리기/  
바다공예/ 투명카누/ 보트/ 스킨스쿠버/ 무인도/ 염전/  
정치망/ 개막이/ 바다요리.

어촌체험마을, 그 깊고 넓은 오감(五感)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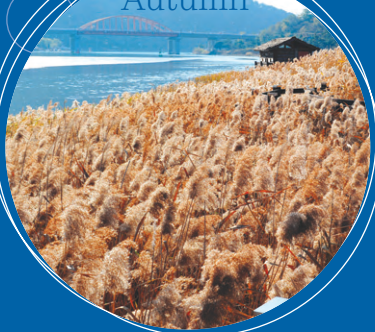
Spring



Summer



Autumn



Winter

